

ASIA-EUROPE MEETING



A S I A - E U R O P E M E E T I N G

ASEM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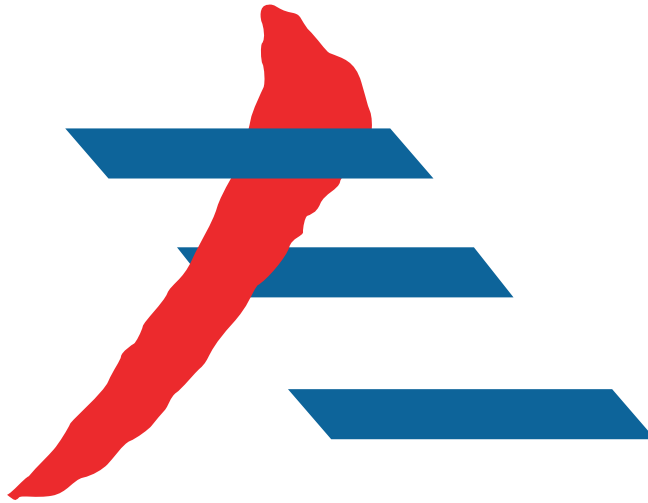
외교통상부

ASEM길라잡이

ASIA – EUROPE MEETING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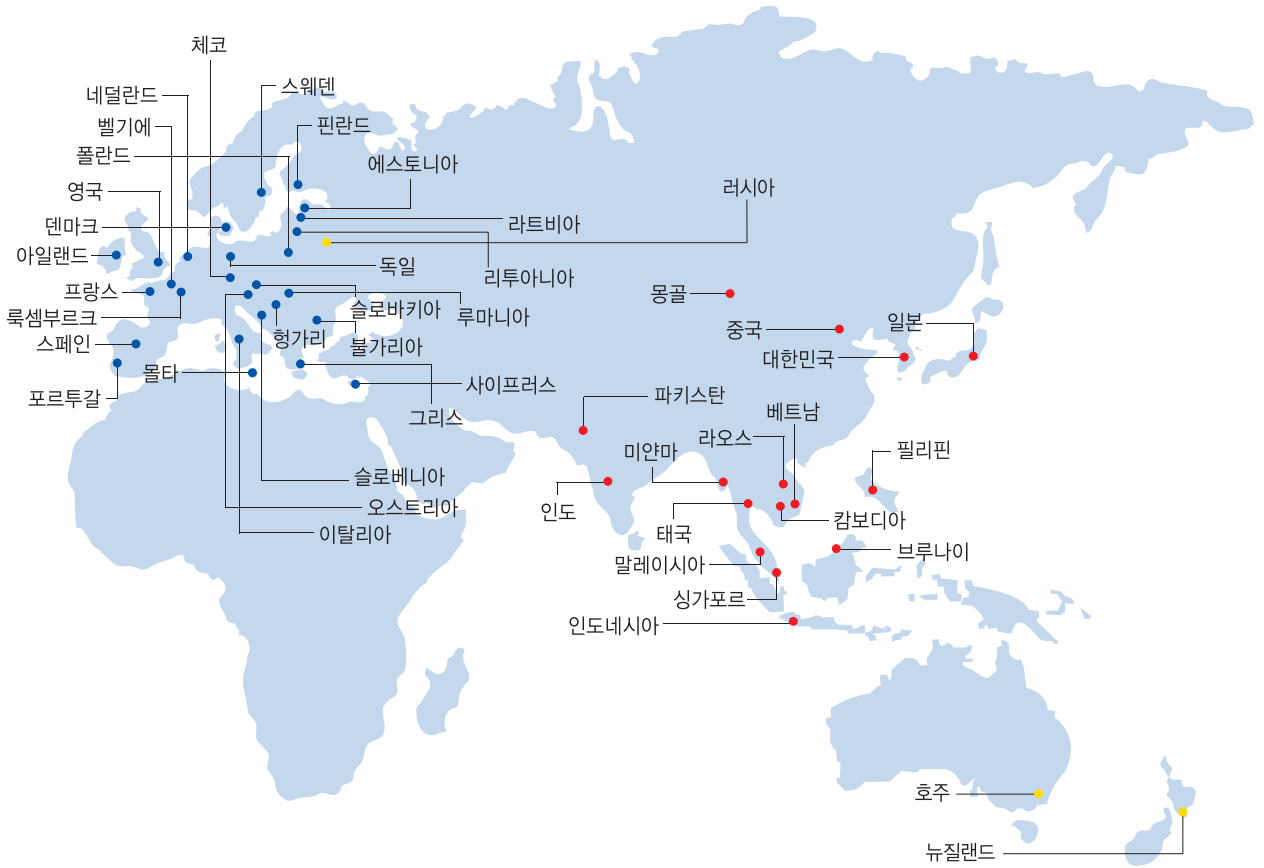
ASIA-EUROPE MEETING

⌘ ASEM 로고는 2003년 7월 제5차 발리 외무장관회의에서 채택

⌘ 의미

- 아시아의 두문자인 “A”를 서예체로 표현하고 유럽의 두문자인 “E”를 로마체로 표현하여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협력을 형상화함
- 빨간색은 아시아를, 파란색은 유럽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동서 문화의 화합과 공존공영의 염원을 나타냄

■ 회원국 정보



아 시 아
회 원 국
(17)

나 라	수 도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서울 Seoul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비엔티안 Vientiane
 몽골 Mongolia	울란바토르 Ulaanbaatar
 말레이시아 Malaysia	칼라룸푸르 Kuala Lumpur
 미얀마 Myanmar	내피도 Naypyitaw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하노이 Hanoi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반다르 세리 베가완 Bandar Seri Begawan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Singapore
 인도 Republic of India	뉴델리 New Delhi

나 라	수 도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자카르타 Jakarta
 일본 Japan	도쿄 Tokyo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베이징 Beijing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프놈펜 Phnom Penh
 태국 Kingdom of Thailand	방콕 Bangkok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마닐라 Manila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ASEAN 사무국 ASEAN Secretariat	

유 럽
회 원 국
(28)

나 라	수 도
 그리스 Hellenic Republic	아테네 Athens
 네덜란드 Kingdom of the Netherlands	암스테르담 Amsterdam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코펜하겐 Copenhagen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베를린 Berlin
 라트비아 Republic of Latvia	리가 Riga
 루마니아 Romania	부카레스트 Bucharest
 룩셈부르크 Grand Duchy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 Luxembourg
 리투아니아 Republic of Lithuania	빌니우스 Vilnius
 몰타 Republic of Malta	발레타 Valletta
 벨기에 Kingdom of Belgium	브뤼셀 Brussels
 불가리아 Republic of Bulgaria	소피아 Sofia
 스웨덴 Kingdom of Sweden	스톡홀름 Stockholm
 스페인 Kingdom of Spain	마드리드 Madrid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

나 라	수 도
 슬로베니아 Republic of Slovenia	류블리아나 Ljubljana
 아일랜드 Republic of Ireland	더블린 Dublin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런던 London
 에스토니아 Republic of Estonia	탈린 Tallinn
 오스트리아 Republic of Austria	비엔나 Vienna
 이탈리아 Italian Republic	로마 Rome
 체코 Czech Republic	프라하 Prague
 사이프러스 Republic of Cyprus	니코시아 Nicosia
 포르투갈 Portuguese Republic	리스본 Lisbon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바르샤바 Warszawa
 프랑스 French Republic	파리 Paris
 핀란드 Republic of Finland	헬싱키 Helsinki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부다페스트 Budapest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제 3
회 원 국
(3)

나 라	수 도
 호주 Australia	캔버라 Canberra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모스크바 Moscow

나 라	수 도
 뉴질랜드 New Zealand	웰링턴 Wellington

I. ASEM 들어가기



1. ASEM은 무엇인가요?	10
2. ASEM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1
3. ASEM은 어떻게 발달해 왔나요?	12
4. ASEM은 다른 지역협력기구나 국제기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18
5. ASEM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1
가. 정상회의	22
나. 외무장관회의	23
다. 기타 각료급 회의	24
라. 고위관리회의	27
마. 조정국회의	28
6. ASEM의 3대 협력분야는 무엇인가요?	30
가. 정치 분야	30
나. 경제 분야	30
다. 사회/문화 분야	31

II. ASEM 자세히 알아보기



1. 정치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34
가. 국제적·지역적 현안에 대한 대처	35
나. 안보 및 테러 대응 협력	35
다. 다자주의 외교 보완	35
2.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38
가. 무역 및 투자 증진	39
나. 경제 다자주의 촉진	39
다. 금융분야 협력 강화	39
라. 민간 비즈니스 교류 증진	40
마. 환경분야 협력 강화	40
3.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48
가. ASEM DUO 장학사업	48
나. 정보·통신 기술 협력 증진	50
다. 인권 상황 개선	51
라. ASEM 종교간 대화	51
마. 시민사회 교류 확대	52
4. ASEM은 어떻게 확대되고 있나요?	57
5. 아시아-유럽 재단은 어떤 기구인가요?	59
가. 아시아-유럽 재단의 설립	59
나. ASEF 재단의 목적과 기능	59
다. ASEF 재단의 운영	59
라. ASEF 재단의 주요사업	61

III. ASEM 속의 한국



1. ASEM 내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떠한가요?	66
가. ASEM 발전의 중추국	66
나. ASEM 의제 설정 주도국	66
2.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67
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가 위상 강화	67
나.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67
다.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으로 활용	67
3. 우리나라와 ASEM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어떠한가요?	70
가. 우리나라와 ASEM 국가간 교역 관계	70
나. 우리나라와 ASEM 국가간 투자 관계	71
4. ASEM 회원국에 우리나라 동포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71

IV. 부 록



부록 1. ASEM 관련 주요 행사 일지	74
부록 2. 역대 정상회의 참석자 명단	87
부록 3. ASEM 주요 협력사업 추진현황	95
1.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95
2.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98
3. 투자촉진 행동계획	101
4.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102
5. ASEM 신탁기금	104
6.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105
7.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107
8. ASEM 이만국장회의	111
9. ASEM 내 사이버 보안 강화 사업	112
10. ASEM 종교간 대화	113
11. ASEM 아동복지사업	114
12. ASEM DUO 장학사업	116
13.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	118
14. ASEM 정보격차 해소사업	119
15. 대테러 세미나	120
16. 평생학습 회의	121
17. ASEM 무역·투자 및 금융 Task Force	123
18. 다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아시아-유럽 대화	125
19.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125
20.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126
부록 4. ASEM 협력평가 보고서(국·영문)	128
부록 5. 약어표	138
부록 6. ASEM 관련 웹사이트	140

I. ASEM 들어가기

- 1 ASEM은 무엇인가요?
- 2 ASEM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3 ASEM은 어떻게 발달해 왔나요?
- 4 ASEM은 다른 지역협력기구나 국제기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 5 ASEM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6 ASEM의 3대 협력분야는 무엇인가요?



I. ASEM 들어가기

1. ASEM은 무엇인가요?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6개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27개국 및 제3그룹 3개국 정상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만나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

현재 ASEM은 전세계 인구의 60.3%, 총생산(GDP)의 55.5%, 무역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아시아-유럽간 긴밀한 협력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 ASEM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ASEM 지역의 면적과 인구】

총 면적	4천9백7십만km ² (전 세계의 33.4%)
인 구	41.2억명(전 세계의 60.3%)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10)

【ASEM 지역의 경제적 비중】

	GDP(\$, PPP기준)	교역량(\$)
아시아 16개국	21조 1천278억	5조 8천862억
EU 27개국	14조 8천548억	8조 8천598억
제3그룹	3조 552억	8천689억
ASEM	39조 378억	15조 6천150억
WORLD	70조 2천900억	24조 6천900억
%	55.5%	63.2%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09)

● ASEM 48개 회원국

아시아

ASEAN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ASEAN 사무국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몽골,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U 집행위원회

제3그룹

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ASEM 내에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단계의 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ASEM 내 협력은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문화 등 세 개의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축하하며 회원국 국기로 한반도 지도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2000.10)

ASEM 원칙¹⁾

- 동등한 동반자관계,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
- 개방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회원국의 확대는 각국 정상의 합의에 기초
-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인식 증대, 단결되고 협조적인 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 정치 대화 증진, 경제 협력 강화, 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 등 동등한 비중의 세 분야
- 비공식 과정으로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다른 분야의 협력 촉진
- 기업/민간분야 협력 및 일반 국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아울러 양 지역 연구단체간 협력 장려

2. ASEM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90년대 이래 냉전적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국제질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치·경제의 3개 중심지역 중에서 유럽과 북미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아시아와 북미 관계도 1989년 탄생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아시아-유럽간의 관계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불릴 정도로 북미-유럽, 아시아-북미간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 ASEM의 원칙은 ASEM의 기본 문서인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2000(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2000)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에 신흥경제대국들이 등장하고 EU를 중심으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두 지역간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한·중·일 동북아 3국과 ASEAN 국가들 그리고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태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ASEM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된 방콕의 ASEM PRESS CENTER(1996.3)

ASEM이 창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

가. 유럽의 관점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APEC의 발전

나. 아시아의 관점

유럽 통합 심화/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북미간 밀접한 관계

다. 양 지역 공통의 관점

냉전시대 종료 후 경제적 경쟁 심화/아시아와 유럽간 깊어가는 상호의존도

3. ASEM은 어떻게 발달해 왔나요?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정상회의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유럽간 포괄적 협력관계’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모두 26개국으로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EU 15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방콕 ASEM 정상회의 개막회의에 참석하여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정상들(1996.3)

이 역사적인 첫 모임에서 ASEM 회원국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sia-Europe Vision Group:AEVG)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년 후인 1998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제2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주제하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ASEM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AECF)」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돕기 위해 ASEM 신탁기금(ASEM Trust Fund: ATF)을 설립하고 고위 경제 사절단들을 보내기로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한 제3차 ASEM 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결정 소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ASEM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개최식 장면(2000.10)

회원국 정상들은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3대 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아시아-유럽 협력 강화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런던에서 채택된 AECF를 대체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아 향후 10년 ASEM의 비전, 원칙과 목적을 담은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2000(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AECF 2000)²⁾」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을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관련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002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ASEM 회의는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대테러 전쟁, 이라크 전쟁,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된 정치 분야 이슈가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 문서로는 의장성명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코펜하겐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과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tion on Cooperation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이 채택되었습니다.

2)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2000(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AECF 2000)은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ECF를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로이 수정한 것입니다. AECF 2000은 ASEM의 새천년 10년 동안의 중장기적 비전, 원칙, 우선순위 및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ASEM의 기본 문서입니다. AECF 2000은 고위관리들과 외무장관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무장관들이 다가오는 정상회의에 수정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타결 노력을 위한 ASEM의 역할을 확인하고, 무역·투자 및 금융 분야의 협력을 위해 Task Force를 설립하였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문명간 대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ASEM 정상들은 처음으로 retreat session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ASEM

내 유일한 상설 기구인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EF)의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정상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4차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2002.9)

2004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차 ASEM 회의는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의 활성화 및 실질화’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제5차 정상회의는 EU 중동구 신회원국 10개국과 ASEAN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새로이 ASEM에 가입하여 ASEM 창설 이후 최초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ASEM 가입을 반대하는 EU와 ASEAN측간의 의견차이로 2004년 7월과 9월 개최 예정이던 재무 및 경제 장관 회의가 취소되는 등 회의 개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에 제5차 정상회의는 열린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 지역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경제 동반자 선언(Hanoi Declaration on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이 채택된 점은 눈여겨 볼만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테러리즘과 다자주의 강화 분야를 중심 의제로 다루었고,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들간의 대응 의지가 천명되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문명간 대화에 대한 ASEM 선언(ASEM Declaration on Dialogue among Cultures and Civilizations)」을 채택하여 문명간 대화 및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공동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제5차 하노이 ASEM 정상회의의 개회식(2004.10)

ASEM 출범 10주년을 맞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2006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0년간의 ASEM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서(Chairman's Statement)」,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ASEM6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및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 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이,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였습니다. 제6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들은 비공식성(informality), 관계 구축(net-working), 유연성(flexibility) 등을 특성으로 하는 ASEM 프로세스의 성격을 재확인하였으며, 진일보한 ASEM 운영 방식 및 제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ASEM 메커니즘 개선 방안으로 '의제중심 리더십(issue-based leadership)'을 도입해, ASEM내 핵심 의제별(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ASEM의 3대 협력 분야)로 복수(아시아, 유럽 각각 최소 1개국)의 국가가 리더로서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ASEM 프로세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2006.9)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2008년 제7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의지를 담은 「의장성명서(Chair's Statement)」, 「국제금융상황에 관한 ASEM 정상성명(Statement of the Seventh Asia-Europe Meeting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ituation)」 및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 3개 문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 정상회의시 승인된 신규 6개 회원국(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상이 처음으로 참석해 ASEM의 규모가 4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주요 협력사업으로 제5차 ASEM 종교간 대화 및 ASEM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제7차 북경 ASEM 정상회의(2008.10)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3차 ASEM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가장 많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외교 행사로 22개국 정상과 4개국 정상대리를 포함, 1,800여명의 대표단과 2,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단이 참가하였습니다.³⁾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개최식 참석을 위해 이동중인 정상들(2000.10)

(1) 새천년을 맞은 ASEM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이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3대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지향하고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ASEM의 장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한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2000(AECF 2000)’을 채택하였습니다.
 - ASEM 출범이후 오랜 현안이었던 신규회원국 가입 지침 확정을 통해 향후 ASEM 회원국 확대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비회원국의 ASEM 사업 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한반도 화해·협력에 대한 ASEM 차원의 협력과 기여 확보

- 우리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ASEM 정상들의 축하와 높은 평가가 집중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화 회의 주요 테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ASEM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천명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후 ASEM 정상회의시 한반도와 관련된 별도의 선언을 채택하거나 의장선언서에 한반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 회의기간 중 영국, 독일, 스페인 총리가 대북한 수교 기본방침을 밝힘으로써 EU 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에 가시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3)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큰 행사였습니다.

(3)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신규사업 채택

■ 아시아-유럽간 경제적 보완성, 역동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역, 투자 및 인적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총 16개 신규사업이 승인된 바, 승인 사업의 숫자와 내용에 있어서역대 두번째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7개 사업이, 2차에서는 8개가 채택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제4차에는 10개, 제5차에는 9개, 제6차에는 6개, 제7차에서는 17개가 채택되었습니다.

■ 특히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ASEM DUO 장학사업’ 등 우리가 제안한 4개 사업은 핵심적인 신규사업으로 인정되어 각국 정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4)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 우리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정상회의를 효율적으로 주재,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의 신장된 민주역량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각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 서울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구조 조정의 성공적 결과를 대외에 전파하여 우리 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5) 다자외교 무대로의 부상

■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다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6개국이 참여한 총 3개의 전체 세션과 10개국 정상이 참여한 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외에 양자간 총 44회의 정상회담과 36회의 장관급회담을 효율적으로 병행 개최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된 삼성동 ASEM센터 전경

• 이러한 ASEM 회의의 성공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4. ASEM은 다른 지역협력기구나 국제기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지역협력은 EU나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 NAFTA)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지리적 인접성을 배경으로 일정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새로이 나타난 ASEM, APEC과 FEALAC⁴⁾ 등은 지역협력이 일정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ASEM은 국가들간의 협력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국제기구 또는 APEC, FEALAC와 같은 지역간 협의체들과는 다른 ASEM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SEM의 이러한 특징들은 때로는 ASEM 프로세스에 순기능적으로, 때로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독특한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SEM과 APEC 비교】

지역협력체 (정식명칭)	설립/주창국	회원국수	의사결정 방식	세계에서의 비중(%)			
				면적	인구	GDP	교역
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1994.10 싱가포르	48개, (EU집행위, ASEAN 사무국 포함)	전원합의 (컨센서스)	33.4	60.3	55.5	63.2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1989 호주, 한국	21개 (홍콩, 대만 포함)	전원합의 (컨센서스)	40.8	40.1	55	45.2

※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2009, 2010)

● 지역협력을 넘어서는 지역간 협력

ASEM의 회원국은 유럽과 아시아 양 지역에 걸쳐 있으며, 지역이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간 협력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SEM은 EU, ASEAN, NAFTA 등과 같이 일정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지역협력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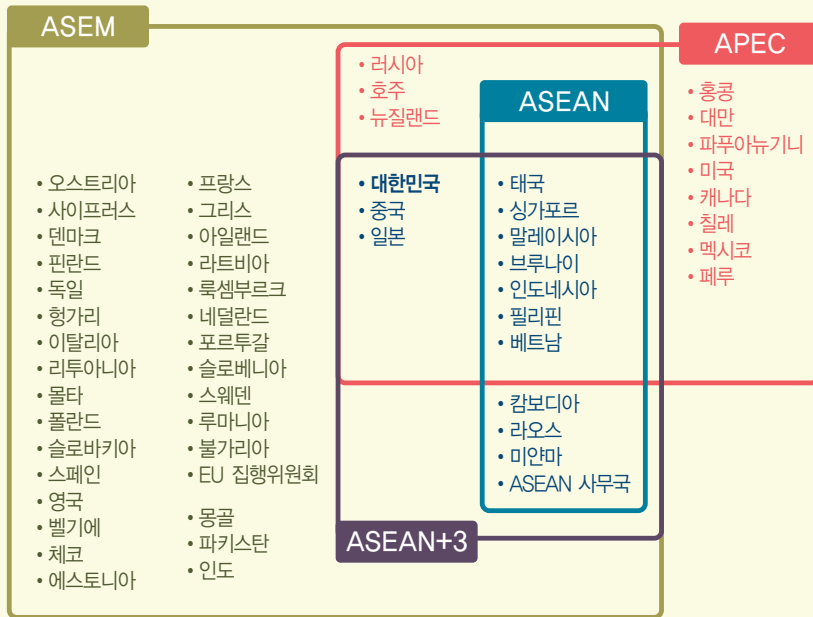
ASEM은 또한 아시아, 유럽 등 지역을 바탕으로 하되, 회원국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SEM은 아시아-유럽 양 지역 국가들이 동등한

4) FEALAC은 1999년에 출범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을 의미합니다.

동반자 관계(equal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지역간(inter-regional) 협력체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상급 지역협력체



ASEM 소개

ASEM내 블록의 성격

ASEM은 공식적으로는 아시아-유럽간 블록 대 블록이 아닌 개별적 회원국들의 협력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블록화 되어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ASEM의 조정국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ASEM 조정국은 관행적으로 유럽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와 순환 의장국이 담당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동북아 및 남아시아 6국 중 1개국, ASEAN 중 1개국이 번갈아 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EU가 유럽측 블록에 해당되며 아시아는 동북아 및 남아시아 블록과 ASEAN 블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⁵⁾지역간 협력체로는 아시아-유럽간 협력인 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지역 협력을 위한 FEALAC 등이 있습니다.

● 포괄적 협력

ASEM은 경제에 더 치중하는 APEC과 달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SEM내에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ASEM의 다양한 활동들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일관성 없이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ASEM의 협력은 냉전 시대 이후 세계화의 심화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향적 구조

APEC과 ASEM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APEC은 장관급 회의에서 시작되어 정상회의로 확대된 상향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반면 ASEM은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어 각종 장관급 회의로 확대되고 있는 하향적 발전 과정(top down approach)을 보여주고 있습니다.⁶⁾ 이러한 ASEM의 하향적 발전 구조는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협력체가 단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공식 협력체제

ASEM은 비공식적 협력체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UN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상설화된 사무국도 없습니다. 정상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의제 없이 예시의제(indicative list of topics)를 참고로 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정상들간의 합의는 전원합의(consensus) 형식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투표와 같은 제도적 의사결정방식보다는 무언의 압력(peer pressure), 막후협상 등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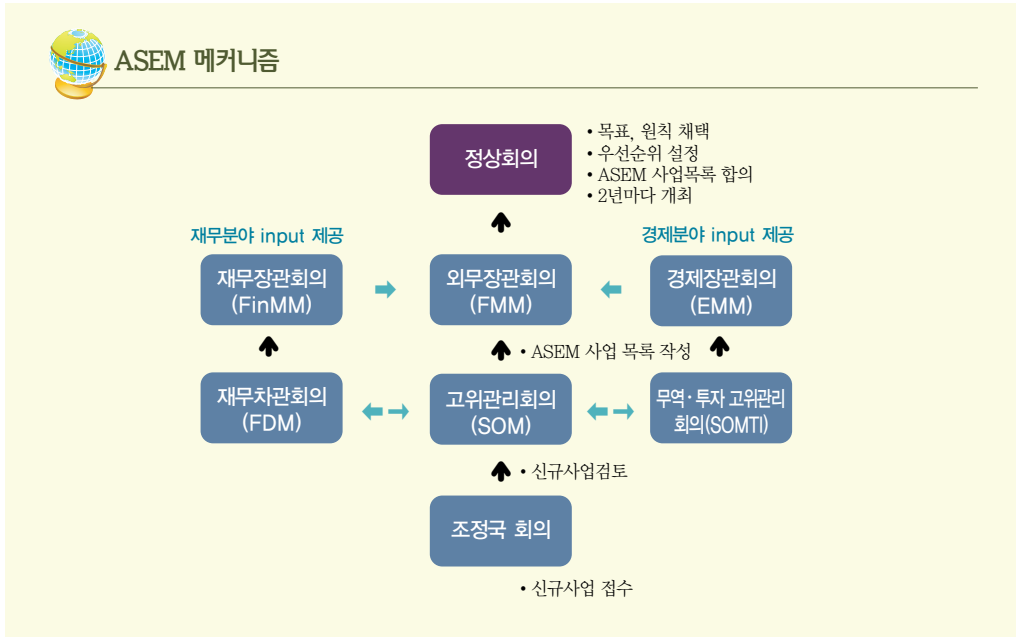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는 '작고 효율적'인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다수의 ASEM 회원국들은 아직도 ASEM이 비공식적 협력의 성격을 유지할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국 설치보다는 가상 사무국(Virtual Secretariat) 설치 등을 통해 비공식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회원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6차 헬싱키 ASEM에서 정상들은 '가상 사무국(ASEM Virtual Secretariat: AVS)'의 설치와 그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SEM 장래에 관한 선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가상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실용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음으로써 사무국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6) ASEM과 FEALAC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적 차이 이외에도 ASEM은 정상회의를 FEALAC은 외무장관회의를 정점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 ASEM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SEM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치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ASEM 전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경제협력을 이끌어 가는 중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문명장관회의, 과학기술 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위관리회의, 조정국회의 등이 개최되어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ASEM의 운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EM의 의사 결정 방식

- ASEM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ASEM의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 Consensus는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ASEM 프로세스 내 모든 단계에서 공히 통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⁷⁾

가. 정상회의

ASEM의 정식 명칭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회의는 ASEM의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배석자 없이 참석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ASEM의 목적과 원칙 등을 결정하고 협력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며, 주요 협력사업들을 승인하게 됩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는 의장성명서(Chairman's Statement)로 발표되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선언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하는
각국 정상들(2006.9)



제6차 정상회의 계기 2001년 세계무역센터 9.11테러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1분 묵념을 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2006.9)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경우 의장성명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차기 회의인 제8차 정상회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주제 하에 2010년 10월 4~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제8차 정상회의 로고

7) 다자간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의견차이가 심한 부분은 접어둔 채 모든 참석국이 수락 가능한 부분을 통과시키는 전원합의의 방식입니다.

- 1996.3 제1차 방콕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1998.4 제2차 런던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아시아 금융위기에 관한 별도 성명서
- 2000.10 제3차 서울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 2002.9 제4차 코펜하겐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치선언
- 2004.10 제5차 하노이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ASEM 경제 동반자 선언
 -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
- 2006.9 제6차 헬싱키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ASEM의 미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 기후 변화에 관한 ASEM 선언
- 2008.10 제7차 베이징 정상회의
 - 의장성명서
 -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베이징 선언
 - 국제 금융 문제에 관한 ASEM 선언

나. 외무장관회의(Foreign Ministers' Meeting:FMM)



제8차 함부르크 외무장관회의(2007.5)



제9차 함부르크 외무장관회의(2007.5)

ASEM 회원국 외무장관회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2년마다 개최되어,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후속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ASEM 현안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괄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회의는 2000년 제3차 서울 정상 회의 이후 매년 개최 되어 왔으나, 2004년 킬데어 외무장관회의에서 앞으로는 정상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개최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개최된 외무장관회의는 2009 년 5월 제9차 하노이 외무장관회의이며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별도 성명이 채택 되었습니다. 차기 외무장관회의는 2011년 헝가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역대 외무장관회의 개최 실적

- 1997. 2 제1차 싱가포르 외무장관회의
- 1999. 3 제2차 베를린 외무장관회의
- 2001. 5 제3차 북경 외무장관회의
- 2002. 6 제4차 마드리드 외무장관회의
- 2003. 7 제5차 발리 외무장관회의
- 2004. 4 제6차 킬데어(아일랜드) 외무장관회의
- 2005. 5 제7차 교토 외무장관회의
- 2007. 5 제8차 함부르크 외무장관회의
- 2009. 5 제9차 하노이 외무장관회의

다. 기타 각료급 회의

● 경제장관회의(Economic Ministers' Meeting: EMM)

경제장관회의는 1997년 이래 매년 개최되다가 미얀마 수석대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2004년 이래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로테르담 경제장관회의도 개최국인 네덜란드의 미얀마 수석대표(경제장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문제로 ASEAN 경제장관들이 참석을 거부, 고위급회의로 변경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제5차 대련 ASEM 경제장관회의 개막식 모습(2003.7)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WTO 현안, 무역·투자의 원활화 및 확대, 산업협력, 민간기업과의 교류 증진 등 양 지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역대 경제장관회의 개최 실적

- 1997. 9 제1차 마쿠하리(일본) 경제장관회의
- 1999.10 제2차 베를린 경제장관회의
- 2001. 9 제3차 하노이 경제장관회의
- 2002. 9 제4차 코펜하겐 경제장관회의
- 2003. 7 제5차 대련 경제장관회의
- 2005. 9 제6차 로테르담 경제장관회의(고위급회의)

● 재무장관회의(Finance Ministers' Meeting: FinM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간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안정 등 회원국간 재무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5년 제6차 텐진 재무장관회의시 격년 개최로 바뀌었습니다.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2008.6)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영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2008.6)

제7차 회의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2007년, 2008년 재무차관회의를 우리나라 무주와 제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는 2008년 6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역내 경제 통합, 인프라 파이낸스, 서민금융,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접근적 대응 등의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최근 개최된 제9차 재무장관회의는 2010년 4월 17~18일 스페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역대 재무장관회의 개최 실적

- 1997. 9 제1차 방콕 재무장관회의
- 1999. 1 제2차 프랑크푸르트 재무장관회의
- 2001. 1 제3차 고베 재무장관회의
- 2002. 7 제4차 코펜하겐 재무장관회의
- 2003. 7 제5차 발리 재무장관회의
- 2005. 6 제6차 텐진 재무장관회의
- 2006. 4 제7차 비엔나 재무장관회의
- 2008. 6 제8차 제주 재무장관회의
- 2010. 4 제9차 마드리드 재무장관회의

● 기타 장관급 회의

그 외에도 ASEM 회원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 STMM), ASEM 회원국간 환경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환경장관회의(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EnvMM), ASEM 회원국간 문화 다양성 제고와 문명간 대화 촉진 및 향후 협력을 위한 문화문명장관회의(ASEM Ministerial Conference on Cultures and Civilizations : CMM, COCC) 및 이민 문제 관리 협력을 위한 각료회의(ASEM Ministerial Conference on Coop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Migratory Flows between Europe and Asia) 등이 ASEM의 테두리 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노동과 고용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장관회의(ASEM Labor and Employment Ministers' Conference : LEMC),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ICT 장관회의(ASEM ICT Ministerial Meeting),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장관회의(ASEM SME Ministerial Meeting : SMEMM),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장관회의(ASEM Ministerial Conference on Energy Security), 교통분야 장관회의(ASEM Ministerial Meeting on Cooperation in Transport), 그리고 교육분야 장관회의(ASEM Education Ministers' Meeting)가 신설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 기타 장관급 회의 개최 실적

■ 환경장관회의

- 2002. 1 제1차 베이징 환경장관회의
- 2003. 10 제2차 레체(이탈리아) 환경장관회의
- 2007. 4 제3차 코펜하겐 환경장관회의

■ 과학기술장관회의

- 1999. 10 제1차 베이징 과학기술장관회의

■ 문화문명장관회의

- 2003. 12 제1차 베이징 문화장관회의
- 2005. 6 제2차 파리 문화장관회의
- 2008. 4 제3차 쿠알라룸푸르 문화장관회의
- 2010. 9 제4차 포즈나뉴 문화장관회의

■ 이민각료회의

- 2002. 4 제1차 이민각료회의

■ 노동장관회의

- 2006. 9 제1차 포츠담 노동장관회의
- 2008. 10 제2차 발리 노동장관회의
- 2010. 12 제3차 레이렌 노동장관회의(예정)

■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

- 2006. 11 제1차 베트남 ICT장관회의

■ 교육장관회의

- 2008. 5 제1차 베를린 교육 및 자격면허장관회의
- 2009. 5 제2차 하노이 교육장관회의

■ 중소기업장관회의

- 2007. 10 제1차 베이징 중소기업장관회의

■ 에너지안보장관회의

- 2009. 6 제1차 브뤼셀 에너지안보장관회의

■ 교통장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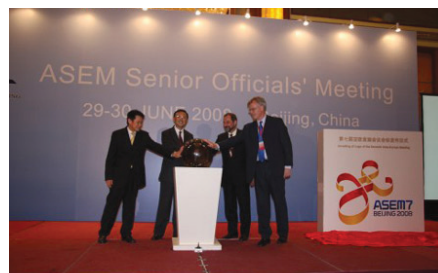
- 2009. 10 제1차 빌리우스 교통장관회의

라.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SOM)

외무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 회원국 외교부의 고위관리(국장급 이상)로 구성되는 고위관리회의가 개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무장관회의가 매년 개최에서 격년 개최로 전환된 이래, 정상회의 후속조치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SOM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4년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의 결과 SOM을 최소한 1년에 2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ASEM내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따라 그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SOM과는 별도로 또 다른 고위관리회의로는 ASEM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장관회의 산하에 설치된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 SOMTI)와 재무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로 재무차관회의(Finance Deputies' Meeting:FDM)가 있습니다.



제7차 베이징 ASEM 정상회의의 로고채택과 공식 사이트 개설을 기념하는 고위관리회의의 수석대표들(2008.6)

마. 조정국회의(Coordinators'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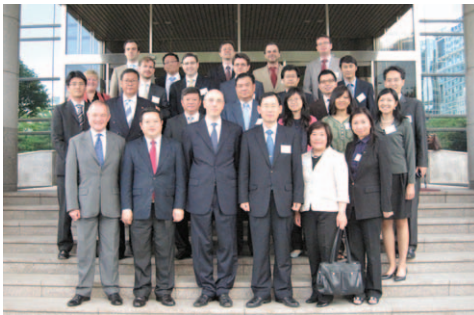
조정국(Coordinator)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6개국과 ASEAN에서 각각 1개국씩, 그리고 유럽지역에서 2개국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한국이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조정국 역할을 수임하고 있으며, ASEAN에서는 캄보디아가,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국회의는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준비를 위해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락관(correspondents)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위관리회의의 일정 협의 및 통보 등 행정사항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회원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래 회원국간 사전 의사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국 회의를 수시로(ad hoc) 개최하여 협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와 보고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등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8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010년 9월 6~7일 서울에서 조정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 ASEM 조정국회의(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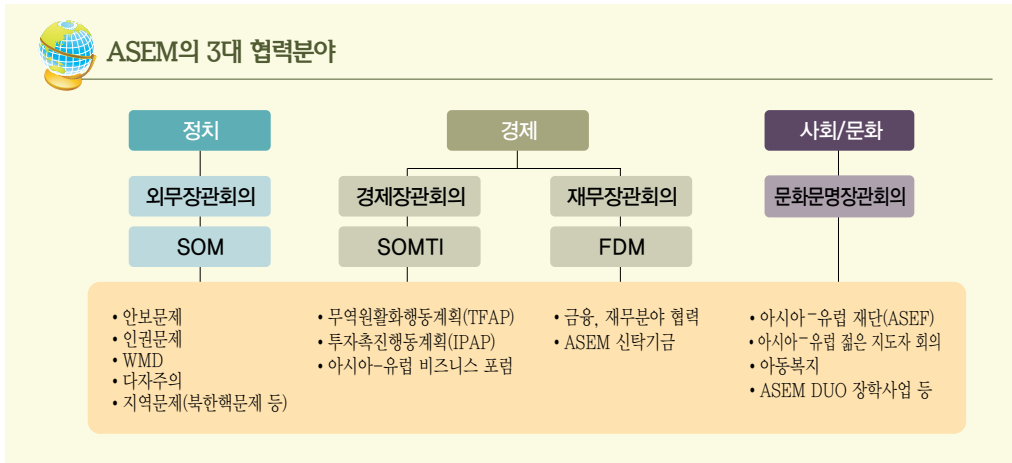
8) 보통 EU 의장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조정국 역할을 수임합니다.

【역대 ASEM 조정국】

	아시아측		유럽측	
	동북아	ASEAN		
1997	일 본	싱가포르 (7월 AMM) 태 국	네덜란드(상반기)	EU 집행위원회
			룩셈부르크(하반기)	
1998	일 본 (제2차 ASEM) 한 국	태 국	영국(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하반기)	
1999	한 국	태 국	독일(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핀란드(하반기)	
2000	한 국 (제3차 ASEM) 중 국	태 국 (제3차 ASEM) 베트남	포르투갈(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프랑스(하반기)	
2001	중 국	베트남	스웨덴(상반기)	EU 집행위원회
			벨기에(하반기)	
2002	중 국 (제4차 ASEM) 일 본	베트남 (제4차 ASEM) 베트남	스페인(상반기)	EU 집행위원회
			덴마크(하반기)	
2003	일 본	베트남	그리스(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태리(하반기)	
2004	일 본 (제5차 ASEM) 한 국	베트남 (제5차 ASEM) 인도네시아	아일랜드(상반기)	EU 집행위원회
			네덜란드(하반기)	
2005	한 국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영국(상반기)	
2006	한 국 (제6차 ASEM) 중 국	인도네시아 (제6차 ASEM)	오스트리아(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핀란드(하반기)	
2007	중 국	브루나이	독일(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포르투갈(하반기)	
2008	중 국 (제7차 ASEM) 인 도	브루나이 (제7차 ASEM) 캄보디아	슬로베니아(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프랑스(하반기)	
2009	인 도 한 국	캄보디아	체코(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스웨덴(하반기)	
2010	한 국 (제8차 ASEM) 일 본	캄보디아 (제8차 ASEM) 라오스	스페인(상반기)	EU 집행위원회
			벨기에(하반기)	
2011	일 본 몽 골	라오스	헝가리(상반기)	EU 집행위원회
			폴란드(하반기)	

6. ASEM의 3대 협력분야는 무엇인가요?

ASEM의 협력분야는 크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세 개의 영역(pillar)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분야는 ASEM의 운영 지침인 AECF 2000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 정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한반도 문제, 미얀마 인권 상황, 중동문제 등 주요 지역정세와 국제테러 등 범세계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신뢰증진 및 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의 역할 강화, 군축 및 WMD 비확산, 이민 문제, 초국가범죄, 자연재해 등으로 이슈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차 중국 정상회의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개혁 문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한 지역 정세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제8차 정상 회의에서는 △테러 및 조직범죄 △재난방지 △해적 등 범세계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 경제 분야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재무 분야 협력을 위해 아시아-유럽 양 지역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FAP), 투자촉진 행동계획(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sia-Europe Business Forum:AEBF) 등이 경제 분야 협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재발방지 및 국제 금융체제의 장기안정, 지역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ASEM 신탁기금(ATF)이 설치되는 등 금융협력이 촉진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과 에너지, 세계무역기구(WTO)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7차 정상회의에 이어 제8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경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 사회/문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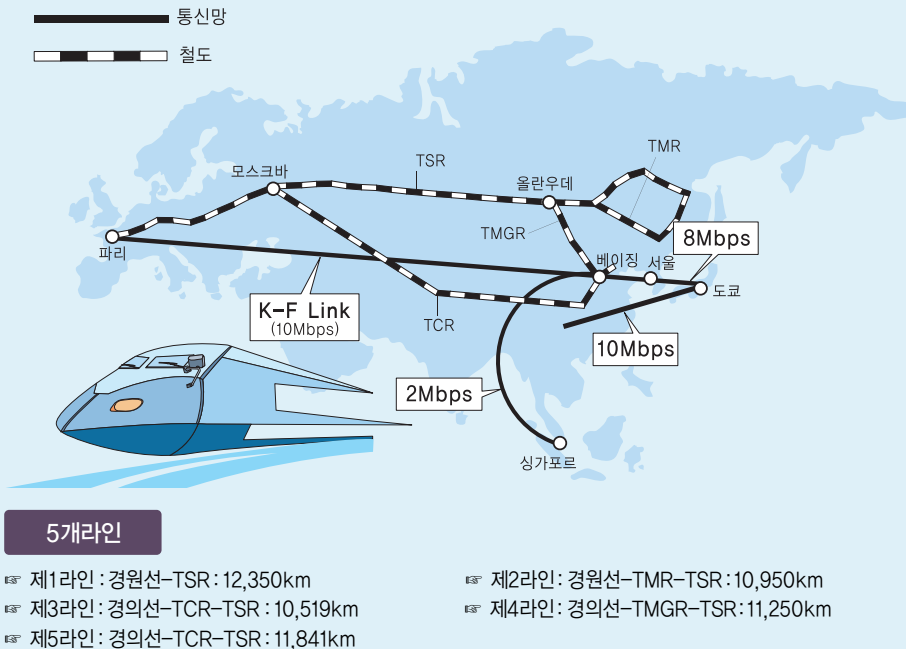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유럽 양 지역 국민들간 인적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새로운 문화적 유대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ASEM내 유일한 상설 기구인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EF)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국들은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AEYLS), ASEM DUO 장학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문화·문명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제7차 정상회의에서도 ‘문명간 대화 심화’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제8차 정상회의 계기에는 연계 행사로 아시아 회원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전시회(A Passage to Asia)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2002년 제4차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최근 비슷한 운임에 운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상운송의 대안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당시 우리가 제안한 5개의 대륙횡단 노선을 두고 국내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물류 비용, 운송기간 등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가지 면을 종합할 때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구간이 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TKR과 TSR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간 남·북·러 정상간 회의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무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4년 이래 남·북·러 3국 정부의 철도 전문가회의와 철도 운영자회의가 각각 한차례씩 개최되어 구체 연결노선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특히 2006년 3월 18일 개최된 남·북·러 철도 당국자회의에서 TKR과 TSR의 북·러간 연결 구간인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북·러간에 합의하고, 남·북·러 3자간 TKR과 TSR 사업관련 실질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은 TKR-TSR 연결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유럽 경제권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ASEM 차원의 협력은 아니지만, ASEM을 통해 제기된 사업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향후 실현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협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ASEM 자세히 알아보기

- 1 정치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 2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 3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 4 ASEM은 어떻게 확대되고 있나요?
- 5 아시아-유럽 재단은 어떤 기구인가요?



II. ASEM 자세히 알아보기

1. 정치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정치 분야는 ASEM을 통해 회원국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분야로서, 정상 회의와 외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간에 주요 국제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테러, 대량파괴무기(WMD), 인권, 세계화, 이민문제 등 범세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간 회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1996년 방콕에서 최초 개최된 아시아-유럽 민간포럼(Asia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로고

Europe People's Forum: AEPF)은 인권, 지속발전, 환경 등 국제주요

이슈 관련 민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매 ASEM 정상회의 직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열립니다. 차기 포럼은 제8차 ASEM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2~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치 분야는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ASEM 회원국간 협력의 범위나 깊이가 비교적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ASEM 차원의 공동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역대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개최 실적

- 1996. 2 제1차 방콕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1998. 3~4 제2차 런던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00. 10 제3차 서울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02. 9 제4차 코펜하겐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04. 9 제5차 하노이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06. 9 제6차 헬싱키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08. 10 제7차 베이징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 2010. 10 제8차 브뤼셀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가. 국제적·지역적 현안에 대한 대처

ASEM 정치대화는 다양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현안, 특히 북한 핵문제, 미얀마 인권문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동티모르 정세 및 아체 peace process 등과 같은 민감한 국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에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에서는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동 입장을 마련함으로써 핵심 현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항이 과거 정상회의 또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 또는 별도 선언문에 여러 차례 포함되어 ASEM 차원의 공동 입장이 마련된 것은 이러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안보 및 테러 대응 협력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리즘 문제는 ASEM의 주요 관심사안이 되어 왔습니다. 2002년 9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4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과 이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는데, ASEM 회원국들의 대테러 협약 가입 권고, 세관·돈세탁·해양 안보 관련 협력 강화, 유엔 차원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테러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돈세탁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마련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테러 외에도 중요한 안보 이슈인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03년 제5차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는 「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를 위한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는데, 동 선언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생물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BWC, CWC),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 WMD 관련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 7차 및 8차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평화적 해결과정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기여 의지를 재천명하였습니다. 제9차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별도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다. 다자주의 외교 보완

ASEM은 다자주의 외교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 WMD 비확산, 유엔 개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과 국제적 이슈에 대해 국가간 상이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5차 베이징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회의(2008.6)



제5차 ASEP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우방귀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장(2008.6)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계기에 ASEM 회원국 대사들이 모여 쟁점 의제에 대한 각국 입장을 교환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ASEM이라는 지역협력체가 다자주의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교류를 촉진하는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 회의(Asia-Europe Parliamentary Partnership Meeting: ASEP)’도 2년마다 개최되어 각국 국회의원들이 참석,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ASEP) 회의 참가

- 1996. 3 제1차 스트라스부르(프랑스) ASEP 회의
- 2002. 8 제2차 마닐라 ASEP 회의(정철기, 강성구, 이인기 의원 참석)
- 2004. 3 제3차 후에(베트남) ASEP 회의(김동욱, 최명현, 김성호 의원 참석)
- 2006. 5 제4차 헬싱키 ASEP 회의(조성태, 김형오 의원 참석)
- 2008. 6 제5차 베이징 ASEP회의
- 2010. 9 제6차 브뤼셀 ASEP 회의

▣ 정치 분야에서의 ASEM 협력사업들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1 ASEM 외무장관회의		1차 : 1997. 2 싱가포르 2차 : 1999. 3 독일 베를린 3차 : 2001. 5 중국 베이징 4차 : 2002. 6 스페인 마드리드 5차 : 2003. 7 인도네시아 발리 6차 : 2004. 4 아일랜드 킬데어 7차 : 2005. 5 일본 교토 8차 : 2007. 5 독일 함부르크 9차 : 2009. 5 베트남 하노이	
2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EVG)	한국	- ASEM III에서 AEVG 보고서 제출	ASEM I에서 채택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3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AECF)		- ASEM의 중장기적 비전, 원칙, 우선순위 및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지침서	ASEM II에서 채택, ASEM III에서 수정
4	대도시 시장들 간의 아시아-유럽 포럼 (AEFGC)	태국		ASEM II에서 채택
5	평화와 사회구축에 관한 세미나	필리핀		ASEM II에서 채택
6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한국, 스웨덴	1차 : 2001. 5 한국 서울 2차 : 2003. 3 스웨덴 말뫼 3차 : 2004.10 베트남 하노이 4차 : 2006. 6 덴마크 코펜하겐 5차 : 2007. 5 일본 도쿄	ASEM III에서 채택
7	부패방지 사업	영국, 중국		ASEM III에서 채택
8	국제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기관간 회의	이탈리아, 중국	- 2001. 9 중국 베이징	ASEM III에서 채택
9	대테러 회의	덴마크, 독일, 일본, 스페인 중국	1차 : 2003. 9 중국 베이징 2차 : 2004.10 독일 베를린 3차 : 2005.11 인도네시아 세마랑 4차 : 2006. 6 덴마크 코펜하겐 5차 : 2007. 5 일본 도쿄 6차 : 2008. 4 스페인 마드리드 7차 : 2009. 6 필리핀 마닐라 8차 : 2010. 6 벨기에 브뤼셀	ASEM IV에서 채택
10	아시아-유럽 젊은 정치 지도자 포럼	덴마크, 중국	- 2005. 11 중국 톈진	ASEM V에서 채택
11	ASEM 지역내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	독일, 한국, 싱가포르, 중국, 포르투갈, 폴란드, 필리핀	- 2005. 6 한국 서울	ASEM V에서 채택
12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 회의 (ASEP)		1차 : 1996. 4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2차 : 2002. 8 필리핀 마닐라 3차 : 2004. 3 베트남 휴에 4차 : 2006. 5 핀란드 헬싱키 5차 : 2008. 6 중국 베이징 6차 : 2010. 9 벨기에 브뤼셀	
13	아시아-유럽 민간 포럼(ASEP)		1차 : 1996. 2 태국 방콕 2차 : 1998. 3~4 필리핀 마닐라 3차 : 2000.10 한국 서울 4차 : 2002. 9 덴마크 코펜하겐 5차 : 2004. 9 베트남 하노이 6차 : 2006. 9 핀란드 헬싱키 7차 : 2008.10 중국 베이징 8차 : 2010.10 벨기에 브뤼셀	
14	ASEM 해적 세미나	벨기에	- 2010. 5 벨기에 브뤼셀	
15	ASEM Negotiation Session on piracy at Sea	벨기에	- 2010. 6 벨기에 브뤼셀	

2.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경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던 분야로서 정상회의 외에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⁹⁾ 특히 아시아와 유럽 상호간 무역 증진 및 투자 확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조성된 ASEM 신탁기금은 ASEM의 존재 의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민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어 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04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ASEM 경제동반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영향, 무역 자유화, 지속가능 발전, 국제 금융체제 개편 등과 같은 국제적 관심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SEM 경제동반자 선언

-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SEM 경제동반자 선언(ASEM Hanoi Declaration on Asia-Europe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유럽간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정상들의 의지를 천명하고 아울러 향후 경제협력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ASEM 경제분야 협력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ASEM 경제동반자 선언은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등의 지속추진, 에너지·관광·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재정·금융정책·채권시장발전·채무관리·구조개혁·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등을 위한 협력 강화, DDA 타결 노력을 통한 자유무역체제 강화, FTA 등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여, 민간의 ASEM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경제장관회의는 매년, 재무장관회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환경장관회의와 과학기술장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다만 경제장관회의는 최근 수년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분야 협력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자유화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위해 채택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과 양 지역의 투자정책을 검토하고 쌍방향 투자를 돕기 위해 채택된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의 이행 등이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나. 경제 다자주의 촉진

ASEM은 무역 자유화 관련 이슈, 특히 WTO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다자차원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EM 출범 이후 개최된 매 정상회의마다 무역 자유화에 있어 WTO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WTO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분야 협력 강화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동향을 진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 개편, 거시경제 정책 조화, 세관 분야 협력, 돈세탁 방지 등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금융위기 직후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ASEM 신탁기금이 설치된 것 외에도 유럽의 금융전문가네트워크(European Financial Expertise Network:EFEX)가 구성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을 긴급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2005년 중국 텐진에서 개최된 제6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2004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SEM 경제동반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재무장관회의 차원의 추진사항에 대한 ‘텐진 이니셔티브(Tianjin Initiative)’를 채택하였습니다.



제8차 재무장관회의

2008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를 채택하였습니다.

라. 민간 비즈니스 교류 증진

ASEM이 출범한 1996년부터 개최되어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은 회원국 민간 기업가들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참석하여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차 AEBF 헬싱키 총회(2006.10)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제4차 서울 AEBF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3년 10월 서울에서 ‘안정과 번영을 위한 민간주도의 파트너십 구축(A Private Sector Initiative: Establishing Partnership for Stability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하에 제8차 AEBF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 환경분야 협력 강화



‘포스트 2012 세계기후정책’ 제하 개최된 코펜하겐 환경 포럼(2007.4)

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ASEM에서도 환경 장관 회의가 2002, 2003, 2007년 세 차례 개최되는 등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시아-유럽간 환경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환경 관련 선진기술 전수, 기후

변화 공동대응(교토 의정서 발효),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재생에너지 개발, 수자원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 산림보호 및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정부 관계자 회의 개최와 함께 NGO 등 민간부문과의 환경문제 대처 협조 강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이 아시아-유럽 재단(ASEF) 주관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1	ASEM 경제장관회의		1차 : 1997. 9 일본 마쿠하리 2차 : 1999. 10 독일 베를린 3차 : 2001. 9 베트남 하노이 4차 : 2002. 9 덴마크 코펜하겐 5차 : 2003. 7 중국 대련 6차 : 2005. 9 네덜란드 로테르담	※제6차 회의는 고위급 회의로 개최
2	ASEM 재무장관회의	영국, 태국	1차 : 1997. 9 태국 방콕 2차 : 1999. 1 독일 프랑크푸르트 3차 : 2001. 1 일본 고베 4차 : 2002. 7 덴마크 코펜하겐 5차 : 2003. 7 인도네시아 발리 6차 : 2005. 6 중국 톈진 7차 : 2006. 4 오스트리아 비엔나 8차 : 2008. 6 한국 제주 9차 : 2010. 4 스페인 마드리드	ASEM I 에서 채택
3	ASEM 환경장관회의	독일, 중국	1차 : 2002. 1 중국 베이징 2차 : 2003. 10 이탈리아 레체 3차 : 2007. 4 덴마크 코펜하겐	ASEM III에서 채택
4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	중국	- 1999. 10 중국 베이징	ASEM II에서 채택
5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AFP & IPAP 목록 참조]	ASEM II에서 채택
6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ASEM II에서 채택
7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1차 : 1996. 10 프랑스 파리 2차 : 1997. 11 태국 방콕 3차 : 1998. 4 영국 런던 4차 : 1999. 10 한국 서울 5차 : 2000. 9 오스트리아 비엔나 6차 : 2001. 10 싱가포르 7차 : 2002. 9 덴마크 코펜하겐 8차 : 2003. 10 한국 서울 9차 : 2004. 10 베트남 하노이 10차 : 2006. 10 핀란드 헬싱키 11차 : 2008. 10 중국 베이징 12차 : 2010. 10 벨기에 브뤼셀	ASEM I 에서 채택
8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AEETC)	태국	- 전문가회의의 10회 개최 - 2002년에 환경장관회의로 흡수	ASEM I 에서 채택
9	아시아-유럽간 경제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	일본	- EMM I 에 보고서 제출	ASEM I 에서 채택
10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문가회의	중국	- 1997. 4 중국 베이징	ASEM I 에서 채택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11	아시아-유럽 중소기업회의	이탈리아	- 1998. 2 이탈리아 나폴리	ASEM II에서 채택
12	중소기업을 위한 아셈만남 전자자원 네트워크	싱가포르	- 1998. 2 싱가포르에서 준비회의 개최 - ASEM II에서 ASEM Connect 시작	ASEM II에서 채택
13	환경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영국		ASEM II에서 채택
14	ASEM 신탁기금(ATF)		- ATF I 1998. 6~2001 - ATF II 2002~2005	ASEM II에서 채택 ASEM III에서 ATF II 승인
15	유럽금융전문가 (EFEX) 네트워크	EU 집행위원회	- EFEX는 1998. 9에 출범하여 1999. 1에 활동 시작	ASEM II에서 채택
16	아시아-유럽 정보기술 및 통신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사업 (AEITTP)	태국	- 2001. 5 태국 방콕	ASEM II에서 채택 ASEM III에서 "Asia-Europ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minar"로 바뀜
17	아시아-유럽 교육관리 프로그램	필리핀	- 필리핀 아시아 경영 대학원에서 '아시아-유럽 경영' 프로그램 개설	ASEM II에서 채택
18	중소기업 센터 네트워크			ASEM III에서 채택
19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TEIN)	한국, 싱가포르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1차 : 2001. 5 한국 서울 2차 : 2006. 6 베트남 하롱베이	ASEM III에서 채택
20	ASEM 디지털 기회 세미나	한국, 싱가포르, 일본, 포르투갈	- 2001. 3 일본 도쿄	ASEM III에서 채택
21	전자상거래와 Logistics 관련 회의	벨기에, 싱가포르, 핀란드	- 2001 벨기에 브뤼셀	ASEM III에서 채택
22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세미나	벨기에, 태국		ASEM III에서 채택
23	WTO 무역원활화 위한 세미나	말레이시아, EU 집행위원회	- 2001.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SEM III에서 채택
24	돈세탁 방지 사업	영국, 태국	1차 : 2003. 9 태국 방콕 2차 : 2003.10 독일 베를린	ASEM III에서 채택
25	산림보존과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협력	중국, 핀란드	1차 : 2001. 7 중국 2차 : 2002. 4 태국	ASEM III에서 채택
26	ASEM내 비즈니스 기회 증진	베트남	- EMM IV에 보고서 제출	ASEM III에서 채택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27 고베 연구계획	일본	1차 : 2001. 1 일본 고베 2차 : 2002. 1 한국 서울	ASEM III에서 채택
28 ASEM과 변화하는 세계경제 관련 세미나	스페인, 일본	- 2002. 3 일본 도쿄	
29 ASEM 국가 채무관리 포럼	태국	1차 : 2001. 11 태국 치앙마이 2차 : 2002. 9 덴마크 코펜하겐	ASEM III에서 채택
30 ASEM 수자원 관리에 관한 세미나	중국, 포르투갈, 프랑스	- 2002. 6 중국 창사	FMM IV에서 채택
31 ASEM내 은행부문 교육 및 기술원조 협력사업			
32 ASEM내 재정정책 계획 및 응용에 대한 경험교류 증진 사업			FMM IV에서 채택
33 정보와 통신기술 이행 기준 포럼			FMM IV에서 채택
34 다자적 및 지역 경제관계에 관한 아시아-유럽 대화	독일, 싱가포르, 일본	- 2003. 3 일본 도쿄	FMM IV에서 채택
35 농업협력을 위한 ASEM 고위급 회의	중국	- 2003.11 중국 베이징	ASEM IV에서 채택
36 세계화 맥락에서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대화	독일, 베트남	- FMM IV에 concept paper 제출	ASEM IV에서 채택
37 무역, 투자·금융 구체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한 Task Force	토요 기요텐 (일본)과 알프레도 파스터(스페인) 공동의장	1차 : 2003. 5 스페인 마드리드 2차 : 2003. 9 일본 도쿄 3차 : 2003. 11 독일 프랑크푸르트 4차 : 2004. 3 태국 방콕 - ASEM V에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사업 종료	ASEM IV에서 채택
38 DDA 관련 WTO 전문가 협력 회의	EU 집행위원회	- 2003. 1. 17~18 베트남 하노이	ASEM IV에서 채택
39 ASEM 정부-민간 협력사업	일본, 프랑스	- 2004. 5 일본 도쿄	IPAP에서 채택
40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한국, 핀란드	- 2004. 6 한국 서울	FMM VI에서 채택
41 ASEM 도시임업 워크숍	중국	- 2004. 11 중국 소주 & 베이징	FMM VI에서 채택
42 청정기술분야의 아시아-유럽 협력에 관한 ASEM 워크숍	베트남, EU 집행위원회	- 2004. 11 베트남 하노이	ASEM V에서 채택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43	ASEM 무역·투자 박람회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태국	- 2005. 9 중국 하문	ASEM V에서 채택
44	에너지에 관한 ASEM 세미나	EU 집행위원회, 일본	- 2006. 1 일본 도쿄	EMM VI에서 채택
45	세계환경을 위한 사회활동에 관한 ASEM 워크숍	스웨덴, 일본	- 2006.2~3 일본 도쿄	FMM VII에서 채택
46	ASEM 해양 협력사업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필리핀	1차 : 2006. 3 필리핀 마닐라 2차 : 2009. 4 벨기에 브뤼셀	ASEM V에서 채택
47	사회/문화 노동관련 세미나	네덜란드	- 1998.10 네덜란드 헤이그	
48	ASEM 국제회계기준 세미나	EU 집행위원회, 중국	- 2006. 3 중국 상하이	FinMM VI에서 채택
49	관광 투자 및 협력에 대한 ASEM 포럼 및 전시회	중국	- 2006.10 중국 옌타이	EMM 내 고위관리회의에서 채택
50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워크숍	중국, 핀란드	- 2006. 6 핀란드 헬싱키	비엔나 SOM에서 채택
51	회계 이슈 워크숍	중국, 영국	- 2005 중국 상하이	ASEM FinMM에서 채택
52	ASEM 중소기업 장관회의	중국	- 2007.10 중국 베이징	ASEM VI에서 채택
53	ASEM 에너지 안보정책 포럼	베트남	- 2008. 4 베트남 하노이	ASEM VI에서 채택
54	ASEM 농촌발전포럼	중국	- 2008. 4 중국 베이징	ASEM VI에서 채택
55	ASEM 수산포럼	중국	1차 : 2008. 9 중국 옌타이 2차 : 2009. 4 벨기에 브뤼셀	ASEM SOMTI 에서 채택
56	ASEM 서비스교역에 관한 Business summit	중국	- 2008.10 중국 베이징	ASEM SOMTI 에서 채택
57	ASEM 투자촉진기구 라운드테이블	중국	- 2008.10 중국 난징	ASEM SOMTI 에서 채택
58	ASEM 기후변화 적응 세미나	일본, 한국	1차 : 2008.10 일본 도쿄 2차 : 2010. 9 베트남 하롱	2008 슬로베니아 SOM에서 채택
59	ASEM 무역 투자보고서(격년)	베트남		ASEM VI에서 채택
60	ASEM 개발 컨퍼런스	필리핀	1차 : 2009. 4 필리핀 마닐라 2차 : 2010. 5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61	ASEM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벨기에	- 2009. 6 벨기에 브뤼셀	
62	ASEM Conference: Beyond the Global Crisis-A New Asian Growth Model	말레이시아	- 2009.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3	ASEM 교통장관회의	리투아니아	- 2009. 10 리투아니아 빌리우스	
64	ASEM Workshop on Sharing Experiences on Preparedness to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Emerging Diseases	베트남	- 2009.11 베트남 하노이	
65	ASEM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Competency Standards	인도네시아	- 2009.11 인도네시아 발리	
66	ASEM 경제협력 및 개발 포럼	베트남	- 2010. 4 베트남 나트랑	
67	ASEM Conference on Forests, Forest Government and Forest Products Trade : Scenarios and Challenges for Europe and Asia	캄보디아	- 2010. 5 캄보디아 프놈펜	
68	ASEM Customs-Trade Day	베트남	- 2010. 5 베트남 하노이	
69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한국	- 2010. 5 한국 서울	
70	ASEM Seminar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체코	- 2010. 5 체코 프라하	
71	ASEM Negoti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벨기에	- 2010. 6 벨기에 브뤼셀	
72	ASEM 식량안보 포럼	베트남	- 2010. 7 베트남 호치민	
73	ASEM Workshop on Social Protection Floor and the Informal Economy	프랑스	- 2010. 9 프랑스 니스	

경제 분야 총 사업 수 : 73

▣ ASEM TFAP& IPAP 사업 목록

I. ASEM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TFAP)

사 업 명		활 동	사 업 명		활 동
1	전자상거래 세미나	1차 : 2001. 10 한국 2차 : 2002. 9 핀란드 3차 : 2003. 10 한국 4차 : 2005. 2 영국 5차 : 2006. 11 중국	5	세관작업반회의 ※ 기존 통관 절차 작업 반과 감시작업반을 통합 (2007. 11 결정)	1차 : 2008. 5 프랑스 2차 : 2009. 1 태국 3차 : 2009. 4 헝가리 4차 : 2010. 5 베트남
2	관세행정책임자 회의	1차 : 1996. 6 중국 2차 : 1997. 6 오스트리아 3차 : 1999. 6 벨기에 4차 : 2001. 7 스웨덴 5차 : 2003. 9 한국 6차 : 2005. 6 스코틀랜드 7차 : 2007. 11 일본 8차 : 2009. 10 그리스	6	지적 재산권 작업반 회의 (지리적 표시 세미나)	1차 : 1999. 6 프랑스 2차 : 2000. 3 태국 3차 : 2002. 5 베트남 4차 : 2004. 6 태국 5차 : 2006. 6 태국
3	통관절차작업반 회의	1차 : 1997. 3 벨기에 2차 : 1998. 3 벨기에 3차 : 1999. 2 필리핀 4차 : 2000. 4 벨기에 5차 : 2001. 4 태국 6차 : 2002. 3 벨기에 7차 : 2003. 12 인도네시아 8차 : 2005. 4 싱가포르 9차 : 2006. 9 폴란드 10차 : 2007. 3 말레이시아	7	표준 및 적합성 회의	1차 : 1998. 9 벨기에 2차 : 1999. 3 한국 3차 : 1999. 10 벨기에 4차 : 2000. 2 태국 5차 : 2000. 10 벨기에 6차 : 2001. 11 벨기에 7차 : 2002. 4 중국 8차 : 2002. 12 벨기에 9차 : 2003. 12 베트남 10차 : 2004. 4 벨기에 11차 : 2005. 2 일본 12차 : 2006. 5 오스트리아 13차 : 2007. 5 인도네시아
4	감시작업반 회의	1차 : 1997. 2 벨기에 2차 : 1998. 2 벨기에 3차 : 1999. 2 벨기에 4차 : 2000. 2 벨기에 5차 : 2001. 3 벨기에 6차 : 2002. 2 말레이시아 7차 : 2003. 3 말레이시아 8차 : 2005. 5 벨기에 9차 : 2006. 4 한국 10차 : 2007. 5 독일	8	공공조달회의	1차 : 1999. 9 독일 2차 : 2001. 3 일본
			9	검역 및 위생에 관한 회의	1차 : 1999. 2 태국 2차 : 1999. 9 중국 3차 : 2000. 9 네덜란드 4차 : 2002. 6 네덜란드 5차 : 2003. 4 스위스

II. ASEM 투자촉진 행동계획 (IPAP)

사 업 명		활 동
1	투자전문가그룹 (IEG)	1차 : 1998. 11 프랑스 2차 : 1999. 2 싱가포르 3차 : 1999. 6 벨기에 4차 : 2000. 5 한국 5차 : 2001. 7 벨기에 6차 : 2002. 7 인도네시아 7차 : 2003. 6 프랑스 ※ 종료

ASEM 이야기

ASEM 회의 식탁에 ‘칵테일’로 변신한 전주막걸리¹⁰⁾

2007년 6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ASEM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의 재무차관은 6월 16일 전주 한옥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생물소재연구소가 개발 중인 기능성 자색 막걸리로 칵테일을 만들어 한옥마을을 방문한 43개국 ASEM 재무차관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당초 시는 자색 막걸리를 식탁에 올릴 것을 검토하였으나, 막걸리 특유의 맛과 향이 각국 차관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막걸리를 재료로 총 천연색의 칵테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칵테일로 변신한 전주 막걸리

자색 막걸리를 맑게 걸러 다양한 칵테일 재료를 배합해 만든 ‘한국식 칵테일’은 군장대 이흥로 겸임교수가 개발하였으며, 재무차관들의 오찬장에서 건배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막걸리 칵테일이 한국 전통국민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의미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0) 국민일보(2007.6.14/8.18)

3.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 왔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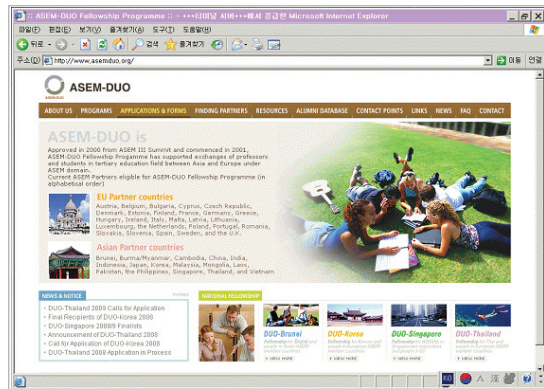
ASEM 회원국들은 아시아와 유럽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가 긴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네 차례의 문화문명장관회의(ASEM Ministerial Conference on Cultures and Civilizations)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 냉전종식 이후에도 문화,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문화 교류 확대는 상이한 문화, 종교, 인종간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는 정부간 대화와 협력이 중심이 되었던 여타 분야에 비해 학계, 언론계, NGO, 이익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ASEM 회원국간의 문화적·지적·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1997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유럽 재단(ASEF)’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 ASEM DUO 장학사업

사회/문화 분야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중의 하나로 ‘ASEM DUO 장학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DUO 장학사업은 ASEM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 교수, 연구원들의 학문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에 운영 사무국이 설립되었습니다.¹¹⁾



ASEM DUO 홈페이지

장학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등이 기금을 출연¹²⁾하였으며, 2001년 ~2009년간 총 1,932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DUO 장학기금 운영을 2015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11) DUO 장학기금을 수혜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영 사무국 웹사이트(www.asemduo.org)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2) 태국은 2006년 9월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웨덴과 벨기에는 2010년 10월 제8차 브뤼셀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M DUO 장학사업에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아시아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아시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핀란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DMZ 지대, 1988년 서울올림픽, 몇 편의 한국 영화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매우 단편적이었으며,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야말로 그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에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일과 같이 작은 습관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점차 한국의 음식과 더불어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 한국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직접 오기 전에는 잘알지 못했다. 나는 서서히 한국을 알아가게 되었고 한국음식은 듣던 대로 맛있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대학 커리큘럼이 주제나 교재면에 있어 핀란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다. 물론 학기말이 다가오면서 3개의 시험을 준비하고 5개의 리포트를 써야 하는 등 부담이 과중하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감당해낼 수 있는 양이었다.

학교 공부와 관련해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주목적과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읽고 다음날의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나의 결론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나에게 있어 공부가 아닌 문화교류이자 체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공부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할 것이 많았다. 나는 핀란드의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 생활은 나에게 있어 거대한 변화였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용이했으며, 특히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한 이동은 매우 단순하고 쉬웠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버스의 경로와 정거장을 파악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지하철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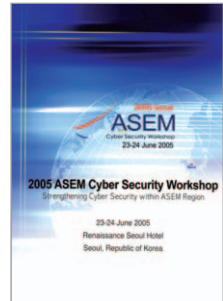
한국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선 반드시 봐야 하는 명소로 남북분단선이 생각난다.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심한 남북 분단선과 그 밖의 냉전의 유물들은 불만만 가치가 있었다. 한국의 시골이나 혹은 부산, 대구와 같은 거점도시로의 여행 또한 추천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찰 체험도 가능하다. 하루에서 길게는 며칠씩 스님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명상도 하면서 절제 있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리포트 작성과 시험준비가 대학생들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커리큘럼을 이수한 것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내가 전에 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그 어떤 가이드북이 나에게 알려준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집을 그리워하게 했던 것들까지 이제는 모두 다 뜻 깊은 경험으로 남았고, 언젠가 다시 한 번 한국을 찾고 싶다. 나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준 ASEM-DUO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나. 정보·통신 기술 협력 증진

아시아와 유럽간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00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 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TEIN)’ 구축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의 KOREN과 프랑스 국립연구망을 연결하는 한·불 연구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의 APII와 유럽지역의 GEANT를 잇는 TEIN이 2001년 12월 개통되었습니다.



서울 ASEM 사이버보안 워크숍(2005.6)

TEIN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4년 1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TEIN의 확대·고도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000만 유로를 투자, 동남아시아 등으로 TEIN을 확대하는 TEIN 2 사업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관련 전문위원회 및 재원 분담 협상을 거쳐 2006년 1월 기존의 TEIN을 종료하고 TEIN 2를 개통하였습니다.

TEIN 2 사업은 아·태지역 최초로 구축된 대규모 연구·교육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연구·교육망인 ‘GEANT 2’를 통해 유럽과 아·태 지역 연구자들을 연결, 글로벌 연구 협력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태 지역 10개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TEIN 3가 2008년 연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2008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TEIN 3 실행을 위한 1,200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예산과 추가 600만 유로가 아시아 파트너들로부터 제공됨에 따라 TEIN은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인터넷 연결을 보다 향상된 수용력으로 2011년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EU 집행위원회 등 주요 TEIN 참여국가들은 2012년 부터 시작될 TEIN 4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TEIN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TEIN 협력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 외에도 역시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업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세미나’와 ‘정보·통신(IT) 기술 세미나’ 등도 개최되어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구축에 있어 ICT 적용에 관한 ASEM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ASEM내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다. 인권 상황 개선

ASEM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보편적 가치 확산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1997년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번갈아가며 거의 매년 개최된 인권 증진 세미나를 들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서 일부 회원국들은 인권상황이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한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부간 회의에 앞서 정부 관계자, 학자, NGO 등이 함께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도적 지원 등 인권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일부 회원국들에게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ASEM 차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7차 인권관련 비공식 세미나 중
'사회 소수자 인권' 회의 세션(2006.2)

라. ASEM 종교간 대화

ASEM 회원국들은 아시아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종교적 다양성의 이해와 관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 유럽의 종교·문화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가치를 표방한 폭력, 테러리즘, 극단주의의 증가가 현대사회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ASEM 회원국들은 종교간 대화를 통하여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 아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증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ASEM 종교간 대화는 문명간 대화의 장으로서 세계화 시대의 위협에 아시아와 유럽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의 종교간 대화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 9월 제5차 종교간 대화는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종교간 대화와 사회 통합, 대중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종교간 대화의 실천 문제도 논의 되었으며 결과문서로 '서울성명서(Seoul Statement)'를 채택하였습니다.

마. 시민사회 교류 확대

정부간 협의체로 시작된 ASEM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사회를 연결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인데,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유럽 재단(ASEF)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3백여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 외에도, 회원국 NGO들이 중심역할을 하는 ‘아시아-유럽 시민 포럼(Civil Society Symposium of Asia and Europe)’, 차세대 지도자들간 교류를 위한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 회의(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관심분야 연구의 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아시아-유럽 대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8차 젊은지도자회의(2004.12)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ASEM 협력사업들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1	ASEM 문화문명장관회의	중국	1차 : 2003.12 중국 베이징 2차 : 2005. 6 프랑스 파리 3차 : 2008.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차 : 2010. 9 폴란드 포즈나뉴	ASEM IV에서 채택
2	ASEM 노동장관회의	독일	1차 : 2006. 9 독일 포츠담 2차 : 2008.10 인도네시아 발리(예정) 3차 : 2010.12 네덜란드 레이렌(예정)	
3	아시아-유럽 재단 (ASEF)	싱가포르, 프랑스	- 1997 싱가포르에서 출범한 ASEF 는 현재 약 300개 이상의 프로젝 트를 추진 중	ASEM I에서 채택
4	아시아-유럽 대학교류 사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ASEM I에서 채택
5	아시아-유럽 지적교류 사업	일본	1차 : 1996. 11 프랑스 파리 2차 : 1997. 5 영국 디칠리파크 3차 : 1997. 11 일본 도쿄	아시아-유럽 협력 협회(CAEC) 주관
6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 회의	오스트리아, 일본	1차 : 1997. 3 일본 미야자키 & 도쿄 2차 : 1998. 5 오스트리아 바덴 & 비엔나 3차 : 1999. 5 한국 강원도 & 서울 4차 : 2000. 6 아일랜드 리머릭 5차 : 2001.10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6차 : 2002. 6 독일 베를린 7차 : 2003. 8 베트남 호치민 8차 : 2004. 11~12 네덜란드 헤이그	ASEM I에서 채택
7	ASEM 아동복지 사업	영국, 필리핀	8회 개최	ASEM II에서 채택
8	불법마약거래 방지 협력사업	영국		ASEM II에서 채택
9	ASEM 지역내 문화유적의 보호 진흥	베트남, 프랑스	2회 개최	ASEM II에서 채택
10	전통 및 현대의학의 접목 관련 세미나	베트남	2회 개최	ASEM II에서 채택
11	교육교류 사업	영국		ASEM II에서 채택
12	ASEM 교육 허브	싱가포르	1차 : 1999. 11 프랑스 퐁텐블로 2차 : 2003. 11 싱가포르 3차 : 2005. 5 덴마크 코펜하겐	ASEM II에서 채택
13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한국, 덴마크	- 1999. 3 덴마크 코펜하겐	ASEM II에서 채택
14	여성·아동 불법거래 관련 사업	스웨덴, 태국, 필리핀	1차 : 2000. 11 스웨덴 스톡홀름 2차 : 2002. 10 태국 방콕 3차 : 2003. 9 태국 방콕	ASEM III에서 채택
15	HIV/AIDS에 공동 대처	말레이시아, 영국		ASEM III에서 채택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16	ASEM DUO 장학사업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 2001 한국 서울에 사무국 개설 - 학생, 선생, 교수 등 상호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재정적 원조 제공 - ASEM IV에서 덴마크 합류 - ASEM VI에서 태국 합류	- ASEM III에서 2001~2005 기간 채택 - ASEM V에서 2006~2010 기간 연장
17	정보와 통신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필리핀		ASEM III에서 채택
18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세미나	EU 집행위원회, 태국		ASEM III에서 채택
19	새로운 공공경영을 위한 문화적 색채의 극복	필리핀		ASEM III에서 채택
20	이민문제 관리를 위한 회의	독일, 중국, 스페인	- 첫 회의는 2002. 4 스페인 란자로데에서 장관급으로 개최 - 이후 회의는 국장급 회의로 5회 개최 - 6차 회의 2007.11 서울에서 개최 - 7차 회의 2008.11 파리개최	ASEM III에서 채택
21	평생교육 사업	덴마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 2002 덴마크 & 싱가포르 - ASEM VI에 보고서 제출	FMM III에서 채택
22	기아근절, 빈곤퇴치 및 번영을 위한 ASEM 관광 협력			
23	ASEM Information Board		ASEM Infoboard 웹사이트 개설, ASEF에서 운영	
24	마약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영국, 태국		ASEM IV에서 채택
25	교육교류에 관한 ASEM 세미나	싱가포르, 아일랜드, EU 집행위원회, 일본	- 2003.11 일본 츠쿠바	ASEM IV에서 채택
26	ASEM Youth Games	태국	- 2005. 7 태국 방콕	ASEM IV에서 채택
27	고용의 미래 및 노동의 질에 관한 워크숍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중국	- 워크숍 3회 개최	ASEM IV에서 채택
28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스웨덴, 프랑스	1차 : 1997. 12 스웨덴 룬드 2차 : 1999. 6 중국 베이징 3차 : 2000. 6 프랑스 파리 4차 : 2001. 7 인도네시아 발리 5차 : 2003. 5 스웨덴 룬드 6차 : 2004. 9 중국 소주 7차 : 2006. 2 헝가리 부다페스트 8차 : 2007. 9 캄보디아 씨엠립 9차 : 2009. 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10차 : 2010. 7 필리핀 마닐라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29	인권 교육, 인권 이해 매뉴얼	오스트리아		
30	ASEM 긴급 공중보건 세미나	중국	- 2003.10 중국 베이징	
31	HIV/AIDS 관리에 관한 ASEM 협력	네덜란드, 베트남, 스웨덴, 필리핀	1차 : 2005.11 베트남 호치민 2차 : 2007.6 스웨덴 스톡홀름	ASEM V에서 채택
32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검역 협력 세미나	베트남		ASEM V에서 채택
33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구축에 있어 ICT 적용에 관한 ASEM 협력사업	한국, 베트남, 브루나이,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 2006. 6 베트남 하롱베이	ASEM V에서 채택
34	ASEM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 연구 중심	덴마크, 스웨덴, 태국		ASEM V에서 채택
35	종교간 대화	영국, EU 집행위원회, 인도네시아	1차 : 2005. 7 인도네시아 발리 2차 : 2006. 7 사이프러스 라나카 3차 : 2007. 6 중국 난징 4차 : 2008. 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차 : 2009. 9 한국 서울 6차 : 2010. 4 스페인 마드리드	ASEM V에서 채택
36	ASEM 회원국 환경청 및 기술이전센터 대표회의		- 1998. 3 독일 뒤셀도르프	
37	아시아-유럽 센터/아시아-유럽 연구소	말레이시아	- 1997 아시아-유럽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후에 아시아-유럽 협회로 바뀜	
38	네트워킹에 관한 공동연구	필리핀		ASEM III에서 채택
39	전염병 관리를 위한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프로젝트	프랑스		ASEM III에서 채택
40	직업교육 관련 국장-전문가 회의: "직업교육으로 인적자원 강화"	독일	- 2006. 2 독일 베를린	
41	ASEM 검찰국장 회의	덴마크,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 2005.12 중국 쉐젠	FMM VII에서 채택
42	"ASEM의 10년" 리포트	일본, 핀란드	- 2006. 3 비엔나 SOM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	FMM VII에서 채택
43	ASEM 협력사업 평가보고서	한국	- 2006. 3 비엔나 SOM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	
44	ASEM 조류인플루엔자 워크숍	중국	- 2007.11 중국 베이징	ASEM VI에서 채택

사회/문화 분야 총 사업 수 : 44

사업명		제안국	활 동	비 고
45	ASEM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세미나	베트남	- 2008.12 베트남 하노이	
46	ASEM 교육장관회의		1차 : 2008. 5 독일 베를린 2차 : 2009. 5 베트남 하노이	
47	ASEM 지뢰제거 및 인간안보 세미나	이탈리아	- 2009. 3 이탈리아 타란토	
48	아시아-유럽 시민사회회의		1차 : 2004. 6 스페인 바르셀로나 2차 : 2006. 9 핀란드 헬싱키 3차 : 2008.10 중국 베이징 4차 : 2010.10 벨기에 브뤼셀	
49	ASEM Interfaith Cultural Youth Camp Project		- 2009. 2 태국 방콕, आयुताया	
50	ASEM Culture and Arts Festival		- 2009. 9 중국 베이징	
51	ASEM Training on Empowering Local Community in Use of ICT	인도네시아	- 2009. 10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52	ASEM Workshop on Building an 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말레이시아	- 2009.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3	ASEM Employment High Level Forum	벨기에	- 2010. 3 벨기에 브뤼셀	
54	ASEM Seminar: Asia-Europe Learning mutually Asia-Europe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일본	- 2010. 3 일본 도쿄	
55	ASEM Workshop on Coordinating Culture Activities for the Enhancement of ASEM Visibility	베트남	- 2010. 4 베트남 하롱	
56	ASEM Conference on EU-Asia Inter-regional Relations	벨기에	- 2010. 7 벨기에 브뤼셀	
57	ASEM Forum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moting ICT Research for Development	인도네시아	- 2010. 7 인도네시아 반둥	

4. ASEM은 어떻게 확대되고 있나요?



하노이에서 열린 ASEM 신규회원국 가입회의(2004.10)

ASEM은 1996년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를 구성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회원국 확대가 논의되다가 2004년 제5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3개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과 EU 신규가입 10개국이 가입하여 3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제6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사무국과 아시아

3개국(인도, 파키스탄, 몽골) 및 EU 신규가입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총 6개국이 공식적으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ASEM의 2차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6개국 정상들은 2008년 제7차 ASEM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장 전경(2006.9)



6개 신규협력국 가입 승인을 발표하는 반하넨 핀란드 총리(2006.9)

제3차 회원국 확대는 2010년 제8차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러시아 및 호주 등 3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예정인데, 현재 이들 3국을 아시아 또는 유럽 중 어느 지역 그룹으로 가입시켜야 할지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잠정적으로 '제3그룹'을 형성해 가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서 ASEM 회원국은 전세계 GDP의 절반, 인구의 60.3%, 세계 무역의 63.2%를 차지하는 총 48개국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전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회의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SEM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 행사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 성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카테일 리셉션과 대통령 주최 정상만찬의 모든 요리를 책임졌던 총주방장은 당시 행사를 아래와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해서 입맛이 보통 사람보다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전상의 제약이 많아요. 정상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만찬장에서의 서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회교국가 정상을 배려해 고기의 종류와 생선종류도 신경 써야 하죠. 이슬람국가에서는 비늘 있는 생선만 먹기 때문에 바닷가재 오징어 같은 해산물은 아예 식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브루나이 국왕 때문에 할랄(사제가 의식을 통해 단칼에 피를 뺀 것)한 고기를 본국에서 직접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메뉴 정하는 데만도 한두 달은 족히 걸리고, 준비 서류만도 파일로 한 가득이죠.”

총주방장이 ASEM 만찬에 선보인 메뉴가 궁금하다면 살짝 엿봅시다.

“에피타이저는 거위간을 젤리타입으로 만들어 5층으로 쌓아올린 다음 석로버섯으로 장식한 ‘석로버섯과 거위간 젤리’였습니다. 다음은 도버해에서 공수해 온 참가자미를 완탕으로 곁들인 쇠고기 맑은 스프, 그 다음은 귀하기로 첫손에 꼽히는 식재료인 새우집으로 말아 만든 가재구이. 메인요리는 보드레소스를 곁들인 쇠안심구이, 나폴레옹식의 염소치즈요리를 냈고 셔벗은 각 나라의 상징물을 얼음조각으로 만들어 그 위에 얹어 서비스를 했습니다. 디저트로 낸 톨립 과자에는 ASEM 로고를 새겼으며 초콜렛 모듬에는 한국의 탈모양을 새겼습니다. 유명한 미식평론가들을 불러 사전에 미리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리를 짧은 만찬시간에 정확히 맞춰 만들어내기 위해 주방에서는 수많은 요리사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들을 지휘하는 총주방장의 긴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ASEM 만찬 시연회(2000.9)

13) 시티라이프 2001년 10월호

5. 아시아-유럽 재단은 어떤 기구인가요?

가. 아시아-유럽 재단의 설립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 ASEF)은 1996년 3월 개최된 제1차 방콕 ASEM 정상회의시 합의¹⁴⁾된 ASEM 최초의 가시적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가 처음 제안한 아시아-유럽 재단은 1년 뒤 제1차 ASEM 외무장관회의(1997년 2월, 싱가포르)에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아시아-유럽재단(ASEF) 로고

나. ASEF 재단의 목적과 기능

아시아-유럽 재단은 양 지역간의 학술교류(intellectual exchange),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및 인적교류(people-to-people exchange)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SEF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450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1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단의 교류 프로그램은 기존 국제 교류 사업들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에 유념하여 ASEM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ASEM 회원국내 연구기관과의 ASEM 관련 공동 프로젝트
- ASEM 정상 및 장관회의에서 위임받은 프로젝트
- 재단 자체의 고유 프로젝트
- 정보센터(clearing house), 조정자(coordinator) 및 촉매제(catalyst and facilitator)로서의 역할
- ASEM 회의, 세미나 등의 홍보 및 지원

다. ASEF 재단의 운영

ASEF 재단은 싱가포르 국내법에 따른 비영리기관으로 재산취득, 처분, 계약 능력 등 법인격을 보유하고 과세면제 특권을 향유하는데, 운영은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면서 소집 개최하는 이사회와 싱가포르에 위치한 상설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 방콕 정상회의 의장성명 중에 "아시아-유럽간 학술, 문화 및 인적교류를 위해 아시아-유럽 재단을 싱가포르에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재단의 정책결정기관으로 48개 ASEM 회원국(EU 집행위원회와 ASEAN 사무국포함)에 의해 각 1명씩 선임된 48명의 이사(임기 3년)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과 부회장은 이사들간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 1년 임기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한명씩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재희 전 주일대사가 4대 의장(2000년 5월~2001년 4월)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측 이사로 이상옥 전 외무장관, 노창희 전 주유엔대사가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김삼훈 전 주유엔대사가 ASEM 이사회 의장(2010년)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 방침, 조직구조 및 사업순위 결정, 개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재단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는데, 현재까지 24차례 소집되었으며, 2000년 10월 서울에서 제8차 이사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제1차	1997.2.17	싱가포르	제14차	2003.11.6~7	싱가포르
제2차	1997.10.24	룩셈부르크	제15차	2004.5.27~28	더블린
제3차	1998.2.18	방콕	제16차	2004.11.25~26	하노이
제4차	1998.10.28	네덜란드	제17차	2005.5.27~28	탐페르(핀란드)
제5차	1999.5.17~18	베이징	제18차	2006.2.16~17	싱가포르
제6차	1999.10.25~26	코펜하겐	제19차	2006.11.9~10	도쿄
제7차	2000.5.4~5	비엔나	제20차	2007.10.4~5	바르샤바
제8차	2000.10.16~17	서울	제21차	2008.4.22~24	발리
제9차	2001.5.10~11	리스본	제22차	2008.11.20~20	싱가폴
제10차	2001.10.19~20	반다르 세리 베가완	제23차	2009.5.7~8	부다페스트
제11차	2002.5.24~25	살라만카	제24차	2009.11.25~26	싱가폴
제12차	2002.10.13~11.1	쿠알라룸푸르	제25차	2010.12	라오스
제13차	2003.5.8~9	베를린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은 집행기관인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 Dominique Girard대사(프랑스)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ASEF 재단의 재원은 회원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280만 미불을 공여하였습니다.



제21차 발리 ASEM 이사회(2008.4)

라. ASEF 재단의 주요사업

ASEF 재단은 학술교류·문화교류·인적교류 등 세 분야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홍보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ASEF는 2009년부터 기존의 세 분야별 교류 프로그램을 7개 주제 (①환경과 지속가능개발 ②경제·사회 ③보건 ④예술·문화 ⑤교육·학습협력 ⑥인권과 거버넌스 ⑦사회간 대화)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교류 : Intellectual Exchange

ASEF 재단은 학술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사회 간에 다리를 놓고,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대화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ASEM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시아-유럽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난 13년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10차를 맞이한 ‘ASEM 인권에 관한 비공식 세미나’는 아시아-유럽간 인권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만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차에 걸쳐 개최된 ‘여성 문제 아시아-유럽 대화’는 양 대륙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제 1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제관계 학술교류 세미나로 ‘아시아-유럽 라운드테이블’, ‘Talks on the Hill’, ‘아시아-유럽 환경포럼’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유명학자 초빙 회원국 순회 강연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005년 2월 외교안보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From Bullets to Ballots and Beyond’ (Plamen Tonchev) 제하 국제 강연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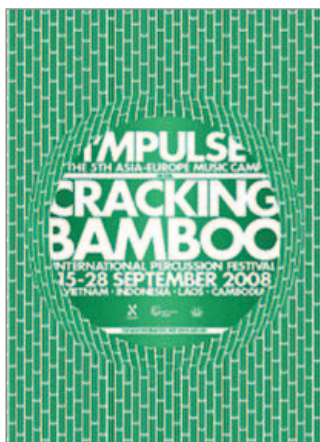


● 문화교류 : Cultural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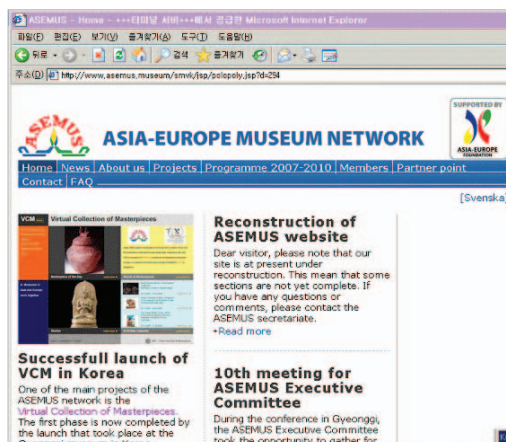
ASEF 재단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교류의 전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문화교류 사업은 아시아, 유럽의 젊은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젊은 예술가 교류 행사로는 ‘아트 캠프’, ‘댄스 포럼’, ‘음악 캠프’, ‘영화포럼’, ‘만화 프로젝트’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으로 비주얼 아트 교류 사이트(<http://www.culture-asef.org>), 영화 교류 사이트(<http://sea-images.asef.org>), 국제 박물관 교류 사이트 (<http://www.asemus.museum>), 아시아-유럽 예술가들의 문화교류 사이트(<http://www.culture360.org>) 등이 있습니다.



제5회 아시아-유럽 음악 캠프 포스터(2008.9)



Asia Europe Museum Network(ASEMUS) 홈페이지

아울러,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홍보행사, 세미나, 포럼 등도 개최되고 있으며, CD/DVD, TV 다큐멘터리 등 아시아-유럽간 문화교류에 대한 영상물도 활발히 제작 중입니다.

특히,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계기에 편집인 라운드테이블, 아시아-유럽 젊은 예술인 그림전시회, 아시아-유럽 민속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우리나라와 공동 주관하에 개최하였으며, 제20차 서울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컨퍼런스(2004년 10월) 계기에 박물관 네트워크 「ASEMUS」에 대한 설명회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는 경기도 박물관에서 ‘유라시아 사이버 명품전’이 열려 아시아와 유럽의 우수한 박물관이 선정한 최고의 명품 사진과 정보가 제공되어 사이버명품관 홈페이지(<http://masterpieces.asemus.museum/>)가 개시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21세기 아시아 유럽 박물관의 협력과 미래’라는 주제하에 ASEMUS 총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아시아 공연예술 포럼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2번째로 아시아-유럽 예술인들의 문화 교류 사이트인 Culture360.org의 시범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 인적교류 : People-to-People Exchange

ASEF 재단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은 차세대 지도자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ASEF 대학 프로그램’과 ‘ASEM 청년 대화’가 있으며, 각계 인사들의 교류 촉진을 위한 ‘교사 컨퍼런스’, ‘청년 기업가 포럼’, ‘청년 의원 회의’, ‘청년 지도자 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 홍보사업 : Public Affairs

ASEF 재단은 교류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을 통해 재단과 ASEM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시아-유럽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홍보활동은 회원국의 정부, 연구기관 등과의 연락망을 강화하는 한편, 재단 교류 프로그램과 ASEM 행사시에 언론의 관심을 환기하고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유럽 재단(ASEF) 홈페이지



ASEM Infoboard 홈페이지

이를 위해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 2004(2004년 9월 19~21, 서울) 등과 같은 아시아-유럽의 저널리스트 세미나 및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저널’, ‘ASEF Newsletter’ 등의 홍보책자 및 ASEF 활동보고서인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홈페이지 <http://www.asef.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ASEM 공식 홈페이지인 ASEM Infoboard (<http://www.aseminfoboard.org>)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SEF 소개 1 충북 진천에 설립될 아셈스쿨(ASEM School)¹⁵⁾

ASEF(아시아-유럽 재단)와 우석대학교는 2008년 1월 4일 서울에서 ‘아셈 스쿨(ASEM School)’을 2012년 충북 진천에 개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ASEF-우석대 진천캠퍼스 아셈스쿨 설립 MOU 체결 기념사진

우석대 진천캠퍼스에 설립될 ‘아셈 스쿨’은 ASEF가 특정 국가의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설립하는 최초의 국제대학으로서, 아셈 48개 회원국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수용해 다양한 교과목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셈 스쿨’에서는 회원국의 문화, 학술, 학문 등의 교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세계적 석학이 참석하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셈 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충북 진천군이 우석대 진천캠퍼스 예정 부지(231,000m²)에 대한 토지 매입에 착수하는 등 대학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12년 개교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뉴시스(2008.1.4), 연합뉴스(2008.2.28), 중앙일보(2008.3.4)

Ⅲ. ASEM 속의 한국

- 1 ASEM 내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떠한가요?
- 2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 3 우리나라와 ASEM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어떠한가요?
- 4 ASEM 회원국에 우리나라 동포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III. ASEM 속의 한국

1. ASEM 내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떠한가요?

가. ASEM 발전의 중추국

한국은 ASEM 프로세스 발전의 모범적 기여국입니다. 지난 2000년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와 2008년 제8차 제주 ASEM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SEM 동북아 및 남아시아 조정국(Coordinator)으로서 ASEM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46개(EU집행위 및 ASEAN 사무국 제외) 회원국 중 경제 규모는 10위, 인구는 15위에 해당하는 중견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ASEM내 국가들의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를 살펴보면, 13억 3천만명 중국의 인구는 39만의 브루나이보다 3,500배나 많습니다. 국민소득의 경우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미불로, 459 미불에 지나지 않는 미얀마와 218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ASEM내 존재하는 이러한 양극적 질서가 융합될 수 있게끔 하는 중견·중심국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SEM의 극과 극]

	최 대	최 소
인구	중국(13억 3천만명)	브루나이(39만명)
GDP	중국(8조 7천억 미불)	몽골(95억 미불)
1인당 GDP	룩셈부르크(10만 미불)	미얀마(459 미불)
전세계교역	중국(2조 1천 583억 미불)	라오스(31억 미불)
아국교역	중국(1,400억 미불)	룩셈부르크(6천만 미불)
아국교민수	중국(249만명)	에스토니아(5명)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09, 2010), IMF(2009), 한국무역협회(2009),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2010)

나. ASEM 의제 설정 주도국

한국은 ASEM이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연구¹⁶⁾, 정보격차 해소사업¹⁷⁾, ASEM DUO 장학사업¹⁸⁾, 철의 실크로드 사업¹⁹⁾,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²⁰⁾,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워크숍²¹⁾, 농촌지역 개발 포럼²²⁾ 등 아시아-유럽간 협력사업과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6), 17)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승인 사업
19) 제4차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 승인 사업
21), 22)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 승인 사업

18) 제3차 서울 및 제5차 하노이 ASEM 정상회의 승인 사업
20) 제5차 하노이 정상회의 승인 사업

2.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가 위상 강화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하여 EU, ASEAN 등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주변 4국 위주로 치중했던 우리 외교지평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인 APEC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SEM을 우리나라의 지역협력 외교의 양대 축으로 삼아, 이를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M내 협의를 통해 대테러, 대량파괴무기(WMD)의 비확산, UN 개혁, 군비축소 및 통제 등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와 마약밀매, 테러, 돈 세탁, 조직범죄, 전염병 등 초국가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ASEM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중심국인 한·중·일 3국간 하나의 그룹을 형성²³⁾, 번갈아 가며 조정국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미래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SEM은 우리의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으로 활용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과 유럽국가들의 발전된 기술수준 및 경영기술 공유에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 통상 외교의 다각화 및 무역투자 관계 확대를 통한 경제적 실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부문에서의 협력과 제후를 통해 WTO 체제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국제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3) 2006년부터 신규 가입한 몽골, 인도, 파키스탄의 합류로 동북아 그룹이 동북아 및 남아시아 그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ASEM 참여

▣ 회의 개최

- 정상회의 개최
 -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 개최(2000. 10)
- 장관급 회의 개최
 - 제8차 제주 ASEM 재무장관회의(2008. 6)
- 기타 주요 회의
 - 고위관리회의(SOM) 서울 개최(2000. 9)
 -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 서울 개최(2000. 5)
 - 제4차 투자전문가회의(IEG) 병행 개최
 - 아시아 고위관리회의(SOM) 제주 개최(2006. 1)
 - 조정국회의 서울 개최(2010. 9)

▣ 아시아-유럽 재단(ASEF) 관련 사항

- 고위직에 진출
 - 사무총장: 조원일 대사(2004. 11~2008. 11)
 - 이사회 의장: 오재희 전 주일대사(2000. 5~2001. 5), 김삼훈 전 주유엔대사(2010)
 - 現 이사: 김삼훈 대사(2006. 2~2012. 1)
 - 사무차장: 김성철 대사(2000. 11~2004. 2)
- 서울 ASEM 정상회의 계기 편집인 라운드테이블, 젊은 예술인 그림 전시회, 아시아-유럽 민속축제 개최(2000. 10)

▣ ASEM 협력사업

-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제안 및 동 그룹의 의장역할 수행
 - 의 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1998. 4~1999. 3)
-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 TFAP의 아시아측 간사국이며 우선추진 8개 분야중 전자상거래 분야 아시아측 주도국
 - 분야별 세미나 한국 개최: 통관절차(2003. 9/2006. 5), 표준적합평가(1999. 3), 전자상거래(2001. 10/ 2003. 10)
 - TFAP 전자상거래 세미나 서울 개최(2001. 10, 2003. 10)
-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 제4차 투자전문가그룹(IEG) 회의 개최(2000. 5)
-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 제4차 회의 서울 개최(1999. 9)
 - 포럼 의장: 박용오 (주)두산 회장
 - 제8차 회의 서울 개최(2003. 10)
 - 포럼 의장: 류진 (주)풍산 회장

- ASEM DUO 장학사업
 - 제1차(2001~2005):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공동 제안
 - 제2차(2006~2010):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덴마크 공동 제안
 - ASEM DUO 장학사업 전문가회의 서울 개최(2001. 4)
-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방한(1998. 5, 1998. 9)
 - 제2차 정상회의시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투자 촉진단 파견 제의
 - 유럽 9개국 및 EU 집행위원회, 아시아 2개국으로 구성된 투자촉진단 방한
 - 1998년 사상 최대인 외국인 투자유치(88.5억불 기록)
-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 초대 부소장직 수입(1999. 3)
 - 부소장: 정혁진 환경부 국장
 - 2000. 6 한국에서 제6차 PPGG* 회의 개최
 - *PPGG: 선도그룹회의(Pilot Phase Guidance Group)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1999. 3, 코펜하겐)
 - 우리나라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
- 제3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개최(1999. 5, 서울&강원도)
 - 동 기회에 ASEM 외교관 세미나 개최
- 아동복지관련 ASEM 법집행기관간 회의 서울 개최(2000. 5)
 - 대검찰청(법무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15개 ASEM 국가 및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참석
-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사업 전문가회의 서울 개최(2001. 3)
- 정보화 격차 관련 세미나(2001. 3, 도쿄)
 - 우리나라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
-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 테이블 서울 개최(2001. 5)
- 제5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2003. 9)
-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서울 개최(2004. 6)
- ASEM 사이버 보안 워크 서울 개최(2005. 6)
- 제9차 조사감시 작업반회의(2006. 4)
- 제6차 이민국장회의(2007. 11)
- 제5차 ASEM 종교간 대화(2009. 9)
-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2010. 5)

3. 우리나라와 ASEM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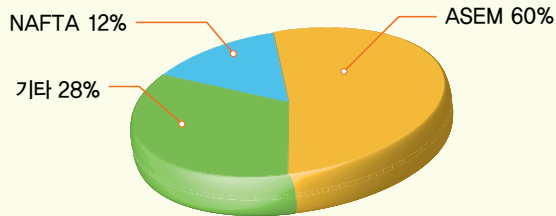
가. 우리나라와 ASEM 국가간 교역 관계

현재 ASEM의 총 GDP는 약 39조 378억 미불로 전세계 GDP의 약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량은 약 15조 6천150억 미불에 달해 전세계 교역량의 약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와 ASEM 국가들과의 총 교역량은 약 4,112억 미불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6,866억 미불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교역량 중 ASEM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2009)

【한국의 대 ASEM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미불, %)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금액	26,370	56,250	28,252	60,956	21,771	49,428
	비중	7.1	15.8	6.7	14.0	6.0	15.3
중국	금액	81,985	63,028	91,389	76,930	86,703	54,246
	비중	22.1	17.7	21.7	17.7	23.9	16.8
ASEAN	금액	38,749	33,110	49,282	40,916	40,978	34,054
	비중	10.4	9.3	11.7	9.4	11.3	10.5
EU	금액	55,982	36,824	58,375	40,081	46,610	32,231
	비중	15.1	10.3	18.8	9.2	12.8	10.0
ASEM소계	금액	189,976	187,599	253,097	253,588	215,250	195,928
	비중	51.1	52.6	60.0	58.3	59.2	60.6
총 수출입액	금액	371,489	356,846	422,007	435,275	363,534	323,08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나. 우리나라와 ASEM 국가간 투자 관계

2010년 3월까지 우리나라의 ASEM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756억 3천 8백만불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ASEM 국가들의 대 한국투자는 1,016억 5천만불로 전체 투자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ASEM 직접투자】

(단위: 백만미불, %)

연도	대 ASEM 국가 투자액*	총 해외 투자액*
2010.3 누계	75,638	140,621

* 신고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SEM 국가들의 대 한국 직접투자】

(단위: 백만미불, %)

연도	대한 투자액*	외국인의 대한 총투자액*
2010.3 누계	101,650	164,845

* 신고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4. ASEM 회원국에 우리나라 동포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ASEM 국가들내에는 우리나라 전체 재외동포의 61.5%에 달하는 약 4백 19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외동포들이 ASEM 지역 국가내에 거주하는 이유는 전체 재외동포의 36.4%에 이르는 중국과 13.4%에 이르는 일본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ASEM 국가들인 ASEAN과 EU, 그리고 아시아 3개국 및 제3그룹 내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9만여명에 불과해 전체 동포수의 11.6%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단위: 명)

	동포(우리 재외국민 포함)
일 본	913,152
중 국	2,489,076
인 도	8,337
파키스탄	590
몽 골	2,323
ASEAN 10개국	286,335
독 일	31,248
프랑스	14,738
영 국	45,295
EU 회원국 24개국	23,081
호 주	125,669
뉴질랜드	30,792
러시아	222,027
총 계	4,192,663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2010)

ASEM 길라잡이 제3차 ASEM 정상회의 기념주화 24)



기념주화는 국가적인 행사, 훌륭한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거나 공적을 기리고 그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며, 또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의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은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6월 30일 ASEM 정상회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 ASEM 기념주화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액면가 20,000원에 주문을 받아 기념주화 발행 사상 최소인 2만 5,611장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는 희소성 있는 주화로 가치가 매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경매사이트를 통해 1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등 기념주화 수집가들도 뒤늦게 ASEM 기념주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24) 연합뉴스(2005.8.30)

IV. 부록

- 1 ASEM 관련 주요 행사일지
- 2 역대 정상회의 참석자 명단
- 3 ASEM 주요 협력사업 추진현황
- 4 ASEM 협력평가 보고서
- 5 약어표
- 6 ASEM 관련 웹사이트





ASEM 관련 주요 행사 일지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1995년			
7.31	브루나이	ASEM 고위관리회의(SOM)	
9.12	푸켓	아시아 SOM	AMM/PMC 계기
10.28	도쿄	아시아 SOM	외무부
12.19	마드리드	ASEM SOM	외무부
1996년			
2.2~3	푸켓	아시아 10개국 외무장관회의	
2.15~18	치앙마이(태국)	아시아 10개국 경제장관회의	
2.29	방콕	ASEM SOM	외교통상부
3.2	방콕	제1차 ASEM 정상회의	
6.21	서천(중국)	제1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7.5~7	브뤼셀	제1차 IPAP 민관합동실무회의	
7.22	자카르타	아시아 SOM	AMM/PMC 계기
7.25	브뤼셀	제1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10.14~15	파리	제1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10.24	도쿄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12.20	더블린(아일랜드)	ASEM SOM	외교통상부
1997년			
1.16~18	로마/나폴리	제1차 아시아-유럽 대학 포럼 및 ASEM 대학 대화	교육부
2.7~8	브뤼셀	제1차 감시작업반회의	
2.14~15	싱가포르	제1차 외무장관회의	외무부
2.17	싱가포르	제1차 아시아-유럽재단(ASEF) 이사회	재경원, 관세청
3.10~14	도쿄/미야자키	제1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3.21~22	브뤼셀	제1차 통관절차작업반 회의	통산부, 환경부, 농림부
4.24~25	베이징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문가회의	조정국간 회의
4.25	헤이그	경제장관회의 준비회의	통산부
4.3	워싱턴	재무분야 Core Group회의	
5.10~11	디칠리파크(영국)	아시아-유럽 지적교류	
6.2~6	마인츠(독일)	멀티미디어와 전자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워크숍	
6.4	도쿄	경제시너지효과 세미나	재경원, 통산부
6.5~6	도쿄	제2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재경원, 통산부
6.20~21	비엔나	제2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재경원, 관세청
7.8~10	자카르타	기업인 대회	재경원, 통산부, 전경련
7.26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SOM/조정국회의	AMM/PMC 계기
7.28~29	룩셈부르크	제2차 IPAP 민관합동실무회의	재경원, 통산부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9.3	프랑크푸르트	사회간접 자본시설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에 관한 심포지엄	재경원, 통산부, 정통부, 건교부
9.19	방콕	제1차 재무장관회의	
9.25	마쿠하리(일본)	경제장관회의 준비회의	통산부
9.3	말레이시아	범아시아 철도 전문가회의	
9.27~28	마쿠하리	제1차 경제장관회의	통산부
10.24~25	룩셈부르크	제2차 ASEF 이사회	
10.25	룩셈부르크	제1차 ASEF Editors' Roundtable	
10.30~31	룩셈부르크	ASEM SOM	외무부
11.4~5	도쿄	아시아-유럽 지적교류	
11.13~14	태국	제2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12.1~2	마닐라	마닐라 포럼	
12.11~13	스톡홀름	제1차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1998년			
1.27~28	헤이그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AEETC) 전문가회의	
2.4~5	런던	제1차 재무차관회의	
2.5~6	파리	ASEF 문화 포럼	
2.5~6	브뤼셀	제3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2.9	싱가포르	중소기업을 위한 ASEM 만남 전자자원 네트워크	
2.17~18	방콕	제3차 ASEF 이사회	
2.18	영국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Wilton Park 학술회의	
2.19~20	런던	ASEM SOM	외교통상부
2.20~21	싱가포르	유럽-아시아 포럼	
3.2~3	서울	PEARL(유럽 아시아 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제1차 워크숍	
3.4~5	뒤셀도르프	ASEM 회원국 환경청 및 기술이전센터 대표회의	
3.17~19	쿠알라룸푸르	제2차 아시아-유럽대학 포럼 및 ASEM 대학 대화	
3.19~22	런던	제1차 Pre-ASEM회의	
4.2	런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장관회의	
4.2~3	런던	제3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4.3~4	런던	제2차 ASEM 정상회의	
4.5~6	영국	'새로운 아시아-유럽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Wilton Park 고위학술회의	
4.5~6	영국	제1차 아시아-유럽 비전그룹회의	
5.25~29	비엔나	제2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5.28~30	나폴리	아시아-유럽 중소기업회의	중소기업청
6.15~16	마닐라	ASEM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준비회의	
6.25~26	방콕	AEETC 제1차 선도그룹(PPGG)회의	
7.2~3	싱가포르	제2차 아시아-유럽 비전그룹회의	
7.8	브뤼셀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7.24	방콕	경제 조정국회의	재경원, 산자부
7.24	방콕	IPAP 투자전문가그룹 간사국회의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7.26	마닐라	ASEM 조정국회의	
9.11	베이징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준비회의	
9.30~10.2	브뤼셀	제1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10.3~4	로마	제3차 아시아-유럽 비전그룹회의	
10.5~6	워싱턴	재무분야 Core Group회의	재경원
10.6~8	런던	ASEM 아동복지 전문가회의	법무부, 보건복지부
10.26~27	네덜란드	노사관계에 관한 세미나	
10.27~28	방콕	ASEM SOM	외교통상부
10.28	헤이그	제4차 ASEM 이사회	
11.23~24	에비앙(스위스)	IPAP 제1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11.26~27	방콕	AEETC 제2차 선도그룹(PPGG)회의	
11.27	제네바	경제 조정국회의	재경원, 산자부
12.18	서울	AEBF IV 제1차 운영 위원회	재경원
1999년			
1.8~9	도쿄	제4차 아시아-유럽 비전그룹회의	
1.15~16	프랑크푸르트	제2차 재무장관회의	재경원
1.2	방콕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1.21~22	하노이	ASEM 문화재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제1차 전문가회의	문화재청
1.29	베를린	ASEM 조정국회의	
2.2~5	치앙마이(태국)	TFAP 제1차 검역 및 위생회의	
2.5~6	브뤼셀	제3차 감시작업반 회의	
2.6~7	리스본	제5차 아시아-유럽 비전그룹회의	
2.11	싱가포르	IPAP 제2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2.12~13	싱가포르	제4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2.23~25	마닐라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세미나	
2.26	마닐라	제3차 통관절차작업반회의	
3.8~10	코펜하겐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3.10~12	서울	제2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환경부
3.17~19	브뤼셀	제2차 과학·기술장관회의 준비회의	
3.18~19	베트남	전통 및 현대의학의 접목 관련 세미나	
3.26~28	독일	아시아 경제위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세미나	
3.27~28	베를린	ASEM SOM	외교통상부
3.28~29	베를린	제2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3.29	방콕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 출범	환경부
3.29~30	방콕	AEETC 제3차 선도그룹(PPGG)회의	
3월중	마닐라	아동복지 관련 법집행기관간 예비회의	
4.26	워싱턴	재무분야 Core Group회의	
5.17~18	베이징	제5차 ASEM 이사회	
5.19~21	중국	문화산업과 문화발전에 관한 세미나	
5.24~28	서울/강원도	제3차 아시아-유럽젊은지도자회의/ASEM 외교관세미나(5. 29, 서울)	
5.31	브뤼셀	SOMTI 조정국회의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6.21~22	독일	AEETC 제4차 선도그룹(PPGG)회의	
6.22	영국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6.23	브뤼셀	제3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6.24~25	파리	TFAP 제1차 지적재산권 세미나	
6.28~29	베이징	제2차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7.5~6	벨기에	IPAP 제3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7.7~8	브뤼셀	제5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7.25	싱가포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8.26~27	서울	AEBF IV 제2차 운영 위원회	
9.14~15	베를린	TFAP 제1차 공공조달회의	
9.2	브뤼셀	경제 조정국회의	
9.29~10.1	베를린	제4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10.1	서울	IPAP ASEM 기업경영자회의	
10.4~5	이탈리아	산업업지와 국제적 기술이전에 대한 세미나	
10.4~6	브뤼셀	제3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10.7~8	베를린	SOMTI 경제장관회의 준비회의	
10.9~10	베를린	제2차 경제장관회의	
10.12	베이징	ASEM 과학기술 고위관리회의	
10.14~15	베이징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	과기부
10.25~26	코펜하겐	제6차 ASEF 이사회	
11.2~4	헬싱키	ASEM SOM	외교통상부
11.23~24	중국	TFAP 제2차 검역 및 위생회의	
11.25~27	퐁텐블로(프랑스)	ASEM 교육 허브	
12.9~10	일본	AEETC 제5차 선도그룹(PPGG)회의	
12.18	비엔나	제2차 재무차관회의	
2000년			
1.17	비엔나	AEBF V 제1차 운영위원회	
1.24	서울	한·중·일 비공식 SOM	
2.3~4	자카르타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2.4~5	벨기에	제4차 감시작업반회의	
2.24	리스본	ASEM 조정국회의	
2.28~3.1	방콕	제4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3.16~18	태국	TFAP 제2차 지적재산권 세미나	
3.17	리스본	경제 조정국회의	
3.17~18	태국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4.14~15	벨기에	제4차 통관절차작업반회의	
4.17	워싱턴	재무관련 Core Group회의	재경부
5.2~3	리스본	ASEM SOM	외교통상부
5.2~3	룩셈부르크	21세기 교육에 관한 워크숍	
5.4~5	비엔나	제7차 ASEF이사회	
5.4~6	서울	아동복지 관련 법집행기관간회의	대검찰청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5.11~12	한국	IPAP 제4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5.12~13	서울	제6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5.15	방콕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6.12~16	아일랜드	제4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6.19~20	파리	제3차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6.27	리스본	SOM Deputies' Meeting	
7.6~7	서울	AEETC 제6차 선도그룹(PPGG)회의	
7.10~11	서울	ASEF 서울 정상회의 세미나	
상반기		TFAP 제2차 지적재산권 세미나	
7.3	방콕	아시아 SOM/조정국회의	
9.11~9.14	네덜란드	TFAP 제3차 검역 및 위생회의	
9.13	파리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9.14	파리	제3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9.18~20	서울	ASEM SOM	외교통상부
9.20~21	하노이	문화재보호 기반구축 관련 세미나	문화재청
9.29~30	비엔나	제5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9.3	비엔나	무역, 투자 및 경쟁에 관한 세미나	
10.2~4	브뤼셀	제5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10.16~17	서울	제8차 ASEF 이사회	
10.18~19	서울	제2차 ASEF Editors' Roundtable	
10.19	서울	ASEM SOM /정상회의 준비각료회의	
10.20~21	서울	제3차 ASEM 정상회의	
12.4~5	하노이	전통 및 현대의학 접목 관련 세미나	
12월	하노이	발전도상 도시문화재 보호 법적 기반 구축 세미나	
2001년			
1.13~14	고베	제3차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1.19	싱가포르	AEBF VI, 제1차 운영위원회	전경련
2.7~8	베이징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3.1~2	스톡홀름	경제 조정국회의	
3.17	호치민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3.22~23	일본	ASEM 디지털 기획 세미나	정통부 등
3.23	일본	TFAP 제2차 공공조달회의	재경부
3.27~28	한국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전문가회의	정통부, 과기부 등
3.16~17	브뤼셀	제5차 감시작업반회의	관세청
4.10~11	서울	ASEM DUO 장학사업 추진 전문가회의	교육부 등
4.24~25	태국	제5차 통관절차작업반회의	재경부
4.25~27	스톡홀름	ASEM SOM	외교통상부
4.27	워싱턴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5.9~10	방콕	아시아-유럽 정보기술 및 통신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사업(AEITTP)	정통부 등
5.24~25	베이징	제3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5.28~29	서울	제1차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5.10~11	포르투갈	제9차 ASEF 이사회	
6.25	싱가포르	AEBF VI, 제2차 운영위원회	전경련
6.28~29	말레이시아	WTO 무역원활화 세미나	
7.2	스톡홀름	제4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재경부
7.3~4	벨기에	IPAP 제5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산자부 등
7.4~5	벨기에	제7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상반기	스페인	문화유산보호 및 진흥 관련 전문가회의	문화관광부 등
7.16~20	귀양(중국)	산림보존과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협력	과기부, 산림청 등
9.10~11	베트남	제3차 경제장관회의	
9.17~19	베이징	국제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기관 회의	법무부 등
10.7	싱가포르	AEBF VI 제3차 운영위원회	전경련
10.8~9	싱가포르	제6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10.25~26	서울	TFAP 제1차 전자상거래 세미나	전경련 등
11.28~29	브뤼셀	제6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산자부, 보건부 등
10.7~12	말레이시아	제5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2002년			
1.7~8	상하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1.16~18	코펜하겐	ASEM 평생교육회의	
1.17~18	중국	ASEM 환경장관회의	환경부
1.3	방콕	AEETC 제7차 선도그룹(PPGG)회의	환경부
2.1	마드리드	ASEM 조정국회의	
2.25~26	베이징	ASEM 이민문제 전문가회의	
3.12~13	방콕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3.15~16	도쿄	ASEM 세계경제에 관한 세미나	재경부
4.2~3	란자로페(스페인)	ASEM SOM	외교통상부
4.4~5	란자로페	이민문제 관리를 위한 회의	
4.10~11	베이징	제7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산자부
4.15~16	마드리드	경제 조정국회의	
4.19	워싱턴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5.7	태국	ASEM 환경고위관리회의	환경부
5.13~15	쿠알라룸푸르	ASEM 평생교육회의	
5.16~17	하노이	TFAP 제3차 지적재산권 세미나	산자부
5.24~25	살라만카(스페인)	제11차 ASEF 이사회	
6.5~6	마드리드	ASEM SOM	외교통상부
6.6~7	마드리드	제4차 ASEM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6.1	스페인	제4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6.10~13	창사(중국)	ASEM 수자원 관리에 관한 세미나	
6.23~28	독일	제6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7.2~4	싱가포르	ASEM 평생교육회의	
7.5~6	코펜하겐	제4차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7.15~16	인도네시아	IPAP 제6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산자부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7.16~17	인도네시아	제8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8.2~3	브루나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9.18~19	덴마크	제4차 경제장관회의	
9.19~20	덴마크	제7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9.23~24	핀란드	TFAP 제2차 전자상거래 세미나	산자부
9.22~24	덴마크	제4차 ASEM 정상회의	
10.31~11.1	쿠알라룸푸르	제12차 ASEF 이사회	
12월	벨기에	제8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2003년			
1.17~18	하노이	DDA 관련 협력대화	
1.28	브뤼셀	ASEM 조정국회의	
3.3~5	마닐라	ASEM 아동의 사법적 보호관련회의	
3.10~12	스웨덴	제2차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세계화와 ICT)	
3.10~13	말레이시아	제7차 감시작업반회의	재경부, 관세청
3.24~25	도쿄	다자적 및 지역 경제관계에 관한 아시아-유럽 대화	
4.6	로마	검역위생(식품검역)회의	농림부
4.11~12	로마	제2차 환경장관회의의 준비 SOM	환경부
4.28~5.4	제네바	TFAP 제5차 검역 및 위생회의	농림부
5.2~3	자카르타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5.6	마드리드	무역, 투자·금융 구제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한 Task Force	
5.8~9	베를린	제13차 ASEF 이사회	
5.12~13	자카르타	ASEM SOM	외교통상부
6.5	파리	IPAP 제7차 투자전문가그룹(IEG)회의	
6.5~6	파리	제9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6.7~8	발리	제5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6.17~18	제주도	2003 아시아-유럽 고등교육포럼	
7.5~6	발리	제5차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7.21~22	발리	ASEM SOM	
7.22~24	대련	제5차 경제장관회의	
7.23~24	발리	제5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8.24~29	호치민	제7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8월말	쿠알라룸푸르	제3차 TEIN 전문가회의	정통부
9.1~3	방콕	여성 아동 불법거래 관련 사업	여성부, 법무부
9.22~23	베이징	대테러 세미나	
9.22~23	대련	ASEM 농업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	
9.20~10.1	서울	제5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재경부, 관세청
10.12~13	이탈리아	제2차 환경장관회의	환경부
10.20~21	하노이	제3차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평화와 화해 : 성공과 교훈”	
10.23~24	베이징	ASEM 긴급 공중보건 세미나	보건복지부
10.27~29	서울	제8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11.2~5	싱가포르	ASEM 교육 허브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11.5~7	베이징	ASEM 고용의 미래 및 노동의 질 워크숍	
11.6~7	싱가포르	제14차 ASEF 이사회	
11.10~13	베이징	농업협력을 위한 ASEM 고위급 회의	
11.17~18	브뤼셀	Asia-Europe Consultative Seminar with Civil Society	
11.17~18	츠클라(일본)	교육교류에 관한 세미나	
12.2~4	베이징	제1차 문화문명장관회의	문화관광부
12.10~11	자카르타	제7차 통관절차작업반회의	재경부, 관세청
12월	호치민	제9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회의	산자부
2004년			
1.14	벨기에	TEIN 확대 관련회의	정통부
1.16	아일랜드	ASEM 조정국회의	
3.1~2	아일랜드	제6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3.2~3	하노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3.5	아일랜드	경제조정위원회	
3.1	하노이	ASEM 조정국회의	
3.12~13	방콕	무역, 투자 · 금융 구체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한 Task Force	
3.25~26	베트남	제3차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 회의(ASEP)	
4.16	아일랜드	ASEM SOM	외교통상부
4.17~18	아일랜드	제6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4.21~23	하노이	고용의 미래 관련 비공식 세미나	노동부
4.26	워싱턴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	재경부
5.17	바르셀로나	제5차 무역 · 투자 및 금융 Task Force회의	
5.20~21	쿠알라룸푸르	TEIN 전문가그룹회의	정통부
5.25		경제 조정위원회(화상회의)	재경부
5.27~28	아일랜드	제15차 ASEF 이사회	
6.1~2	베를린	고용 및 노동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	노동부
6.17~18	서울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6.29~30	중국	제10차 무역 · 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6.28~7.1	하노이	아시아-유럽 청소년 대화	
7.9	도쿄	ASEM 조정국회의	
7.13~15	자카르타	예금보험 시스템 및 가치평가에 대한 제2차 ASEM 발리 사업 워크숍	
9.15~16	소주	제6차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10.4~5	하노이	제9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전경련
10.5~6	하노이	ASEM SOM	외교통상부
10.7~8	하노이	제5차 ASEM 정상회의	
10.17~19	베를린	대테러 세미나	
10.21~11.2	도쿄	아시아-유럽 예술 캠프	
11.2~3	하노이	청정기술분야의 아시아-유럽 협력에 관한 워크숍	환경부
11.23	헤이그	ASEM 반환 및 재허가 정책 세미나	
11.24~25	하노이	제16회 ASEF 이사회	
11.24~25	헤이그	ASEM 이민국장회의	법무부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11.28~12.2	소주&베이징	ASEM 도시입업 워크샵	
11.29~12.2	네덜란드	제8차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12.18~19	발리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12.19~20	발리	제1차 종교간 대화 준비회의	
12.21	발리	ASEM 조정국회의	
2005년			
1.17~18	말레이시아	제2차 문화문명장관회의 준비회의	문화관광부
2.1	브뤼셀	ASEM Working Group	
2.1	도쿄	우수심사기준에 대한 ASEM 세미나	
2.2~3	도쿄	제11차 ASEM-TFAP 표준 및 적합성 회의	산자부
2.21~23	런던	TFAP 제4차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산자부
3.11~12	자카르타	ASEM SOM	외교통상부
3.12~13	자카르타	제1차 종교간 대화 2차 준비회의	
3.21~22	룩셈부르크	제2차 문화문명장관회의 2차 준비회의	문화관광부
4.18~19	룩셈부르크	ASEM 경제 조정국회의	
4.21~22	시안(중국)	제7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4.27~28	싱가포르	제8차 통관절차작업반 회의	재경부, 관세청
5.1~4	코펜하겐	ASEM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 연구 중심	
5.5	교토	ASEM SOM	외교통상부
5.6~7	교토	제7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5.26~28	탐페르(핀란드)	제17차 ASEF 이사회	
5.30~31	브뤼셀	제8차 감시작업반 회의	
6.2~8	방콕	ASEM Youth Games	
6.7~8	파리	제2차 문화문명장관회의	문화관광부
6.23~24	서울	ASEM 사이버 보안 워크샵	
6.25~26	텐진	제6차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6.27~29	피블스(스코틀랜드)	제6차 관세국장회의	관세청
7.18~19	칭다오	제10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7.21~22	발리	제1차 ASEM 종교간 대화	
9.7~11	하문(중국)	ASEM 무역·투자 박람회	
9.14~15	헬싱키	ASEM 10년 심포지엄	
9.15~16	로테르담	제6차 경제장관회의	
10.22~25	비엔나	ASEM 청소년 문화·문명 대화	문화관광부
11.13~14	세마랑(인도네시아)	제3차 ASEM 대테러회의	
11.20~26	텐진	아시아-유럽 젊은 정치 지도자 포럼	
11.22~23	호치민	HIV/AIDS 관리에 관한 ASEM 협력	보건복지부
11.29~30	런던	ASEM SOM	외교통상부
12.5~7	발리	제4차 이민국장회의	
12.7~9	마닐라	ASEM 해양사업 기술 실무회의	
12.9~12	선젠(중국)	ASEM 검찰국장 회의	
12.12~13	도쿄	아시아-유럽 협력 강화를 위한 ASEM의 역할회의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2006년			
1.17	도쿄	에너지에 관한 ASEM 세미나	
1.20~21	제주도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2.12~13	베를린	직업교육 관련 국장-전문가 회의 : 직업교육으로 인적자원 강화	
2.16~17	싱가포르	제18회 ASEF 이사회	
2.23~24	부다페스트	제7차 ASEM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	
2.27	도쿄	세계환경을 위한 사회활동에 관한 ASEM 워크숍	
3.7	비엔나	제2차 종교간 대화 준비회의	
3.7	비엔나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3.8	비엔나	ASEM SOM	외교통상부
3.9~11	비엔나	제8차 재무차관회의	재경부
3.29~31	마닐라	ASEM 해양 협력 사업(실무회의)	
4.8~9	비엔나	제7차 재무장관회의	
4.19	서울	보호 관세제도 및 지적 소유권에 대한 국제회의	
4.20~21	서울	제9차 ASEM 관세 시행 실무회의	
4.28	파리	ASEF 재정안정화를 위한 Task Force	
5.4~5	헬싱키	제4차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회의	
5.8	리스본	제1차 관광에 대한 ASEM 세미나	
5.8~13	브루나이	ASEM Youth Dialogue 2006	
5.21~22	싱가포르	ASEM Working Group	
5.3	파리	제3차 ASEM DUO 전문가회의	
6.8~9	하롱베이	ASEM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개발을 위한 ICT회의	
6.8	헬싱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워크숍	
6.18	하멜리나(핀란드)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6.18~19	하멜리나	ASEM SOM	외교통상부
6.26~27	코펜하겐	제4차 대테러 회의	
6.3	방콕	지역관련 세미나 및 지적재산에 관한 ASEM 실무회의	
7.3~5	라나카(사이프러스)	제2차 ASEM 종교간 대화	
7.25	쿠알라룸푸르	Open-ended 조정국회의	
7.31~8.1	쿠알라룸푸르	제3차 문화문명장관회의 1차 준비회의	문화관광부
9.3~5	포츠담(독일)	제1차 ASEM 노동장관회의	노동부
9.9	헬싱키	ASEM SOM	외교통상부
9.10~11	헬싱키	제6차 ASEM 정상회의	
9.10~11	헬싱키	제10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11.7~10	도쿄	제19차 ASEF 이사회	
11.30~12.1	하노이	정보통신기술(ICT)장관회의	방송통신 위원회
12.11~12	쿠오피오(핀란드)	제5차 이민국장회의	
12.19~21	브루나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2007년			
4.8~9	비엔나	제7차 ASEM 재무장관회의	기획재정부
4.12~13	자카르타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4.23~26	코펜하겐	제3차 환경장관회의	환경부
5.15~16	도쿄	제5차 대테러 회의	
5.28	함부르크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5.28	함부르크	ASEM SOM	외교통상부
5.28~29	함부르크	제8차 외무장관회의	외교통상부
6.4~5	스톡홀름	제2차 ASEM HIV/AIDS Workshop	
6.14~15	전북/무주	재무차관회의	기획재정부
6.19~21	난징	제3차 ASEM 종교간 대화	
9.26~28	씨엠립(캄보디아)	제8차 ASEM 인권관련 비공식 세미나	
10.4~5	바르샤바	제20차 ASEF 이사회	
10.24~28	코펜하겐	제2차 젊은 정치지도자회의	
10.29~30	길림성	ASEM SOM	외교통상부
10.30~31	베이징	제1차 ASEM 중소기업 장관회의	중소기업청
11.12~13	요코하마	제7차 관세 국장회의	
11.19~22	서울	제6차 이민국장회의	법무부
2008년			
3.2~3	류블랴나(슬로베니아)	ASEM SOM	외교통상부
3.10~11	본	ASEM 교육장관 SOM 회의	교육과학기술부
4.3~4	마드리드	제6차 대테러 회의	
4.11~12	하노이	제1차 에너지안보 정책 포럼	
4.15~16	마리보(슬로베니아)	제11차 ASEM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4.21~24	쿠알라룸푸르	제3차 문화문명장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4.22~23	발리	제21차 ASEF 이사회	
5.5~6	베를린	제1차 교육장관회의	교육과학기술부
6.3~4	제네바	제2차 ASEM 노동장관회의 준비회의	노동부
6.3~5	암스테르담	제4차 종교간대화	
6.12~13	브루나이	아시아 SOM	외교통상부
6.15	제주	재무차관회의	기획재정부
6.15	제주	지역경제통합관련 ASEM 회의	기획재정부
6.16	제주	제8차 재무장관회의	기획재정부
6.23~27	반둥(인도네시아)	제2차 아시아-유럽 청소년 종교간대화	
6.29~30	베이징	ASEM SOM	외교통상부
6.30~7.1	브뤼셀	제1차 ASEM Social Partners Forum	
9.11~12	호치민	아시아-유럽 관광 포럼	
9.23~24	옌타이(중국)	제1차 ASEM 수산 포럼	
10.2~3	도쿄	ASEM 기후변화 적응 세미나	
10.14~16	발리	제2차 ASEM 노동장관회의	
10.13~17	베이징	제7차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10.21~23	베이징	제11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	
10.24~45	베이징	제7차 ASEM 정상회의	
11.17~18	파리	제7차 이민국장회의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12.15~16	하노이	ASEM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세미나	
2009년			
2.2~3	프라하	ASEM SOM	
2.6~12	방콕, 아유타야	ASEM Interfaith Cultural Youth Camp Project	
2.18~20	스트라스부르	제9차 ASEM 인권관련 비공식 세미나	
3.5~6	타란토	ASEM 지뢰 제거 및 인간안보 세미나	
3.17~17	포츠담	High-level ASEM-CRS Conference 2009	
4.20~21	마닐라	ASEM 개발 컨퍼런스	
4.28~29	브뤼셀	제2차 ASEM 수산 포럼	
5.14~15	하노이	제2차 ASEM 교육장관회의	
5.15~26	하노이	제9차 ASEM 외무장관회의	
6.17~18	브뤼셀	제1차 에너지안보장관회의	
6.22~23	마닐라	제7차 대테러회의	
9.2~8	베이징	1st ASEM Culture and Arts Festival	
9.23~25	서울	제5차 ASEM 종교간 대화	
10.7~8	요그야카르타	ASEM Training on Empowering Local Community in Use of ICT	
10.8~10	크라쿠프	제4차 문화장관회의 준비회의(1차)	
10.15~16	헤라클리온	제8차 관세국장회의	
10.18~20	쿠알라룸푸르	ASEM Conference: Beyond the Global Crisis: A New Asian Growth Model	
10.19~20	빌리우스	제1차 교통장관회의	
11.4~5	하노이	ASEM Workshop on Sharing Experiences on Preparedness to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Emerging Diseases	
11.18~19	발리	ASEM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Competency Standards	
12.1~2	쿠알라룸푸르	ASEM Workshop on Building an 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2010년			
1.25	마드리드	ASEM SOM	
3.29~30	브뤼셀	ASEM Employment High Level Forum	
3.3	도쿄	ASEM Seminar: Asia-Europe Learning Mutually-Asia-Europe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4.7~9	마드리드	제6차 종교간 대화	
4.15~17	솔로 (인도네시아)	제4차 문화장관회의 준비회의(2차)	
4.17~18	마드리드	제9차 재무장관회의	
4.26~27	나트랑	ASEM 경제협력 및 개발 포럼	
4.28~29	하롱	ASEM Workshop on Coordinating culture activities for the enhancement of ASEM visibility	
5.4~5	프놈펜	ASEM Conference on Forests, Forest Government and Forest Products Trade: Scenarios and Challenges for Europe and Asia	
5.5	하노이	ASEM Customs-Trade Day	
5.5~6	프놈펜	ASEM SOM	
5.5~6	브뤼셀	ASEM 해적 세미나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비고(관련부처)
5.6~7	하노이	4th Meeting of the ASEM Working Group on Customs Matters(AWC)	
5.6~8	서울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5.19	프라하	ASEM Seminar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5.26~27	요그야카르다	제2차 ASEM 개발 컨퍼런스	
6.10~11	브뤼셀	제8차 대테러회의	
6.23~24	브뤼셀	ASEM Negotiation Se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6.24~25	브뤼셀	ASEM Negotiation Session on Piracy at Sea	
7.5~7	호치민	ASEM 식량 안보 포럼	
7.7~9	마닐라	제10차 ASEM 인권관련 바공식 세미나	
7.12~13	브뤼셀	ASEM Conference on EU-Asia Inter-regional Relations	
7.13~15	브뤼셀	ASEM SOM	
7.20~21	반둥	ASEM Forum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moting ICT Research for Development	
9.6~7	하롱	ASEM Forum on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Measures	
9.8~10	포즈나뉴	제4차 문화장관회의	
9.27~28	니스	ASEM Workshop on Social Protection Floor and the Informal Economy	
10.2~3	브뤼셀	제4차 아시아-유럽 시민사회회의	
10.2~5	브뤼셀	제8차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10.3	브뤼셀	ASEM SOM	
10.4	브뤼셀	제12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	
10.4~5	브뤼셀	제8차 ASEM 정상회의	
10.27~29	자카르타	ASEM Governors and Mayors Meeting	



역대 정상회의 참석자 명단

가. 제1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Kim Young Sam
	말레이시아	총리	Mahathir bin Mohamad
	베트남	총리	Vo Van Kiet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 Bolkiah
	싱가포르	총리	Goh Chok Tong
	인도네시아	대통령	Soeharto
	일본	총리	Ryutaro Hashimoto
	중국	총리	Li Peng
	태국	총리	Banharn Silpa-Archa
	필리핀	대통령	Fidel V. Ramos
유 럽	그리스	총리	Konstantinos Simitis
	네덜란드	총리	Wim Kok
	덴마크	총리대행(외무장관)	Niels H. Petersen
	독일	총리	Helmut Kohl
	룩셈부르크	총리	Jean Claude Juncker
	벨기에	총리	Jean-Luc Dehaene
	스웨덴	총리대행(외무장관)	Hjelm-Walle
	스페인	총리대행(외무장관)	Carlos Westendorp
	아일랜드	총리	John Bruton
	영국	총리	John Major
	오스트리아	총리	Franz Vranitzky
	이탈리아	총리	Antonio Maccanico
	포르투갈	총리	Antonio Guterres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총리	Paavo Lipponen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Jacques Santer

나. 제2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Kim Dae-jung
	말레이시아	총리	Mahathir bin Mohamad
	베트남	총리	Phan Van Khai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 Bolkiah
	싱가포르	총리	Goh Chok Tong
	인도네시아	대통령대행(부통령)	Bacharuddin Jusuf Habibie
	일본	총리	Ryutaro Hashimoto
	중국	총리	Zhu Rongji
	태국	총리	Chuan Leekpai
	필리핀	대통령대행(상원의장)	Neptali Gonzales
유 럽	그리스	총리	Konstantinos Simitis
	네덜란드	총리	Wim Kok
	덴마크	총리대행(외무장관)	Niels H. Petersen
	독일	총리	Helmut Kohl
	룩셈부르크	총리	Jean Claude Juncker
	벨기에	총리	Jean-Luc Dehaene
	스웨덴	총리	Göran Persson
	스페인	총리	José Maria Aznar Lopez
	아일랜드	총리	Ertie Ahern
	영국	총리	Tony Blair
	오스트리아	총리	Franz Vranitzky
	이탈리아	총리	Romano Prodi
	포르투갈	총리	Antonio Guterres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총리	Paavo Lipponen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Jacques Santer

다. 제3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Kim Dae-jung
	말레이시아	총리	Mahathir bin Mohamad
	베트남	총리대행(부총리)	Nguyen Manh Cam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 Bolkiah
	싱가포르	총리	Goh Chok Tong
	인도네시아	대통령	Abdurrahman Wahid
	일본	총리	Yoshiro Mori
	중국	총리	Zhu Rongji
	태국	총리	Chuan Leekpai
	필리핀	대통령대행(외무장관)	Domingo Siazon Jr.
유 럽	그리스	총리대행(교체외무장관)	Elissavet Papazoi
	네덜란드	총리	Wim Kok
	덴마크	총리	Poul Nyrup Rasmussen
	독일	총리	Gerhard Schröder
	룩셈부르크	총리	Jean-Claude Juncker
	벨기에	총리대행(부총리)	Louis Michel
	스웨덴	총리	Göran Persson
	스페인	총리	José Maria Aznar Lopez
	아일랜드	총리	Bertie Ahern
	영국	총리	Tony Blair
	오스트리아	총리	Wolfgang Schüssel
	이탈리아	총리	Giuliano Amato
	포르투갈	총리	Antonio Guterres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대통령	Tarja Kaarina Halonen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Romano Prodi

라. 제4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Kim Dae-jung
	말레이시아	총리	Dato SeriDr. Mahatir bin Mohamad
	베트남	총리	Phan VanKhai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Bolkiah
	싱가포르	총리	Goh ChokTong
	인도네시아	대통령대행(경제조정장관)	Dorodjatun Kuntjoro-Jakti
	일본	총리	Koizumi Junichiro
	중국	총리	Zhu Rongji
	태국	총리	Thaksin Shinawatra
	필리핀	대통령대행(외교장관)	Blas Ople
유 럽	그리스	총리	Constantinos Simitis
	네덜란드	총리	Jan PeterBalkenende
	덴마크	총리	Anders F.Rasmussen
	독일	총리대행(덴마크 주재 독일 대사)	Johannes Dohmes
	룩셈부르크	총리	Jean-Claude Juncker
	벨기에	총리	Guy Verhofstadt
	스웨덴	총리	Göran Persson
	스페인	총리	José MariaAznar Lopez
	아일랜드	총리	Bertie Ahern
	영국	총리대행(부총리)	John Prescott
	오스트리아	총리	Wolfgang Schüssel
	이탈리아	총리	Silvio Berlusconi
	포르투갈	총리	Jose ManuelDurao Barroso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총리	Paavo Lipponen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Romano Prodi

마. 제5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Roh Moo-hyun
	라오스	총리	Bounnhang Vorachith
	말레이시아	총리	Dato Seri Abdullah bin Haji Ahmad Badawi
	미얀마	총리대행(노동부장관)	U Tin Winn
	베트남	총리	Phan Van Khai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i Bolkiah
	싱가포르	총리	Lee Hsien Loong
	인도네시아	대통령대행(외무장관)	Hassan Wirajuda
	일본	총리	Koizumi Junichiro
	중국	총리	Wen Jiabao
	캄보디아	총리	Samdech Hun Sen
	태국	총리	Thaksin Shinawatra
	필리핀	총리	Gloria Macapagal Arroyo
유 럽	그리스	총리대행(외무장관)	Petros G. Molyviatis
	네덜란드	총리대행(외무장관)	Bernard Rudolf Bot
	덴마크	총리대행(외무장관)	Per Stig Moller
	독일	총리	Gerhard Schröder
	라트비아	총리	Indulis Emsis
	룩셈부르크	총리	Jean-Claude Juncker
	리투아니아	총리대행(외무장관)	Antanas Valionis
	몰타	총리대행(부총리)	Tonio Borg
	벨기에	총리대행(개발협력장관)	Armand De Decker
	사이프러스	총리대행(외무장관)	Georgios Iacovou
	스웨덴	총리	Göran Persson
	스페인	총리대행(제1부총리)	Maria Teresa Fernandez
	슬로바키아	총리대행(외무장관)	Eduard Kukan
	슬로베니아	총리대행(유럽장관)	Milan Martin Cvikl
	아일랜드	총리	Bertie Ahern
	에스토니아	총리	Juan Parts
	영국	총리대행(부총리)	John Prescott
	오스트리아	총리	Wolfgang Schüssel
	이탈리아	총리대행(부총리)	Gianfranco Fini
	체코	총리대행(외무장관)	Cyril Svoboda
	포르투갈	총리대행(부총리겸경제장관)	Alvaro Barreto
	폴란드	총리	Marek Belka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총리	Vanhanen Matti Taneli
	헝가리	총리대행(정무차관)	Barsony Andras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Romano Prodi

바. 제6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Roh Moo-hyun
	라오스	총리	Bouasone Bouphavanh
	말레이시아	총리	Dato's Seri Abdullah Ahmad Badawi
	미얀마	총리대행(외무장관)	U Nyan Win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 Bolkiah
	싱가포르	총리	Lee hsien long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
	일본	총리	Junichiro Koizumi
	중국	총리	Wen Jiabao
	캄보디아	총리	Samdech Hun Sen
	태국	총리	Thaksin Shinawatra
	필리핀	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
유 럽	그리스	총리	Kostas Karamanlis
	네덜란드	총리	Jan Peter Balkenende
	덴마크	총리	Anders Fogh Rasmussen
	독일	총리	Angela Merkel
	라트비아	대통령	Vaira Vike-Freiberga
	룩셈부르크	총리	Jean-Claude Juncker
	리투아니아	대통령	Valdas Adamkus
	몰타	총리	Lawrence Gonzi
	벨기에	총리	Guy Verhofstadt
	사이프러스	대통령	Tassos Papadopoulos
	스웨덴	총리대행(부총리)	Bösse Ringholm
	스페인	총리	José Luis Rodriguez Zapatero
	슬로바키아	총리	Robert Fico
	슬로베니아	총리	Janez Jansa
	아일랜드	총리	Bertie Ahern
	에스토니아	총리	Andrus Ansip
	영국	총리대행(부총리)	John Prescott
	오스트리아	총리	Wolfgang Schussel
	이탈리아	총리	Romano Prodi
	체코	총리	Mirek Topolánek
	포르투갈	총리	José Sócrates
	폴란드	총리	Jaroslav Kaczyński
	프랑스	대통령	Jacques Chirac
	핀란드	총리	Matti Vanhanen
	헝가리	총리대행(외무장관)	Kinga Göncz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행	José Manuel Barroso

사. 제7차 ASEM 정상회의 참석자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아시아	대한민국	대통령	Lee Myung-bak
	라오스	총리	Bouasone Bouphavan
	말레이시아	총리	Dato Seri Abdulah bin Haji Asmad Badawi
	몽골	대통령	Nambaryn Enkhbayar
	미얀마	총리대행(외무장관)	U Nyan Win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
	브루나이	국왕	Haji Hassanal Bolkiah
	싱가포르	총리	Lee Hsien Loong
	인도	총리	Manmohan Singh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
	일본	총리	Aso Taro
	중국	총리	Wen Jiabao
	캄보디아	총리	Hun Sen
	태국	총리	Somchai Wongsawat
	파키스탄	총리	Yusuf Raza Gilani
	필리핀	대통령	Gloria Macapagal-Arroyo
유 럽	ASEAN사무국	사무총장	Surin Pitsuwan
	그리스	총리대행(외무차관)	Yiannis Valinakis
	네덜란드	총리	Jan Peter Balkenende
	덴마크	총리	Anders Fogh Rasmussen
	독일	총리	Angela Merkel
	라트비아	총리	Ivars Godmanis
	루마니아	대통령대행(외무장관)	Lazar Comanescu
	룩셈부르크	대통령	Jean-Claude Juncker
	리투아니아	대통령대행(외무장관)	Petras Vaitiekūnas
	몰타	총리	Lawrence Gonzi
	벨기에	총리	Yves Leterme
	불가리아	대통령	Georgi Parvanov
	사이프러스	대통령	Demetris Christofias
	스웨덴	총리	Fredrik Reinfeldt
	스페인	총리	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슬로바키아	총리대행(외무장관)	Jan Kubis
	슬로베니아	총리	Danilo Türk
	아일랜드	총리	Brian Cowen T. D.
	에스토니아	총리	Andrus Ansip
	영국	총리대행(외무장관)	David Miliband
	오스트리아	총리	Alfred Gusenbauer
	이탈리아	총리	Silvio Berlusconi
	체코	총리대행(부총리)	Alexandr Vondra

지 역	국 명	정 상	
		직 위	성 명
유 럽	포르투갈	총리대행(외무장관)	Luis Amado
	폴란드	총리	Donald Tusk
	프랑스	대통령	Nicholas Sarkozy
	핀란드	대통령	Tarja Halonen
	헝가리	총리대행(외무장관)	Kinga Goncz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José Manuel Barroso

1.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sia-Europe Vision Group: AEVG)

가. 개 관

- 제1차 정상회의(1996년 3월)에서 우리나라는 ASEM의 중·장기적 발전에 민간부문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비전그룹 창설 제안
 - 아시아-유럽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ASEM의 중·장기적 비전과 함께 ASEM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
- 제1차 외무장관회의(1997년 2월)시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제2차 정상회의(1998년 4월)에서 공식 출범, 제2차 외무장관회의(1999년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활동 종료
 - 우리나라는 비전그룹 대표로 사공일 전 재무장관을 위촉하였으며 비전그룹 의장직을 수임(각국당 1명 참가)
- 제2차 외무장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는 외무장관들의 검토의견과 함께 2000년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됨

나. 비전그룹 보고서 주요 내용

(1) 주요 중·장기 비전

- 아시아-유럽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생활권’으로 점진 통합, 양 지역간 지식, 문화 유산, 민주적 이상, 지적 염원 및 신기술 등 자유교류 및 융화
 - 아시아-유럽 지식세력간의 활발한 통합 및 문화·예술 교류
 - 2025년까지 양 지역간 학생 교류 5배 증진
 - 2025년까지 양 지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단계적 자유화
 - 심각한 환경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 2025년까지 아시아-유럽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개방
 - 개별 ASEM 국가의 개발수준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개방화의 전략적 framework 채택
 - 뚜렷한 기한 명시 및 구체적 목표 수립
 - 모든 분야, 산업, 시장에 걸친 자유화
- 국제 금융제도 개혁
 - ‘유로화’ 도입 환영, 주요국간 보다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조정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세계화에 대한 공동 대응(Bretton Woods 체제의 조정기능 강화, 외환관리, 단기자본 이동의 투명성 강화 등)

- 투자 증진을 위한 아시아-유럽 경영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
 - 정부 지도자 및 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고위급 대화창구 역할
 - 투자, 무역 및 시장접근 관련 문제 논의
- ASEM 인프라 개선
 -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수도, 환경 등 각 주요 분야별 인프라 개선
 - 특히 자유화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모든 운송수단의 확충, 보호주의 배격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등을 통해 업체간 자유 경쟁을 장려
- ASEM 정보기술위원회 설립
 - 기술규격, 전자통역 소프트웨어, 위성 TV방송 등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역간 장벽 해소
- ASEM 환경센터 설립
 - 보다 긴밀하고 장기적인 환경협력 도모
 - 구체적인 목표 설정, 지속적인 감독 기능, 다른 환경 프로그램과의 조화 등을 위한 환경협력의 제도화
- 고급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교육에 관한 2000년 정상선언
 - 향후 5년 이내에 아시아-유럽간 유학생 수의 균형 달성
 - 2025년까지 유학생 수의 5배 확대
 - 유럽 및 북미에 유학중인 아시아 학생 수의 비율 개선
- ASEM 장학생 제도 도입
 - 석사과정 이상의 최우수 학생을 선발, 지역간 교환(초기에는 매년 200명으로 시작)
- Good Governance 원칙 지지
 -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의 존중/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권리의 존중/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및 관행의 설립 및 유지
 - 아시아-유럽간 Good Governance와 인권에 관한 대화 추진

(2) 여타 정책권고(Other Recommendations) - 22개

- 차기 무역 라운드 협력
 - 다자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차기 무역 라운드 협상시 공동협력
- 투명성 강화 및 철저한 금융감독 위한 세계규범 형성
 - 외환보유고,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대외 부채 규모, 금융기관의 건실성 등 정보의 투명성 강화
 - 기업 및 금융기관 재무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및 포괄성 제고, 국제기준과의 일치
 - WTO 체제 내에서 회계 및 금융 서비스의 자유화 촉진
- 아시아-유럽 무역주간 개최
 - ASEM 정상회의와 연계, 매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

- 전자상거래에 관한 ASEM 작업계획
 -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관련규범 제정 노력
- 투자 촉진
 - ASEM 회원국 중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치국가들의 사례 벤치마킹
- ASEM 중역간부 자문네트워크(Advisory Network of Senior Executives)
 - 비영리 목적에서 현직 또는 퇴직한 중역들로 구성, 중소기업의 경영 자문
- 항공협정 체결 및 항공우주 개발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송체계를 위한 항공운송 자유화
 - 항공장비 생산 및 관리 분야에서의 항공우주 개발 협력
- 에너지 협력
 - 천연가스, 원자력, 청정 석탄 기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풍력, 태양열 등) 활용 등 관련 기술개발 협력
- 가상기술이전센터설립 및 기술이전센터간 협력
 - 새로운 기술정보, 재원, 합작사업 등의 정보교류 확산
- “시장성 없는” 기술 후원 – 의료복지 해법
 - 수요가 충분치 않아 연구개발이 미진한 의약품(orphan drugs)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경제원조 협력
 - ASEM 역내 국가들의 개발경험 활용한 제3국에 대한 경제원조
- ASEM 교육장관 및 대학총장 포럼 개최
 - ASEM 교육교류 관련사업 논의, 성공사례 연구 및 검토
- 복수학위제도 도입, 다국어 국제강좌 개설, 학위 상호인정 및 교류증진을 위한 교육관련 법제 단순화, 아시아-유럽 관련 교육과목 증설을 위한 조사 등
- ASEM 객원교수제도 시행
- 사회교류포럼으로서의 ASEF 강화
- 격년제 ASEM 문화축제 개최
-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ASEM 쌍둥이도시(Twin Cities) 교류
- 아시아-유럽간 정치·안보 대화 촉진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간의 협력 모색
-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공동 훈련소 및 시설 지정
- 아시아 국가간 대화 증진
 - 경제 및 정치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효율적 대화 및 고위관리회의 활용

- 사회적 불균형 해소
 -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특히, 여성인력) 및 기술 재교육, 평생교육 기회 확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주력
 -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ASEM Trust Fund의 기여 환영
- ASEM 사무국 설치
 - ASEM 과정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작지만 효율적인 사무국' 설치 필요

다.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회의(Asia-Europe Vision Group Meeting)

● 주요 경과

제1차 비전그룹회의	1998.4.5~6, 영국	제4차 비전그룹회의	1999.1.8~9, 일본
제2차 비전그룹회의	1998.7.2~3, 싱가포르	제5차 비전그룹회의	1999.2.6~7, 포르투갈
제3차 비전그룹회의	1998.10.3~5, 이탈리아		

2.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 TFAP)

가. 추진 경과

- 제2차 정상회의(1998년 4월, 런던)에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채택

나. 원칙 및 목표

- 무역원활화에 대한 이행증진 및 촉매역할
- 비차별
- 무역원활화를 위한 다자 및 양자적 노력에 대한 지원
- 여타 협력채널(Fora)에서의 작업과 보완 및 중복 지양
- 회원국간 중소기업지원 강조
- 민간부문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및 규제완화

다. 우선추진 8개 분야

- 통관절차, 표준적합평가,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검역 및 위생,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2000년 5월 서울 SOMTI에서 추가), 여타 무역활동

라. TFAP 간사국 및 주도국 현황

(1)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가 간사국 및 TFAP 분야별 주도국의 협조하에 TFAP 이행을 감독

(2) 간사국(Shepherds)

● EU측 : EU 집행위원회 및 의장국

● 아시아측 : 한국, 필리핀

※ 간사국 역할의 모호성 및 조정국(Coordinator)과의 중복으로 활동이 없는 상태

(3) 8개 분야별 주도국(Facilitators)

분 야	주도국 현황	
	아 시 아	유 럽
통 관 절 차	일 본	E C
표준적합평가	한국/태국	E C
공 공 조 달	일 본	독 일
검역 및 위생	중국/태국	네덜란드/EC
지 적 재 산 권	태 국	프 랑 스/EC
기업인 이동	AEBF에서 논의	
전 자 상 거 래	한 국	핀 란 드/EC
여타 무역활동	싱가포르	벨 기 에

마. 최근 동향

(1) 분야별 세미나 개최현황(2008년 10월 현재)

● 통관절차

〈관세행정책임자회의〉		〈통관절차작업반회의〉		〈감시작업반회의〉	
1996. 6	중국(1차)	1997. 3	벨기에(1차)	1997. 2	벨기에(1차)
1997. 6	오스트리아(2차)	1998. 3	벨기에(2차)	1998. 2	벨기에(2차)
1999. 6	벨기에(3차)	1999. 2	필리핀(3차)	1999. 2	벨기에(3차)
2001. 7	스웨덴(4차)	2000. 4	벨기에(4차)	2000. 2	벨기에(4차)
2003. 9	한국(5차)	2001. 4	태국(5차)	2001. 3	벨기에(5차)
2005. 6	스코틀랜드(6차)	2002. 3	벨기에(6차)	2002. 2	말레이시아(6차)
2007. 11	일본(7차)	2003.12	인도네시아(7차)	2003. 3	말레이시아(7차)
		2005. 4	싱가포르(8차)	2005. 5	벨기에(8차)
		2006. 9	폴란드(9차)	2006. 4	한국(9차)
		2007. 3	말레이시아(10차)	2007. 5	독일(10차)
〈세관 작업반회의〉					
2008. 5	프랑스(1차)				

※ 2007.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SEM 관세행정 책임자회의에서 기존의 통관절차 작업반과 감시작업반을 세관 작업반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 표준 적합평가

1998. 9	벨기에(1차)
1999. 3	한국(2차)
1999. 10	벨기에(3차)
2000. 2	태국(4차)
2000. 10	벨기에(5차)
2001. 11	벨기에(6차)
2002. 4	중국(7차)
2002. 12	벨기에(8차)
2003. 12	베트남(9차)
2004. 4	벨기에(10차)
2005. 2	일본(11차)
2006. 5	오스트리아(12차)
2007. 5	인도네시아(13차)

● 공공 조달

1999. 9	독일(1차)
2001. 3	일본(2차)

● 검역 및 위생

1999. 2	태국(1차)
1999. 11	중국(2차)
2000. 9	네덜란드(3차)
2002. 6	네덜란드(4차)
2003. 4	스위스(5차)

● 지적 재산권

1999. 6	프랑스(1차)
2000. 3	태국(2차)
2002. 5	베트남(3차)
2004. 6	태국(4차)
2006. 6	태국(5차)

● 전자상거래

2001. 10	한국(1차)
2002. 9	핀란드(2차)
2003. 10	한국(3차)
2005. 2	영국(4차)
2006. 11	중국(5차)

● 기업인 이동

AEBF를 통해 논의 및 추진

● 여타 무역활동

1999. 5 벨기에 및 싱가포르가 유통분야 보고서 제출

(2) 'The Future of TFAP' 채택

- 1999년 10월 제2차 경제장관회의시 2000년 이후 TFAP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The Future of TFAP' 채택
 - 비관세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TFAP 우선추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국이 경험해 온 주요무역장벽을 확인, 목록화
 - 각 회원국은 동 목록을 근거로, 무역장벽 감소를 위한 활동 실적을 SOMTI에 자발적으로 보고, 논의
- 회원국의 '무역장벽 목록' 채택(2000년 5월 서울 제5차 SOMTI)
 - 상기 '무역장벽 목록'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7~8차 SOMTI시 논의 진행
 - 상기 논의는 회원국간 peer pressure를 유도, 무역장벽 완화 노력에 기여

(3) TFAP 성과사업 평가 및 향후 목표 수립

- 제3차 ASEM 정상회의시 1998년~2000년간 TFAP 성과사업(deliverables)을 평가하고, 2000년~2002년 TFAP 성과사업 목표를 승인
-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TFAP 2000년~2002년간 성과사업을 평가하고, 2002년~2004년간 TFAP 성과 사업 목표를 승인

- 2005년 9월 로테르담 ASEM 경제장관회의의 관련 고위급회의에서 제10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2005년 7월, 청다오)에서 채택된 ASEM 경제분야 활동 평가보고서 및 TFAP 2005년~2006년간 목표를 승인
 - ASEM 경제분야 활동 평가보고서는 2002년~2004년간 TFAP 산하그룹 중 통관 절차, 표준적합, 지적 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그룹은 활동이 활발했던 반면, 공공조달, 기업인 이동, 위생 및 검역그룹은 활동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
- 2008년 4월 슬로베니아 마리보에서 개최된 제11차 ASEM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에서 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 그룹 활동 보고서 승인, 향후 TFAP 구체목표(안)을 차기 경제장관회의승인을 목표로 회기간 논의 중

3. 투자촉진 행동계획(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가. 경 과

- 제1차 정상회의(1996년 3월, 방콕)에서 제안되어, 투자촉진 행동계획 작성을 위한 민관 작업반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동 논의를 바탕으로 1997년 7월 채택

나.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 민·관간 대화 및 협력강화
- 시장경제원리 및 필요한 제도 개선에의 약속
- 개방적 다자간 교역체제의 이익 확인
- 비차별 자유화 및 투명성 제고
- 개방적 지역주의
- WTO와의 일치 및 WTO 무역·투자 작업반 활동지원
- 기타 다자간 협정과 일치성 유지

(2) 목 표

-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기업활동 관련 민·관 협력체제 발전, 인적 교류확대, 규제완화 및 투자정책 개선을 통한 양 지역간 투자활동 추진,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투자관련 인프라 개선, 기업간 연계 강화, 정보망 구축

다. 주요 사업

- Pillar 1 : 투자촉진 행동계획(민간주도)
 - 화상정보 교환(AIO: ASEM Invest Online)
 - 기업 경영자 회의(Decision Makers' Roundtable)

- 민간기업인간 교류 계획(Business to Business Exchange)
- ASEM Connect
- Pillar 2 : 투자정책 및 제도 관련 행동계획(정부주도)
 - 투자관련 의제에 대한 고위급 대화 실시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경제장관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밑에 ‘ASEM 투자전문가 그룹 (Investment Experts Group: IEG)’ 설치 운영
- 투자전문가그룹(IEG) 회의 개최 실적

제1차 회의	1998.11.23~24,	프랑스	제5차 회의	2001.7.3~4,	벨기에
제2차 회의	1999.2.11,	싱가포르	제6차 회의	2002.7.15~16,	인도네시아
제3차 회의	1999.6.5~6,	벨기에	제7차 회의	2003.6.5,	프랑스
제4차 회의	2000.5.11~12,	한국			

※ 제5차 경제장관회의시 IEG 활동을 종료하고 ICP(Investment Contact Point)를 통해 투자업무를 조성해 나가기로 결정

라. 최근 동향

- 2004년 5월 일본과 프랑스 공동 주최로 도쿄에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세미나 개최
- 2005년 9월 중국 하문에서 ASEM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 2007년 10월 중국 청도에서 ASEM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4. 아시아 – 유럽 비즈니스 포럼 (Asia–Europe Business Forum)

가. 추진 경과

- 제1차 방콕 정상회의(1996년 3월)시 프랑스의 제안으로 아시아–유럽 민간기업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양지역간 무역과 투자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AEBF 창설에 합의
- ASEM 회원국 민간 기업인뿐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간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
- 비즈니스 포럼은 연 1회 개최되어 오다가 2004년 제9차 회의부터는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격년 개최로 변경
- 회의 개최실적

제1차 회의	1996.10.14~15,	파리	제7차 회의	2002.9.18~20,	덴마크
제2차 회의	1997.11.13~14,	방콕	제8차 회의	2003.10.27~29,	서울
제3차 회의	1998.4.2~3,	런던	제9차 회의	2004.10.4~5,	하노이
제4차 회의	1999.9.29~10.1,	서울	제10차 회의	2006.9.10~11,	헬싱키
제5차 회의	2000.9.29~30,	비엔나	제11차 회의	2008.10.21~23,	베이징
제6차 회의	2001.10.7~9,	싱가포르	제12차 회의	2010.10.4	브뤼셀

나. 주요 목적

- 아시아-유럽의 민간기업간 교역 및 투자협력방안 강구
-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 논의
-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 반영

다. 회의운영 및 조직

- 분과위(무역, 투자 및 인프라, 금융, 정보통신, 생명과학 및 의료, 식품 환경 등)별로 각국 대표위원단간 토론 방식으로 회의 진행
- AEBF 총회에서 작성된 성명서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시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로써 전달

라. 제11차 AEBF 개최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21~23일, 중국 북경
 - 제7차 ASEM 정상회의(10.24~25)와 연계하여 개최
- 참석자 : ASEM 45개국 정부 및 기업 인사 4~500여명
 - EU 27개국, 아시아 16개국, EU집행위, ASEAN 사무국
- 주 최 : 중국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주 제 : “Seize the Trend, Time for Ac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 분과위 구성 : 무역 · 투자/금융/에너지/중소기업/환경 · 기후변화 등 5개 분과위

(2) 주요 결과

- AEBF는 의장성명서를 통해 금융안정, 에너지 협력, 중소기업 육성발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권고안 발표

마. 제12차 AEBF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3~5, 벨기에 브뤼셀
 - 제8차 ASEM 정상회의(10.4~5)와 연계하여 개최
- 참석자 : ASEM 48개국 회원국 기업인사 및 초청연사 등 400여명
 - EU 27개국, 아시아 16개국, EU집행위, ASEAN 사무국 및 신규가입국(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 주 최 : 벨기에경제인연합회(FEB, the Federation of Enterprises in Belgium)
- 주 제 : “Financial Services Industr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sia and Europe”

5. ASEM 신탁기금 (ASEM Trust Fund)

가. 개 요

- ASEM 신탁기금은 제2차 ASEM 정상회의(1998년 4월, 런던)시 영국의 제안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들의 금융·기업 구조개혁과 사회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조성한 기금

나. 1단계 ASEM 신탁기금

- 4500만 미불 규모로 조성, 1998년~2001년까지 운용
- 한국은 제1기 ASEM 신탁기금으로부터 총 9개 사업에 걸쳐 약 499만불을 수혜 받았으며, 이는 전체 기금(약 4500만불)의 11% 수준
 - World Bank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 능력 강화(3건), 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1건), 사회복지정책 능력 강화(5건) 등 9개 사업 완료
- 제1차 신탁기금 평가
 - ATF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ASEM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좋은 예이며,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됨.

다. 2단계 ASEM 신탁기금

- 2000년 10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정
- 제3차 재무장관회의(2001년 1월, 고베)시 기금 운영계획 개요(Outline of Modality) 승인
- 약 3,800만불로 조성, 2002년~2004년간 운용
 - EU 집행위원회 1,758만불(57.4%), 영국 717.7만불(23.4%), 이탈리아 175.8만불(5.7%), 덴마크 100만불(3.3%), 스웨덴 96.9만불(3.2%), 프랑스 87.9만불(2.9%), 한국 50만불(1.6%), 중국 50만불(1.6%), 핀란드 30.4만불(1.0%)
 - ※ 2004년 ASEM 신탁기금 평가회의에서 기금 운용시한을 2006년말까지 연장
- 우리(외교부)는 2002년 9월 50만불 기여
 - World Bank와 신탁기금 공여를 위한 협정 및 부속서에 서명
 - 또한 1차 Fund시와 달리 2차 Fund시에는 수혜받지 않음
- ASEM 신탁기금 2단계(2002년~2005년) 사업진행에 있어서 수혜국조정위(In-country Steering Committee) 구성 관련, 공여국의 조정위 참여를 허용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조정위 참여를 희망하여 중국 및 World Bank측과 합의

라. 2005년 평가회의 결과(2005.4.18, 워싱턴)

- 신탁기금 공여현황
 - 총 가용자금 4,040만불 중 97%에 해당하는 3,920만불이 73개 프로젝트 사업에 배정

- 국가별로는 베트남(23%),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상 각각 18%), 필리핀(15%) 순으로 기금이 배정되었으며, 여타 지역사업에도 일부(9%) 배정

마. 최근 현황

- 2008년 1월 2단계 기금 잔여분 환급 등 절차를 거쳐 ASEM 신탁기금 운용종료

6.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 Trans – Eurasia Information Network)

가. 개 요

- TEIN은 아시아·유럽간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ASEM 협력사업
 - ※ 제3차 ASEM 정상회의('00.10월, 서울)시 한국 주도로 제안 및 채택
- 「TEIN 1」 ('00.10월~'06.1월) 및 「TEIN 2」 ('04.1월~'08.12월)를 거쳐 현재 「TEIN 3」 (08.1월~11.12월)로 확대 운영중

나. 추진 경과

- TEIN의 초기 성과를 토대로 '04년 유럽집행위(EC)는 TEIN의 확대·발전을 위해 '04~'07년간 1천만유로(약140억원)를 투자하는 TEIN 2 사업을 개시
 - '03년 9월 방한한 EU 정보사회국 집행위원장 Erikki Liikanen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
 - TEIN 2는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의 확대 및 아시아·유럽 대륙간 연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유럽 30여 개국과 아시아 10개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이 연결되어 운영됨
 - ※ TEIN 2 : TEIN의 후속사업(2004~2007)으로 유럽의 연구망 관리기관인 DANTE에서 사업을 관리
- '07년 12월 EC는 1140만 유로를 투자하는 TEIN 3 사업('08년 1월~'11년 12월)을 승인
 - TEIN 2는 '08년 12월까지 지속
 - TEIN 2 참여국에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지역 국가들이 추가되어 유럽 30여 개국과 아시아 18개국이 연결되어 운영 중
 - TEIN 3 기간 중 TEIN 3 사업 관리를 유럽의 지역연구망 관리기관인 DANTE에서 아시아의 TEIN 관리기관으로 이전
 - ※ TEIN 3 : TEIN 2의 후속사업(2008~2011)으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의 개도국이 추가 참여
- 한국은 제4차 TEIN 3 기술위원회('10.2월, 시드니)에서 TEIN 사업 관리를 위해「TEIN 협력센터(TEIN CC)」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 제안
 - TEIN*CC는 TEIN 3의 남은 기간 동안('11.12월까지) DANTE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

- TEIN*CC는 EC 및 TEIN 4 참여국과 TEIN 4 사업('12년 1월~ '15년 12월) 계약, 관리 수행

● TEIN 프로젝트 기간별 비교

	TEIN	TEIN 2	TEIN 3	TEIN 4
사업기간	'00.10~'06.01	'04.01~'08.12	'08.01~'11.12	'12.01~'15.12
회선비 (한국부담)	50(한) : 50(불) 한국 : 12억원/연	EC : 약180억/5년 한국 : 10억원/연	EC : 약200억원/4년 한국 : 8.5억원/연	EC : 약140억원/4년 한국 : 8.5억원/연 ※ 관리기관 운영비 별도
참여국가	한국, 프랑스	한·중·일,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한·중·일,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8개국	한·중·일,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8개국 이상
관리기관	KISDI(한국) RENATER(프랑스)	DANTE(영국)	DANTE(영국)	TEIN* 협력센터(한국)

● TEIN 프로젝트 연혁

일 시	주요 내용
2000. 03	김대중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아시아와 유럽간 정보통신망 구축 제안
2000. 10	제3차 ASEM 회의에서 유라시아 정보통신망(TEIN)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채택
2001. 03	제1차 TEIN 전문가회의, TEIN 구축의 실질적 방안 합의
2001. 12	한국(KOREN)과 프랑스(RENATER)를 연결, TEIN 개통(2Mbps)
2002. 03	제2차 TEIN 전문가회의, TEIN 증속(45Mbps) 및 동남아 확대 등 발전방향 합의
2002. 09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TEIN을 아시아-유럽간 성공적 협력사례로 평가, 예시
2003. 09	EU 정보사회국 집행위원장 Eriikki Liikanen 방한, TEIN 투자 의사 표명(1천만유로)
2004. 01	TEIN 확대·고도화를 위한 유럽의 TEIN 2 사업 공식발표 및 설명회
2004. 05	제1차 TEIN 2 전문위원회(말레이시아), TEIN 2 Phase1 사전조사
2004. 12	TEIN 한·불 회선 증속(45 → 155Mbps)
2005. 07	제7차 TEIN 2 전문위원회(일본), TEIN 2 망구성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2006. 01	한-불 TEIN 회선(155Mbps) 종료 및 TEIN 2(622Mbps) 개통 제9차 TEIN 2 전문위원회 및 TEIN 2 개통식 개최(일본)
2006. 06	제10차 TEIN 2 전문위원회 (베트남) ASEM ICT 장관회의 준비회의 개최(베트남), TEIN 2 관련 논의 지속
2006. 09	ASEM6 정상회의시 공식 TEIN 2 개통식 개최(핀란드), 의장성명서에 TEIN 2 언급
2006. 10	제11차 TEIN 2 전문위원회 및 제1차 TEIN 2 NOC 회의(홍콩) TEIN 2 전문위원회 산하 TEIN Organization Task Force 결성
2006. 11	제1차 ASEM ICT 장관회의 개최(베트남), 의장성명서에 TEIN 2 언급
2007. 12	'EC의 TEIN 3 기본계획 및 예산 승인
2008. 10	제7차 ASEM 정상회의(중국 북경) 의장성명서 도출
2009. 01	TEIN 2(622Mbps) 종료, TEIN 3(2.5Gbps) 개통 유럽 30여개국과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15개국 연동
2010. 02	TEIN 관리기관(TEIN* 협력센터) 한국 유치 결정

다. 향후계획

- '10.10월 제8차 ASEM 정상회의시, TEIN 협력센터 한국 설치 인준
 - 동 협력센터는 2011년초 설립되어 TEIN 3의 잔여 기간 동안('11.12월까지) DANTE와 공동으로 사업 관리
 - 「TEIN 4 사업」('12.1월~'15.12월) 관련, 참여국과 계약 및 관리업무 수행

7.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가. 추진 경과

- 제1차 ASEM 정상회의(1996년 3월, 방콕)시 일본과 오스트리아 제의
 - 회의명 : 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 제1차 회의는 1997년 3월 일본 도쿄/미야자키에서, 제2차 회의는 1998년 5월 오스트리아 바덴/비엔나에서 개최
- 아시아-유럽의 젊은 지도자간의 접촉을 통한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목적

나. 제3차 회의(1999.5.24~28, 서울/강원도)

(1)참가자

- ASEM 25개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에서 100여명 참가(아시아-유럽 재단 2명 포함, 룩셈부르크 대표는 불참)

(2)회의 주제

- 아시아-유럽 : 새천년에 도전과 기회를 준비(Asia and Europe : Preparing for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New Millennium)

(3)워크샵 논의 의제

- 정치, 안보
- 경제
- 사회/문화
- 미디어
- 환경
- 정보기술 등

(4)회의 결과

- 회의 선언문(Symposium Statement) 채택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회의(1개월), 전체회의 3회, 각 워크샵별 회의 3회 개최

(5) ASEM 외교관 세미나 개최(1999.5.29, 서울)

(가) 참가자

- 젊은 지도자 회의 참가자중 ASEM 회원국 본부 과장급 외교관 18명 등 총 50여명 참석

(나) 세미나 주요 결과

- 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 지속여부, 유럽 통합과정의 확대 등 논의
- ASEM의 의의와 상호 이익 극대화 방안 논의
 - ASEM 과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분야(Civil Society)의 input이 중요
 - ASEM 정상회의시 NGO 회의 병행 개최
 - 유연하고 점진적인 ASEM 과정을 존중함이 바람직
 - ASEM 사무국 설치로 인한 ASEM의 관료화 우려(유럽)
 - ASEM의 3개 pillar(정치대화, 경제협력, 여타 분야) 중에서 사회분야(social dimension) 협력 강화 필요

다. 제4차 회의(2000.6.12~16, 아일랜드)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 젊은 지도자 100여명

(2) 회의 주제

- 지식기반사회 : 21세기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십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

(3) 워크숍 논의 의제

-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 인터넷 시대의 전자상거래
- 지식기반사회의 발전
- 작업장에서의 지식 경영
-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식기반 사회의 영향

라. 제5차 회의(2001.10.7~12, 말레이시아)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 젊은 지도자 100여명

(2) 회의 주제

- 새천년 시대에 있어서 아시아-유럽간 협력 강화

(3) 워크숍 논의 의제

- 교육교류 증진

- 중소기업협력
- 다인종 사회에서의 공존 문제
- 문화 협력

마. 제6차 회의(2002.6.23~28, 베를린)

-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 젊은 지도자 100여명
- (2) 회의 주제
 - 세계화 시대에 있어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도전
- (3) 워크숍 논의 의제
 - 정치적 도전
 - 안보적 도전
 - 경제적 도전
 - 사회/문화적 도전

바. 제7차 회의(2003.8.24~27, 베트남)

- (1) 참가자
 - ASEM 25개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에서 90여명 참가
- (2) 회의 주제
 - ASEM 협력강화(Strengthening Asia-Europe Cooperation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the New Global Context)
- (3) 워크숍 논의 의제
 -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 경제협력 강화
 - 아시아-유럽간 공동가치 추구
 - 교육 및 인적교류 확대
 - ASEM 협력강화

사. 제8차 회의(2004.11.29~12.2, 네덜란드)

-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에서 70명 참가
- (2) 회의 주제
 - 아시아-유럽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Shifting Paradigm in Asia-Europe Relations : Translating Common Challenges into Common Opportunities)

(3) 워크숍 논의 의제

- 아시아-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
- 아시아-유럽간 경제 협력 및 대립
- 아시아-유럽 문화
- 문화·문명 대화
- 아시아-유럽의 투표자 문화

아. 제9차 회의(2005.4.11~13, 싱가포르)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에서 34명 참가

(2) 회의주제

- 불확실성속의 리더쉽(Leadership through Uncertainty)

(3) 워크숍 논의 의제

- 빈곤 퇴치(poverty reduction)
- 이민/인구이동(migration/human mobility)
- ASEM의 미래(Future of ASEM)
- UN 개혁(UN reform)

자. 제10차 회의(2005.9.20~23, 브루나이)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에서 84명 참가

(2) 회의주제

- 아시아-유럽 새로운 경제 리더 포럼(Asia-Europe Emerging Economic Leaders Forum)

(3) 워크숍 논의 의제

- ASEAN+3의 젊은 기업가들 모임 창설

차. 제11차 회의(2008.11.10~16, 스페인(마드리드))

(1) 참가자

- ASEM 회원국내에서 44명 참가

(2) 회의주제

- 아시아-유럽 젊은 도시지역 지도자 대화(First Asia-Europe Young Urban Leaders Dialogue)

(3) 워크숍 논의 의제

- 도시지역 문제
- 도시지역 지도자들간 네트워크 구축

8. ASEM 이민국장회의(ASEM Immigration Directors' Meeting)

가. 설립 배경

- 2002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ASEM 란자로페 이민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민·영사 분야 Network 설치

나. 현황

- 2002년 실무 국장급 회의로 출범하여, ASEM 회원국 이민국장 및 국제기구·주요 국가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1회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오가며 순차적으로 개최
- 2002년 제 1차 회의에서, 유럽은 EU의장국(매6개월 회원국 순차담당)이, 아시아는 한·중·일이 우선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이 제2차 회의(2003년)를, 우리나라가 제6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일본은 제8차 회의(2009년) 개최를 희망

※ 제4차회의는 한국과 일본측 사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다. 역대 ASEM 이민국장회의 개최 연혁

회수	개최시기	개최국 개최도시	참가국	참가인원
1	2002. 12	덴마크 코펜하겐	35개국	350명
2	2003. 11	중국 베이징	35개국	420명
3	2004. 11	네덜란드 헤이그	38개국	510명
4	2005. 12	인도네시아 발리	45개국	430명
5	2006. 12	핀란드 쿠오피오	32개국	150명
6	2007. 11	한국 서울	38개국	200명
7	2008. 11	프랑스 파리	39개국	
8	2009. 12	인도 고아	30개국	

라. 주요의제

(1) 출입국관리 협력 강화

- 프랑스·호주 사태 등 인종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입국 당국간의 상호정보 교환 등 다자간 공동대처방안 모색
- 출입국심사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 불법입국 등 초국가범죄방지를 위한 생체정보 기술 활용 협력

(2) 불법입국·인신매매 방지

- 불법입국·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와 외국인 인권문제

(3) 출입국심사 국제표준화 작업

- 생체인식정보·IT 기술 활용 등 출입국심사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

마. 제6차 ASEM 서울 이민국장회의

- 기간 및 장소 : 2007년 11월 19일~21일, 서울
- 주요행사
 - ASEM 이민국장 전체회의, 권역별회의, 소그룹회의, 양자별도회의, 이민정책포럼(IPF)으로 진행
- 참가규모 : 38개 회원국(유럽 25개국, 아시아 13개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

9. ASEM 내 사이버 보안 강화 사업(ASEM Cyber Security Workshop)

가. 추진 경과

-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사업으로 승인
 - 한국, 독일,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공동 제안

나. 제1차 워크숍 회의 개최 결과

(1) 개요

- 2005년 6월 23일~24일, 한국 서울
- 26개 ASEM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옵저버 자격의 비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관련단체 대표 등 82명 참석

(2) 워크숍 논의 의제

- 공동협력 체제 구축
- 사이버 보안 문화 증진
- 사이버 범죄 완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3) 주요 결과

- 아시아-유럽간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

10. ASEM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

가. 개요

- 2002년 10월 발리 테러, 2003년 8월 자카르타 테러와 2005년 7월 런던 테러 등 일련의 테러사건이 종교간 불이해와 극단적인 배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의 치유방안으로서 ASEM 틀 내에서 종교간 상호이해 증진과 조화를 추구할 필요성 대두
-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사업으로 승인
- ASEM 각국의 종교, 정치 및 학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갖는 포럼

나. ASEM 종교간 회의 개최

(1) 제1차 회의(2005.7.21~22, 발리)

- 인도네시아와 영국 공동 주최
- ASEM회원국 정부관계자, 종교지도자, 학계·언론계 인사 등 약 200여명 및 EU 집행위원회, ASEF 등 옵저버 참석
- 회의 주제 : 국제사회에서의 종교간 조화 구축(Building Interfaith Harmon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주요 결과
 -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및 사회분야에서의 상호 조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 「발리 선언(Bali Declaration)」을 채택

(2) 제2차 회의(2006.7.3~5, 사이프러스 라나카)

- 사이프러스와 말레이시아 공동 주최로 ASEM36개 회원국 대표단 200여명 및 UN, 교황청, ASEF 등의 옵저버 참석
- 회의 주제 : 종교간 대화 및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협력(Interfaith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a Peaceful World)
- 주요 결과
 - 발리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종교간 대화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Larnaca Action Plan」 채택

(3) 제3차 회의(2007.6.19~21, 난징)

- 중국과 이탈리아 공동 주최
- ASEM 37개국 대표단 및 UN, 교황청, 이슬람회의 기구, ASEF 대표단 등 162명 참가
- 회의 주제 : 평화, 발전, 조화를 위한 종교간 대화의 심화(Deepening Interfaith Dialogue for Peace, Development, and Harmony)
- 주요 결과 : 앞으로의 ASEM 종교간 대화의 방향 및 회의 결과 합의된 사항들을 포함한 「Nanjing Statement on Interfaith Dialogue」 채택

(4) 제4차 회의(2008.6.3~5, 암스테르담)

- 네덜란드와 태국 공동 주최
- ASEM 회원국 대표단 및 UN, 교황청, 이슬람회의 기구, ASEF 등의 옵서버 200여명 참가
- 회의 주제 : 종교간 대화의 실천; 실천 방안 나누기(Interfaith Dialogue in Practice; Sharing Best Practices)
- 주요 결과 :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등 분야에서 종교간 대화 실천 이행 및 종교간 대화를 통한 빈곤 퇴치 의지를 포함한 「Amsterdam Statement on Interfaith Dialogue」 채택

(5) 제5차 회의(2009.9.23~25, 서울)

- 한국과 핀란드 공동주최
- 36개 ASEM 회원국, 교황청, 이슬람회의 기구 및 ASEF 대표 등 180여명 참가
- 회의 주제 : 종교간 대화를 통한 화합과 상생(Bridging Divides through Interfaith Dialogue)
- 주요 결과 : 종교적 시각으로 세계경제위기를 조명하고 사회통합과 공존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 「Seoul Statement on ASEM Interfaith Dialogue」 채택

(6) 제6차 회의(2010.4.7~8, 마드리드)

- 스페인과 파키스탄 공동주최
- 33개 ASEM 회원국 및 ASEF 등 관련 기관 대표 참가
- 회의 주제 : 종교간, 문화간 대화를 통한 종교의 자유 및 사회간 이해 증진(Consolida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Mutual Knowledge of Societies through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Dialogue)
- 주요 결과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Madrid Statement on ASEM Interfaith Dialogue」 채택

11. ASEM 아동복지사업(ASEM Action on Child Welfare)

가. 목 적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증대

나. 추진 경과

- 1998년 4월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사업으로 승인
 - 영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안
- 1998년 6월 15일~16일간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준비회의(Preparatory Meeting on ASEM Action on Child Welfare, 필리핀)
- 1998년 10월 ASEM 회원국 아동복지 전문가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

- 아동복지 법집행기관간 회의 개최,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NGO간 교류사업, 아동복지 관련 자료 웹사이트 구축 등 3개 행동계획 채택
- 1999년 3월 아동 복지관련 법집행기관간 예비회의가 필리핀에서 개최

다. ASEM 아동복지 정보센터

- 설립 경위
 - 1998년 4월 제2차 ASEM 정상회의시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ASEM 사업으로 승인(영국, 필리핀 공동제안)
 - 1998년 10월 런던 ASEM 아동복지 전문가 회의시 ‘ASEM 아동복지 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 결정
 - 2000년 1월 영국정부는 동 정보센터 공식 개설
- 설립 목적
 - 아동복지 관련 ASEM 회원국 정부 비정부기관간 협력 증진
 - ASEM 회원국의 아동복지 법제 및 아동보호 모범사례 관련 정보 수록

라. ASEM 아동복지 법집행기관간 회의 개최

(1) 제1차 회의(2000.5.4~6, 서울)

- ASEM회원국 15개국과 EU 집행위원회 법집행기관 담당자 76명 참가하에 아동 성착취 방지에 관한 ASEM 아동복지 법집행기관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의장 성명서」 채택
- 성명서 요지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적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중심”의 시스템을 구축기로 합의
 -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 또한 사회적·경제적 범죄 원인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성 제고

(2) 제2차 회의(2001.11.10~12, 광저우)

- ASEM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240명 참석
- 의제
 -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에 있어 주요 해결 과제
 - 입법과정에서의 여성과 아동 보호
 -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여성과 아동 보호
 -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3) 제3차 회의(2003.3.3~4, 마닐라)

-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와 EU 집행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UNICEF 등 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

- 주제 : 아동 사법보호 강화(Strengthening the Judicial Protection of Children)
- 의제
 - 아동에 대한 법정출두, 가해자 대면, 피해자 진술 여부 결정권한 부여 등 모든 사법절차와 관련한 아동의 결정권 보장
 - 인터뷰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관련기관간 합동 인터뷰 실시
 - 공식 사법절차로 인한 아동의 충격 및 이중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이 공식 사법절차에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방지
 - 사법당국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차기 전문가회의는 ‘아동에 관한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s on Children)’를 주제로 추후 개최하기로 합의

12. ASEM DUO 장학사업(ASEM DUO Fellowship Programme)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제3차 ASEM 정상회의(2000년 10월, 서울)시 우리측이 프랑스, 싱가포르와 공동제안, 신규사업으로 채택
- 아시아와 유럽간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
- 대학생 · 교수 · 교원들에게 선진교육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학문발전에 기여
- 2004년 10월 제5차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사업 연장
- 2010년 10월 제8차 벨기에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사업 연장 예정

나. 추진방향

- 인적교류의 파급효과가 큰 대학생 · 교수 · 교원을 대상으로 교류 실시하여, 국제화 촉진 및 선진 회원국의 우수 교육 · 연구사례 체험기회 제공
-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 조성
- 교류방식
 - ASEM 회원국 내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기관간 1 : 1 교류 방식으로 추진
- 교류기간 및 1인당 지원액
 - 대학생 : 4개월/월 1,000 euro
 - 교수 · 교원 : 1개월/월 3,000 euro
- 사업의 총괄 · 조정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
 - 장학금 지원의 구체적인 조건 등은 기금 제공국에서 제시

다. 추진실적

- 회원국 관계자간 전문가회의 개최 : 2001년 4월 10일~11일, 서울
 - 내용 : 기금 기여액 조율 및 세부 추진방안 등 협의
 - 참가자 : ASEM 17개국 27명 참석
- 사무국 개설(2001년 10월 25일)
 - 사무국장 : 성극제 경희대 교수
 - 홈페이지 : <http://www.asemduo.org>
- 사업 추진 실적

지원국	연 도	지원명수	지원금액(단위:euro)
한 국	2001년	30명(학생 16, 교수 14)	138,000
	2002년	68명(학생 38, 교수 30)	342,000
	2003년	94명(학생 66, 교수 28)	348,000
	2004년	102명(학생 78, 교수 24)	384,000
	2005년	112명(학생 88, 교수 24)	424,000
	2006년	120명(학생 102, 교수 18)	462,000
	2007년	140명(학생 126, 교수 14)	546,000
	2008년	88명(학생 80, 교수 8)	344,000
	2009년	76명(학생 76)	304,000
프랑스	2010년	90명(학생 90)	360,000
	2002년	92명(학생 48, 교수 44)	420,000
	2003년	102명(학생 50, 교수 52)	448,000
	2004년	82명(학생 38, 교수 44)	322,000
	2005년	50명(학생 24, 교수 26)	165,000
	2006년	96명(학생 48, 교수 48)	238,000
	2007년	58명(학생 46명, 교수 12)	229,000
	2008년	사업종료	
싱가포르	2002년	36명(학생 36)	216,000
	2003년	54명(학생 54)	216,000
	2004년	36명(학생 36)	144,000
	2005년	36명(학생 36)	144,000
	2006년	36명(학생 36)	144,000
	2007년	36명(학생 36)	144,000
	2008년	36명(학생 36)	144,000
	2009년	24명(학생 24)	96,000
덴마크	2010년	18명(학생 18)	72,000
	2003년	48명(학생 26, 교수 22)	204,000
	2004년	42명(학생 22, 교수 20)	178,000
태 국	2005년	사업종료	
	2006년	46명(학생 12, 교수 34)	150,000
	2007년	72명(학생 12, 교수 60)	228,000
	2008년	64명(학생 26, 교수 38)	218,000
	2009년	56명(학생 28, 교수 28)	196,000
	2010년	24명(학생 6, 교수 18)	78,000
스웨덴	2010~2011년간		200,000(지원예정)
	2010년	24명(학생 24)	96,000
벨기에프렘리쉬	2011년부터		50,000(지원예정)

- 제5차 ASEM 외무장관회의(2003년 7월 23일~24일, 발리)
 - ASEM DUO 장학사업의 성공적 이행 평가 및 후원국 확대를 권고
-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2003년 11월 14일, 서울)
 - 2001년~2003년간 각 국별 장학사업 실행상황, 기금 공여국 확대방안, 사업기간 연장(2006년~2010년) 방안, 각 국가별 제안 의제 협의
-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2004년 4월 17일~18일, 아일랜드 킬데어)
 - ASEM DUO 사업의 성과에 만족 표명 및 여타 회원국들의 사업 참여를 격려
- 제3차 국제전문가회의(2006년 5월 30일, 파리)
 -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기여도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아시아 3개국, 유럽 1개국 사업 참여) 및 사무국의 역할 증진논의
- 제4차 국제전문가회의(2008년 6월 20일, 방콕)
 - 각 국별 장학사업 실행상황, 기금 공여국 확대 및 유럽과 아시아의 균형적 기여 방안, 각 국가별 제안 의제 협의
- 제5차 국제전문가회의(2009년 5월 13일, 하노이)
 - 기금 공여국 확대방안, 사업기간 연장(2011년~2015년) 방안, 유럽 국가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 협의
- 제2차 국제전문가회의(2003년 11월 14일, 서울)
 - 2001년~2003년간 각 국별 장학사업 실행상황, 기금 공여국 확대 방안, 사업기간 연장(2006년~2010년) 방안, 각 국가별 제안 의제 협의
-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2004년 4월 17일~18일, 아일랜드 킬데어)
 - ASEM DUO 사업의 성과에 만족 표명 및 여타 회원국들의 사업 참여를 격려
- 제3차 국제전문가회의(2006년 5월 30일, 파리)
 -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기여도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아시아 3개국, 유럽 1개국 사업참여) 및 사무국의 역할 증진논의

13.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

가. 경 위

- 제3차 정상회의시 우리나라와 스웨덴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신규사업으로 채택
 -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된 후 종료

나. 경 과

(1) 제1차 라운드테이블

- 2001년 5월 28일~29일, 서울
- ASEM 회원국 정부, 학계, NGO 인사 등 80여명 참석
- 주요 토의 내용
 - 세계화와 지역적 대응
 - 세계화의 정치·문화적 측면
 - 세계화의 경제·사회적 측면
 - 세계화와 ASEM 프로세스
- 회의결과는 「Globalization and Regional Responses」라는 책자로 제작, 각 회원국 및 주요기관에 배포

(2) 제2차 라운드테이블

- 2003년 3월 10일~12일, 스웨덴 말뫼
- ASEM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관계자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ASEM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분야에서 협력강화 방안

14. ASEM 정보격차 해소사업

가. 배 경

-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역내국가간 정보격차 확대 등 그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ASEM 차원의 노력으로서 “ASEM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협력 사업”을 제안, 2000년 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
- 일본측은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및 경험공유를 사업내용에 포함하면서, 한·일 공동주최로 2001년 상반기 관련 세미나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ASEM 정보격차해소 사업 개요】

- ▶ 공동제안국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포르투갈
- ▶ 주요사업내용
 - 정보통신기술 교육, 정보통신기기 보급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경험 교환 등 ASEM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
 -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추진 성과 검토후 정상회의에 보고

나. 우리 추진 사업 현황

- ‘디지털 기회에 관한 세미나’ 한·일 공동개최(2001년 3월 22일~23일, 도쿄)
- ASEM 역내 개도국(베트남)에 정보접근센터 구축(2003년 11월)
- 개도국 IT 인력 초청 정보통신교육(2003년)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약 55명
- 미얀마 정보통신정책 수립 지원사업(2004년~2005년)
-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2004년~2005년)
- 한-베 친선 IT 대학 설립사업(2004년~2006년)
- 베트남 ICT 입법 지원사업(2004년~2005년)

15. 대테러 세미나(Anti-Terrorism Seminar)

가. 경 위

- ASEM 차원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
 - 제4차 정상회의시 중국, 덴마크, 독일, 일본 및 스페인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ASEM 신규사업으로 채택
 - ASEM 회원국 외교부, 대테러 부서 관계관 참석
- 현재까지 총 6회 회의 개최

제1차 회의	2003.9.21 ~ 22	중국 베이징
제2차 회의	2004.10.18 ~ 20	독일 베를린
제3차 회의	2005.11.15 ~ 16	인도네시아 세마랑
제4차 회의	2006.6.26 ~ 27	덴마크 코펜하겐
제5차 회의	2007.5.15 ~ 16	일본 도쿄
제6차 회의	2008.4.3 ~ 4	스페인 마드리드
제7차 회의	2009.6.22 ~ 23	필리핀 마닐라
제8차 회의	2010.6.10 ~ 11	벨기에 브뤼셀

나. 주요 논의 내용

- 제1차 회의
 - 테러에 관한 정보교환 강화, ASEM 회원국간 대테러 역량 강화 지원
 - 양자·다자차원에서 사법·법집행 협조 강화, 대테러 관련 UN의 중심적 역할을 지원할 실제적 initiatives 개발
- 제2차 회의
 - ASEM 대테러 Contact Points Network 수립

- 24시간 조기 경보 연락망 구축
- 제3차 회의
 - 국경 통제 및 안전, 법집행 협력, 지역 대테러 센터 역량 강화 및 센터간 정보 공유
- 제4차 회의
 - 유엔 안보리 결의 1624호 이행 및 급진화 대응
 - 아세아나폴, 유로폴, 인터폴간 정보 교류 강화
 - ASEM 회원국 금융정보분석기관(FIU)간 연락망 구축
- 제5차 회의
 - 종교, 문화, 문명, 언론간 대화 증진
 - ASEM Contact Points의 연간 업데이트
 - 국제 대테러 전략 수집
- 제6차 회의
 -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정보교환 및 테러대응 역량 강화
 - 빈곤, 교육, 인권, 법치 등 테러 근본 원인 근절
 - 종교간 대화, 문화교류 및 문명간 대화를 통한 조정능력 개발
- 제7차 회의
 - 아시아·유럽 지역의 테러위험 평가
 - 유엔 범세계 대테러 전략 평가, 대테러 법률체제
 - 운송분야의 대테러 조치
 - 대테러 전략의 모범사례 공유,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
- 제8차 회의
 - UN의 대테러 노력, 유럽·아시아의 대테러 정책
 - 핵심 기반시설 방호, 항공보안

16. 평생학습 회의

가. 경 위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1999년 3월, 코펜하겐) 결과
 -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 대처 위해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 LLL)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적응성 강화 필요
- 2000년 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시 덴마크 제안으로 “평생교육사업”이 주목사업으로 채택
 - 동 사업은 2001년 5월 제4차 ASEM 외무장관회의시 덴마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공동 제안, 신규사업으로 채택

나. 사업목적

- LLL 경험 및 교류를 위한 국제 network 구성
- 제4차 정상회의시(2002년 9월, 코펜하겐) 제출할 보고서 작성
- 제4차 정상회의 이후 시행될 시범 사업(pilot project) 발굴

다. 추진 경과

(1) 개막 회의(2002.1.16~18, 코펜하겐)

- 18개국 85명의 대표단 참석
- 평생학습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제4차 ASEM 정상회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관련 건의 및 정책 권고안 구상, 제4차 ASEM 정상회의 후 회원국들이 추진할 만한 평생학습 관련 시범사업 발굴

(2) 주제별 실무작업반 회의

- 대중의 기본 교육을 목표
- 평생학습 관련 협력 및 사전 교육과 능력 인식
-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동기

(3) 최종 회의(2002.7.2~4, 싱가포르)

- 3개 주제별 실무작업반 회의 성과에 대한 검토 및 정리, 제4차 ASEM 정상회의에 제출할 최종 권고사항 작성 준비
- ASEM 평생학습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기존 연구결과 및 최종회의시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각 실무그룹별 보고서를 다시 취합하고,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평생학습정책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

라. 평생학습 최종 보고서

- 평생학습 협력의 과제
 - 만인을 위한 기초기능 및 능력배양의 기회 확보
 - 평생학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세계화 시대의 빈곤, 소외 및 기회의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 향후 협력방안
 -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평생학습에 대한 ASEM 회원국간 연계 강화
 - 시범사업 실시 가능성 모색 : 가상(virtual) 평생학습정보센터 설치, 기초 기능의 개념 설정과 동 기능 습득을 위한 방안 마련, 정규교육과 사내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ASEM 회원국간 성인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추진 등 모색

17. ASEM 무역·투자 및 금융 Task Force (Task Force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between Asia and Europe)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 2002년 9월 덴마크 개최 ASEM 정상회의시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아시아-유럽간 실질 연계고리 강화를 위한 Task Force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결성 추진
- 5차례 Task Force 회의 개최

제1차 회의	2003.5.5~6, 마드리드	제4차 회의	2004.3.11~12, 방콕
제2차 회의	2003.9.8, 도쿄	제5차 회의	2004.5.16~17, 바르셀로나
제3차 회의	2003.11.24, 프랑크푸르트		

나. 구성 및 주요 임무

(1) 구성

- 아시아 10명, 유럽의 7명의 고위 전문가(총 17명)로 구성
 - 당초 양 지역 각각 5명(총 10명)으로 선정키로 하였으나, 아시아 지역내 인원 배분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어 아시아측 위원은 총 10명으로 합의
 - ※ 우리나라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석

(2) 주요 논의 대상 분야

- 무역
 - 관세와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아시아-유럽간 자유무역 촉진 및 무역 균형화
- 투자
 - 투자규제 및 장벽 완화 등 투자 증대 방안 등
 - ※ 최종 보고서를 2004년 하노이 ASEM 정상회의에 제출 후 활동 종료
- 금융
 - EURO 통화시장이 아시아와 유럽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 포함

(3) T/F 논의방식

- 구체적 전략과 행동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 진행

(4) 활동시한 : 2년

- 2003년 외무, 경제 및 재무장관회의에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2004년 베트남 개최 ASEM 정상회의에 제출

다. 회의 결과

(1) 제1차 회의 결과(2003.5.5~6, 마드리드)

- Task Force의 연구분야 제안

- (무역·투자) 2025년까지 ASEM내 무역자유화 달성, 동아시아지역 무역통합 가속화, DDA 협상예의 ASEM 차원의 협력,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ASEM Business Advisory Council 및 무역·투자 Ombudsman 설치 제안
- (금융) 아시아 지역에서의 EURO 통용 증진,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차원으로의 확대, 아시아 자본시장 하부 구조 강화 등
- (제도적 문제) ASEM 프로세스를 현재의 비공식 대화(dialogue) 차원에서 협상(negotiation) 수준으로 격상, ASEM 사무국 설치

- Task Force의 공동의장으로 일본의 Toyoo Gyohten 위원과 스페인의 Alfredo Pastor위원을 선임
- 도쿄의 국제금융연구소와 마드리드의 Elcano 왕립 연구소를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
-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작성
 - 1차 회의시 제기된 이슈를 정리, 2003년 7월 ASEM 외무·재무 및 경제장관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토론의 기초를 제공

(2) 제2차 회의 결과(2003.9.8, 도쿄)

- ASEM 차원에서 DDA 협상예의 기여 방안, ASEM 무역·투자 및 관광 진흥센터 설립 제안, EURO화의 국제적 통용,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AEBF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 논의

(3) 제3차 회의 결과(2003.11.24, 프랑크푸르트)

- ‘아시아 바스켓통화 채권과 ASEM 채권기금(Asian Basket Currency Bonds and ASEM Bond Fund)’, ‘아시아에서의 EURO 확대의 유용성’ 제안서 채택
- ‘ASEM 무역·투자 및 관광 진흥센터 설립’ 및 ‘에너지 분야에서 규제문제에 대한 ASEM내 협력’ 관련 구체적 제안서를 제출토록 결정
- ASEM Business Advisory Council 창설과 ASEM내 중소기업(SMEs) 지원 방안 협의

(4) 제4차 회의 결과(2004.3.11~12, 방콕)

- 아시아 바스켓통화 채권시장, ASEM 채권기금 설립문제, 에너지분야 협력,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추가 협의
- 가상사무국(Virtual Secretariat) 설립 문제 논의, ASEM 무역·투자 및 관광 진흥센터 설립에 관한 공감대 확대
- ASEM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설립방안 마련을 사무국에 요청

(5) 제5차 회의 결과(2004.5.16~17, 바르셀로나)

- 최종보고서(안) 작성

-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서 ASEM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 및 ASEM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아시아-유럽 경제동반자관계 논의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지향적 권고사항 포함
 - ASEM 가상사무국(Virtual Secretariat) 설립
 - ASEM 채권시장 및 채권기금(YES Bond Market, YES Bond Fund) 설립
 - 경제협력 논의에 에너지 이슈 논의를 상설화
 - 무역·투자·관광 가상진흥센터(Virtual Promotion Center for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설립
 - ASEM 기업인자문위원회(ASEM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립

18. 다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아시아-유럽 대화

가. 개요

- 제4차 정상회의(2002년 9월, 코펜하겐)시 일본의 제안으로 정부, 관련 국제기구(WTO, APEC),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자 및 지역경제 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2003년에 개최하였음

나. 1차 회의

- 기간 및 장소 : 2003년 3월 24일~25일, 일본 도쿄
- 주요 의제
 - WTO 협상 이후 ASEM내 경제·협력 방향
 - 유럽 경제통합이 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 DDA 이후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강화

다. 향후 전망

- 일본이 동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의사를 표명

19.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가. 개 요

- 제4차 ASEM 정상회의(2002년 9월, 코펜하겐)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연결철도인 “철의 실크로드”의 구상을 제안
- 정부, 관련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인사들이 참여하는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을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2004년 4월, 킬테어)에서 승인받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

나. 심포지엄 개관

- 기간 및 장소 : 2004년 6월 17일~18일, 서울
- 참가대상 : ASEM 회원국중 21개 회원국, 비회원국중 북한, 폴란드, 카자흐스탄, 몽골, 체코의 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아시아-유럽재단(ASEF), UN ESCAP,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연맹(UIC)의 전문가
- 주요 의제
 - 철의 실크로드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협력 증진 방안
 - 아시아-유럽의 공동변영 전략으로서 철의 실크로드
 - 유라시아 철도 화물 운송망 구축
 - 아시아-유럽의 변영을 촉진하기 위한 육상 교통연결망으로서 철의 실크로드

다. 심포지엄 결과

- 아시아-유럽간 공동변영을 위해서는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협력이 긴요함에 공감
- 향후 철의 실크로드 비전의 구체화를 위해 ASEM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철의 실크로드가 경유하는 ASEM 비회원국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합의

라. 최근 현황

- TKR과 TSR 사업 추진과 관련, 남·북·러 3자간 철도당국자 회의 등을 통해 논의 중

20.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가. 추진 경과

- 1998년 4월 덴마크 정부가 제2차 정상회의시 후속사업으로 제안
 -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관심(noticed) 사업으로 지정
 - 회의명 : Seminar on the Role of State and Market
- 1998년 10월 방콕 SOM에서 공식사업으로 승인되고(endorsed) 우리나라가 공동 주최국(co-sponsor) 수행의사를 공식 발표

나. 회의 개요

- (1) 일시 및 장소
 - 1999년 3월 8~10일, 덴마크 코펜하겐
- (2) 주최국 : 덴마크(우리나라는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
 -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관심(noticed) 사업으로 지정

- 회의명 : Seminar on the Role of State and Market

(3) 참가자 : ASEM 회원국별 5명 내외 총 130여명

- 중앙정부, 의회, 학계 및 노동 관련 기구 등 비정부기구 인사 등 참석
- 우리나라는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이 개막사를 하고 장현준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제3분과위(시장경제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시정)를 주재

(4) 주 제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ASEM 협력평가 보고서¹⁾

Overview Report on ASEM Initiatives -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

1. Background

Since its launch at the Bangkok Summit Meeting in June 1996, the Asia-Europe Meeting (ASEM) has established an invaluable framework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the three major regions in the world—Asia, Europe and North America—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Asia and Europe. ASEM has been pursuing comprehensive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its partners with a focus on the three pillar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areas.

With its key principles of informality and multi-dimensionality, ASEM has provided an open and inclusive forum for its partners to share useful experiences and ideas for the guidance of future policy-making. In this regard, various initiatives—endorsed and noted—have been implemented over the past ten years, which have contributed to furthering the ASEM process. However, there has also been concern that some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clear direction or mid- to long-term vision, due partly to the lack of any established management mechanism for those initiatives.

The year 2006 and the upcoming ASEM VI will prove a turning point for the ASEM process as it marks its tenth anniversar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SEM Partners increased from twenty six to thirty nine and that there are still more countries which have expressed their wishes to join the ASEM, the number of initiative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in the years to come.

In this respect,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ASEM initiatives carried out over the past ten years is timely and meaningful; this endeavor will als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develop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cooperative ties between Asia and Europe.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task of collect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on ASEM initiatives and stocktaking the state of initiatives in an effort to make recommendations to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managing the initiatives.

1)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ASEM 10주년을 맞아 ASEM 협력사업의 현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작성한 것으로 현재 제6차 헬싱키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게재중

To this end, the Korean government asked all partners to provide available information and their self-evaluations on the initiatives proposed by respective partners, and also examined the existing relevant materials including official documents distributed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numerous ASEM-related websites. Through this process, a total of one hundred and five initiatives, implemented and to be carried out prior to ASEM VI Summit, were identified as the object of stocktaking in this report. However, w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llect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materials due to the absence of an administrative unit or a mechanism which stores relevant information and oversees the status of each initiative.

2. Current Status of the ASEM Initiatives

(1) Political Pillar

The ASEM political dialogue aims to provide a useful platform to address a range of issues such as terrorism,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thereby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ners.

However, compared with other initiatives under the economic and social/cultural pillars, it is said that there has been less progress under this pillar in terms of achieving visible and substantial cooperation.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initiatives, twelve,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initiatives in other pillars. Another reason may be that most political initiatives have taken the form of seminar or workshop where various views have been exchanged but with no further follow-up activitie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e partners should try to identify the issues of common concern where not only dialogue but substantial cooperation are achievable and sustainable, and explore ways to implement initiatives with a common vision.

(2) Economic pillar

Under the economic pillar, fifty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with a view to enhanc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Asia and Europe. In this context, the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FAP) and the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yielding practical results, including proposals to remove barrier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regions.

The Asia-Europe Business Forum(AEBF) has not only provided a forum for dialogue and exchanges, but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inforcing ties among private enterprises. Furthermore, various numerous initiativ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SEM Trust Fund(ATF) at ASEM II, have clearly demonstrated the direction and scope for ASEM to give further concrete shape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However, the initiatives under this pillar have also evidenced shortcomings in some respects, with some initiatives remaining at the level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iews as they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form of seminar, etc. In addition, some initiatives are similar to or duplicate the already ongoing initiatives. If such a trend continues, no value-added initiatives will be created in the economic pillar whereby it would be more difficult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Bearing this in mi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itiatives giving tangible benefits to the peoples in Asia and Europe, and to generate greater synergy by linking and integrating similar initiatives.

(3) Social and Cultural pillar

ASEM Partners have promoted a wide range of initiatives in order to enhance bet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ia and Europe through greater intellectual,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Toward this end, forty three initiatives under this pillar have been carried out within the ASEM process.

Especially, the Asia-Europe Foundation(ASEF), which was established as an important medium to promote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giving adding value to the ASEM process through its own activities. Nevertheless, there is also overlapping and duplication between the ASEF-led activities and the ASEM initiatives, which calls for our careful attention.

3.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ASEM Initiatives

The ASEM Partners have promoted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through various initiatives over a wide range of issues. In carrying out the initiatives, they have pursued the common objectives of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sec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region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ome initiatives have successfully developed into visible and effective cooperation while others have not met such expectations. After evaluating the current status of ASEM initiativ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First, the ASEM process was noted of its unique character, spontaneity, and a wide range of initiatives within its framework have been implemented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the ASEM in Asia and Europe. Many initiatives, however,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form of seminar or conference and especially, not a few initiatives were held just once or twice, with no follow-up activities ensued. Such initiatives could not develop into good instances of mid- to long- term cooper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ASEM Partners to focus on value-added projects.

Second, the outcomes of some initiatives have not been fully shared among partners. Furthermore, some initiatives failed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due to insufficient media attention and/or limited participation from the civil society. Unless these issues are adequately addressed, public interests and support for the ASEM process will be weakened accordingly.

Third, some initiatives have been carried out overlapping with others in terms of their purposes or contents. Hence, for the general public, it will be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se initiatives due to their similarities. This may be partly attributed to the lack of mechanism for stocktaking and coordination of ASEM initiative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useful to link or integrate those initiatives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to enhance the synergy.

Last but not least, those initiatives which have been proposed by partners with a strong will in pushing ahead tend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partners to not show much interest in the initiatives which they did not propose or sponsor. In this regard, it is evident that the partners' strong drive to carry forward with the initiative and other partners' solid support and active participation are key elemen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SEM initiatives.

4. Recommendations for Better Management of ASEM Initiatives

Based on the AECF 2000²⁾ adopted at ASEM III and the Foreign Ministers' Recommendations on ASEM Working Methods³⁾ endorsed at ASEM V as well as the analysis outlined in this report, we would like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better management of ASEM initiatives.

Although SOMs are given the mandate of better monitoring the follow-up of initiatives in all three pillars, as illustrated in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OMs have not properly carried out their responsibility.

2) According to the AECF 2000, "Results and outputs of all ASEM initiatives will be reported to SOM on a timely basis. SOM shall also be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progress achieved under all ASEM initiatives on a regular basis, and for recommending if individual initiatives be continued or terminated. To facilitate this review process, it shall be carried out in such a way as to group activities addressing related issues into thematic clusters."

3) The Foreign Ministers' Recommendations for ASEM Working Methods are as follows:
[SOMs]

- SOMs should be empowered to approve and/or filter individual initiatives. If SOMs agree an initiative its implementations can begin even before being formally endorsed by the ASEM Leaders/Ministers. SOMs should better monitor the follow-up of initiatives in all three pillars.

[Coordinators]

- The Coordinators' role in follow-up and reporting on initiatives should be strengthened. Information sharing would be enhanced by using ASEM Contact Points and other methods of communication.

[Handling of ASEM initiatives]

- Individual initiatives should be more substantial. To this end, the host country should collect comments on its initiative from other members. The comments may be examined and adopted in some case, or those who send the public comments will receive explanation from the host country, if needed. SOM should monitor and assess ASEM initiatives in all three pillars.

- Publicity for endorsed initiativ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ASEM Infoboard, i.e. publicizing the initiative on the ASEM website before its implementation. Information of initiatives held in the past should be gathered, organized and compiled so that it can be widely shared.

- It is encouraged that as much as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each initiative, including both pre-event explanation and post-event assessment of results, will be shared among ASEM Partners through the ASEM Infoboard.

Accordingly, as an urgent short-term measure, it is crucial to put in plac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SOMs to do their job more proactively, especially in reviewing the progress of all ASEM initiatives and recommending whether individual initiatives should be continued or terminated. It is also worth exploring ways on how to enhance the Coordinators' role in this regard. Through this process, ASEM initiatives will yield more focused and result-oriented outcomes.

Another possible suggestion may be to capitalize on the role of Chair countries of the previous and the upcoming summit in managing the initiatives. Engaging these two Chair countries in the Coordinators' Meeting could serve to enhance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initiatives.

Differing from other regional cooperation process such as APEC, management of the ASEM initiatives has been carried out solely by the partners concerned without the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a so-called secretariat. So far, the strong will of the partners has been a decisive factor in the progress and success of the initiatives. In reality, there are many initiatives on which the relevant information is scattered among the respective partner, thereby causing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institutional memory of the initiatives.

In this regard, the ASEM Infoboard already run by ASEF and the Virtual Secretariat, once established, can provide helpful platforms for ASEM Partners to store and shar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be conducive to better management of all initiatives. Taking this into account, as a long-term measure, it will be useful to establish a unified and responsible administrative uni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ll initiatives.

5. Conclusion

ASEM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particularly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pillar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oncern that the outcomes of the initiatives carried out so far have not been sufficiently shared among the partners. One of the reasons could be that the initiatives have not systematically managed.

In this context, it is an urgent task for the partners to explore ways on improving the management mechanism for the ASEM initiatives on the occas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ASEM this year. Otherwise, the ASEM process may lose the momentum to enhance substantially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region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points, a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all ASEM Partners are indispensable not onl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but also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those initiatives. With these efforts, ASEM VI is sure to serve as a catalyst in revitalizing and substantiating the overall ASEM,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Asia and Europe.

ASEM 협력사업 평가 보고서

- ASEM 출범 후 10년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

1. 배경

1996년 6월 방콕 정상회의로부터 출범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 ASEM)는 국제관계에서 3대 중심축을 형성하여온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간 상호관계에 있어서 과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아시아와 유럽 지역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틀을 마련하였다. ASEM 회원국들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의 3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며 양 지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ASEM은 비공식적 성격(informality)과 다차원적 성격(multi-dimensionality)을 주요 운영 원리로 삼아 폭 넓은 의제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ASEM은 지난 5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세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채택, 추진하여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사업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운영 메카니즘의 부재로 인해 협력사업이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협력의 중장기적 비전이나 방향성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제6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06년은 출범 10주년을 맞는 ASEM에게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특히 ASEM 회원국 수가 EU 집행위원회를 포함 26개국에서 39개국으로 증가하였고 아직까지 상당수의 국가들이 ASEM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ASEM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현재와는 다르게 질적, 양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10년간 ASEM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협력사업들을 정리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ASEM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고 양 지역간 미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ASEM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협력사업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였다.

한국정부는 개별 ASEM 협력사업의 제안국에 대해 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부의 공식문서 등 기존 문헌을 면밀히 조사하고, ASEM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협력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6차 ASEM 정상회의 전까지 추진 된 총 105개의 협력사업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SEM 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국과 같은 상설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력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 ASEM 협력사업의 현황과 특징

(1) 정치 분야 협력

ASEM 회원국간 정치대화는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및 군비 축소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안보 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이해 및 신뢰를 증진시키고 양 지역간 협력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대화 분야의 구체적 협력사업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사업과 비교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는 우선 그 협력사업의 수(12건)에 있어서도 여타 분야 사업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 역시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교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 후속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분야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분야 협력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50건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 진행되어 왔다. 특히,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과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은 양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관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민간기업간 교류와 대화의 장을 제공하여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은 양 지역 민간기업간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더욱이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ASEM 신탁기금(ATF) 설치 등 다양한 금융협력은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협력사업 다수가 세미나, 워크숍 등 단순한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정보 및 의견교환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일부 사업들은 과거에 이미 추진되어온 다양한 사업 또는 회의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ASEM 경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은 약화되고 실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중 상호관련성이 높은 사업간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여 ASEM의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 분야 협력

ASEM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간에 양 사회와 문화에 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등 폭 넓은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총 43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양 지역간 사회/문화적 협력 증진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 ASEF)은 다양한 자체사업을 통해 ASEM 프로세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렇지만 ASEF의 사업 또한 ASEM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사업과도 상호 중복되고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 ASEM 협력사업의 특징 및 평가

ASEM 회원국들은 광범위한 주제 영역에서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양 지역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과 평화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 하지만 추진된 여러 협력사업들 중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으로 발전한 사업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 또한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ASEM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ASEM 협력사업은 자발적 성격(spontaneity)과 다양한 주제 아래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수의 ASEM 협력사업이 1~2회성 세미나 및 국제회의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추진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ASEM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과 ASEM을 통한 협력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ASEM 회원국들은 좀 더 부가가치 있는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ASEM 협력사업 중 회원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언론 관심 부족 혹은 시민사회의 제한된 참여로 ASEM 협력사업 중 몇 개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SEM 협력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원은 약화될 것이다.

셋째, 협력사업간 중복되거나 유사 주제에 관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일반인들은 이러한 협력사업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ASEM 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부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연계 및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국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지닌 협력사업들은 활발히 추진되는 특징을 보여 온 반면,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자국이 제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ASEM 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안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ECF 2000⁴⁾, 외무장관회의에서 정리되고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ASEM 운영방식에 관한 지침서⁵⁾와 본 보고서의 평가를 토대로 ASEM 협력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위 자료들에 명시되어 있듯 ASEM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해 고위관료회의(SOM)는 정기적으로 3개 분야의 사업들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고위관료회의(SOM)가 ASEM 협력사업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개별사업의 지속 혹은 종결 여부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조정국들의 역할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ASEM 협력사업들은 중요사업 중심으로 나온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 정상회의 의장국과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이 협력사업의 관리 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국 회의에 참여하는 등 협력사업의 사전 및 사후 행정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M 협력사업들은 APEC과 같은 지역협력체와 달리 전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부재로 신규사업 제안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협력사업들은 각 제안국의 추진의지가 사업형태 및 추진상황에 큰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기존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가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존재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ASEF에서 운영하고 있는 Infoboard나 가상사무국(Virtual Secretariat)이 설치되면 ASEM 협력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목표로 ASEM 업무 및 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적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 AECF 2000에 따르면 "ASEM 협력사업의 모든 결과는 SOM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SOM은 사업들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사업을 지속 또는 종결할 여부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협력사업 검토를 위해 사업들을 다수의 주제군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5) 외무장관회의에서 정리 된 ASEM 운영방식에 관한 지침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SOM]

- SOM에게 제안 된 협력사업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SOM에서 채택된 사업은 정상회의 혹은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되기 전에 추진될 수 있다. SOM은 3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상황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한다.

[조정국]

- 조정국의 역할인 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와 협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간 정보 교환은 ASEM 연락관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ASEM 협력사업 관리]

- ASEM 협력사업을 좀 더 실속 있게 하기 위해 주최국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주최국은 건의 된 의견들은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에 반영하거나 취합 된 의견들에 대해 주최국의 입장을 설명 해줄 것이다. SOM은 3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ASEM 협력사업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
- 승인 된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ASEM Infoboard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 전에 ASEM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사업에 대해 홍보 함. 또한 예전에 추진 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와 관련 된 정보를 취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 ASEM Infoboard를 통해 ASEM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회원국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ASEM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여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ASEM 차원의 협력이 회원국간 충분히 공유 되지 못한 점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ASEM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ASEM의 10주년을 맞아, ASEM 협력사업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ASEM 프로세스는 양 지역간 지속적 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을 잃을 것이다.

앞서 지적된 점들과 더불어 협력사업들을 성공적이게 이끌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때 ASEM은 이번 제6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약어 표

	영 문	국 문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자문위원회
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AECF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
AEETC	Asia-Europe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	아시아-유럽 환경 기술개발센터
AEFGC	Asia-Europe Forum of Governors of Cities	아시아-유럽 시장(Governors of Cities)포럼
AEITTP	Asia-Europ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Programme	아시아-유럽 정보기술 및 통신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사업
AEPF	Asia-Europe People's Forum	아시아-유럽 민간포럼
AEVG	Asia-Europe Vision Group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AIO	ASEM Invest Online	화상정보 교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지역안보 포럼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F	Asia-Europe Foundation	아시아-유럽 재단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US	Asia-Europe Museum Network	아시아-유럽 박물관 네트워크
ASEP	Asia-Europe Parliamentary Partnership	아시아-유럽 의회 동반자회의
ATF	ASEM Trust Fund	ASEM 신탁기금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CMM	Cultural Ministers' Meeting	문화장관회의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 조약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C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원회
EFEX	European Financial Expertise Network	유럽 금융 전문가
EMM	Economic Ministers' Meeting	경제장관회의
EnvMM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환경장관회의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M	Finance Deputies' Meeting	재무차관회의
FEALAC	Forum for East Asia 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inMM	Finance Ministers' Meeting	재무장관회의

	영 문	국 문
FMM	Foreign Ministers' Meeting	외무장관회의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국제박물관협의회
ICP	Investment Contact Point	ASEM 투자분야 연락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기술
ICTMM	ICT Ministerial Meeting	ICT 장관회의
IEG	Investment Expert Group	투자전문가 그룹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AP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투자촉진행동계획
LEMC	Labor and Employment Ministers' Conference	노동장관회의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PGG	Pilot Phase Guidance Group	선도그룹회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관계
SMEMM	SME Ministerial Meeting	중소기업장관회의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
SOMTI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STMM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과학기술장관회의
TCR	Trans-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유라시아 네트워크
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TKR	Trans-Korea Railway	한반도종단 철도
TMGR	Trans-Mongolia Railway	몽골횡단 철도
TMR	Trans-Manchuria Railway	만주횡단 철도
TSR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 철도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연합아동기금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파괴무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ASEM 관련 웹사이트

ASEM 일반	1) ASEM Infoboard - http://www.aseminfoboard.org
	2) European Commission's Overview of ASEM Developments -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asem/index_en.html
ASEM 정상회의 관련 웹사이트	1) ASEM 4, Copenhagen, September 22-24, 2002 - http://www.um.dk/en/menu/ForeignPolicy/InternationalOrganisations/ASEM/ASEM4summit/
	2) ASEM 5, Hanoi, October 8-9, 2004 - http://www.asem5.gov.vn
	3) ASEM 6, Helsinki, September 10-11, 2006 - http://www.asem6.fi
	4) ASEM 7, Beijing, October 24-25, 2008 - http://www.asem7.cn
	5) ASEM 8, Brussels, October 4-5, 2010 - http://www.asem8.be
ASEM 재단	1) Asia-Europe Foundation(ASEF) - http://www.asef.org
ASEM 회의 및 사업 관련 웹사이트	1) ASEM-Duo Fellowship - http://www.aseduo.org
	2)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TEIN) - http://www.apiicc.org
	3) ASEM Ministerial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 http://www.cordis.europa.eu/asem
	4) ASEM Green Independent Power Producers Network - http://www.ec-asean-greenippnetwork.net
ASEM 관련 시민사회 웹사이트	1) Transnational Institute(TNI) - http://www.tni.org
	2) Asia-Europe Project - http://www.asia-europe-network.org
	3) Asienhaus(ESSEN) - http://www.asienhaus.de

ASEM 관련 시민사회 웹사이트	4) Friedrich Ebert Stiftung(FES) - http://www.fes.de
	5) Asia-Europe People's Forum(AEPF) - http://www.aepf.info
	6) Asia-Europe Business Forum(AEBF) - http://www.aebflo.org
	7) Asia-Europe Environment Forum(ENV forum) - http://env.asef.org
	8) Asia-Europe Museum Network(ASEMUS) - http://www.asemus.museum
	9) Asia-Europe Cultural Portal - http://www.Culture360.org

ASEM 길라잡이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 11-1260000-000053-14

발행 2006년 09월 초 판 1쇄
2008년 10월 개정판 2쇄
2010년 09월 개정판 3쇄

발행처 외교통상부 중유럽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도렴동)

편집 및 인쇄 (주)엔씨엘피플스 ☎ 02-2024-2300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외교통상부 중유럽과 ☎ 02-2100-8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